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지식 등을 최초로 익히고 습득하는 곳이 가정임을 상기할 때 가정은 청소년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차적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가정의 기능들이 변질되거나 상실되어가고 있다. 과거 가정이 담당했던 경제적 기능,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오락적 기능 등은 각각 직장, 학교, 교회, 매체 등에 빼앗기고 붕괴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가정의 위기는 청소년의 탈선이나 가출을 조장하고 밝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의 기능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의 핵심적 기능임을 상기해 볼 때, 가정의 정상화와 가정교육 기능의 회복 및 강화가 청소년 육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선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지식이나 기능습득 중심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자녀의 인격, 정서, 사회성의 형성과 함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도래할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가정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교육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학교교육의 제한점들을 보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정교육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부모됨임을 상기해 볼 때 자녀지도에 대한 부모의 자세와 역량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가변적이고 과도기적인 시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모와의 갈등이 잦아지고 그들의 지도과정에 있어서도 곤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자녀지도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이 각별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교육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컸었던 반면에 가정교육이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모교육과 청소년기 자녀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미흡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몇몇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발간된 자녀교육 자료들도 외국에서 많이 적용

되는 부모역할 훈련이나 의사소통 훈련 등 제한된 영역에 치우쳐 왔고 관련 책자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개괄적 방향이나 바람직한 부모자세에 대한 막연한 논의에 그치는 등 현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지도 과정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기 자녀지도를 위해 부모들이 절실히 알고 싶어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자료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부모들에게 청소년기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1992)의 가정지도편람(Ⅰ)의 개발에 이어 올해(1993)에 그 후속 자료로서 가정지도편람(Ⅱ)을 개발하게 되었다. 가정지도편람(Ⅰ)이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관한 주요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금년에 발간되는 가정지도편람(Ⅱ)에서는 청소년기 자녀교육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기쉽게 부모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본 연구는 부모대상 교육자료인 가정지도편람(Ⅱ)의 개발에 앞서서, 청소년기 자녀지도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기되는 내용 및 주제와 지도요점들을 찾고 선별하기 위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기초조사의 성격으로 수행되었다.

과연 현대 가정에서는 청소년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청소년기 자녀지도의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문제와 딜레마는 무엇이며, 그들은 자녀지도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가?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지도 과정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와 의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어떤 대답을 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분석과 함께 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의 결과들은 부모교육자료인 가정지도편람(Ⅱ)의 집필지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뿐만 아니라 넓게는 현재의 청소년 가정지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지도방안의 수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대가 요구하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실된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의 분석과 청소년과 부모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가정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을 크게 ① 인간관계지도 ② 생활습관지도, ③ 성교육, ④ 문제행동지도, ⑤ 진로지도, ⑥ 도덕성 및 가치관 지도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지도상의 관심과 논쟁을 제기하기 쉬운 주제들을 선별해서 그 실태와 지도방안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정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이 실시된 부모와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에서 다룬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1) 인간관계지도 : 부와 모의 역할분담 실태와 청소년의 기대 /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의견반영 정도 / 형제간의 다툼에 대한 태도 / 친구의 영향(긍정적 및 부정적)에 대한 평가 /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 2) 생활습관지도 : 용돈지급방식 / 물품구매방식 / 여가시간의 개념과 하고 싶은 일 / 가사활동 참여정도 / 시간관리의 실태
- 3) 성 교육 :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여부 / 알고 싶은 성교육항목 / 성에 대한 태도 / 기대하는 성교육담당자(기관)
*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부모의 성지식 정도 / 성에 대한 태도 / 항목별 성교육 시기 / 자녀에게 질문받은 적이 있는 성교육 내용
- 4) 문제행동지도 : 문제행동의 경험 /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 인지정도 /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 방식 /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느낌(1) / 처벌에 대한 태도 /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
*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1) 대신에 ‘자녀의 문제행동 중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이 포함되었다.
- 5) 진 로 지 도 : 진로지도 시기에 관한 의견 /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성 고려정도 / 직업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 / 진학과 취업의 갈등상황 하에서의 태

도 / 직업결정에 있어서의 제한요인에 대한 태도 / 직업과 성역할

- 6)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 : 평소의 부모님의 충고내용과 기대하는 충고내용 / 은연중에 용인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2) /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의 태도

*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2)의 내용은 제외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용〉과 〈학부모용〉의 설문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각각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내용이 첨가되었다.

2. 면접조사의 주요내용

1) 인간관계지도

- 현대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부와 모의 역할분담 형태 및 내용
- 현대 가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의 의견 반영 정도와 참여해야 할 의사결정의 내용
- 자녀들이 다룰 때 부모가 취해야 할 입장과 중재방법
- 자녀의 올바른 친구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와 지도방법
- 이성교제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와 지도방법

2) 생활습관지도

- 용돈의 적절한 지급방식과 액수 및 지출관리 지도방법
- 자녀의 적절한 소비습관 형성 및 계획적 구매를 위한 지도방법
- 여가시간의 개념과 여가활동 지도방법
-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를 통한 역할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방법
- 자녀의 시간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지도방법

3) 성교육

- 성교육의 의미와 부모들이 지향해야 할 성역할
- 자녀의 부정적인 성태도 개선을 위한 지도방법
- 국민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
-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

—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

—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4) 문제행동지도

— 문제행동의 개념과 심각성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인식차이의 극복방법과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문제행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방법

— 자녀의 범죄화 되는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 자녀에게 미치는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방법

— 사례별 문제행동의 지도방법

(국교생 자녀의 도박, 국교생 자녀의 전자오락 몰입, 국교생 자녀의 도박성 놀이 탐닉, 중학생 자녀의 음란물 탐독, 중학생 자녀의 상습적 본드흡입, 고교생 자녀의 유흥업소 출입과 가출, 고교생 자녀의 상습적 폭력)

— 자녀의 비행 예방을 위해 평소 가정과 부모가 갖추어야할 태도와 자세

5) 진로지도

— 자녀 진로지도의 시기와 단계별 진로지도의 내용

— 자녀의 흥미, 적성발견 및 함양 방법과 적성을 고려한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

— 직업세계의 탐색방법 및 직업정보의 획득 방법

— 진학과 취업의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및 부모의 자세

— 진로에 대한 이상과 현실적 여건 사이의 괴리에서 고민하는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

— 딸에 대한 진로지도 방법

6) 도덕성 및 가치관 지도

—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 도덕적 행동이 현실적 이익과 상충하는 상황에서의 자녀 지도방법

— 이기적인 자녀의 지도방법

— “도덕적 불감증”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폐해와 이의 개선을 위한 지도방법

— 자녀의 편법주의적 행동에 대한 지도방법

— 부모-자녀 세대간 갈등에 따른 충돌에 부모가 취해야할 태도와 지도방법

III.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문헌분석, 설문조사, 면접조사의 세 가지 조사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첫째로,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 가정지도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특성별로 영역화하고 각 영역별 지도에 있어서 논의대상이 되어지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내용과 항목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로,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부모와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알아보았다.

셋째로, 문헌분석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각 이슈별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도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의 방법과 절차

조사대상은 대도시의 중고등학생과 그 부모로 제한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에 한정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조사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춘천, 광주 등의 5개 대도시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 경과를 개관하면, 1993년 8월 설문문항의 구성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고 방학동과 쌍문동의 「지역사회협의회」 학부모들과의 워크숍을 통하여 설문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 워크숍에서는 연구진이 설정한 연구문제의 적합성 및 추가되어야 할 연구문제가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학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렵고 궁금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될 표본의 크기를 학부모, 청소년 각각 1,000명 정도로 설정하고 일선 학교에 예상 회수율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회수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60%) 회수율을 감안하여 학부모, 청소년 각각 1,500명을 조사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표본의 크기를 5개 대도시에 각각 학년별(중학

생/고등학생), 성별로 할당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배포, 회수하였다. 회수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각 지역 학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6.3%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였는데, 각 지역의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각 지역의 설문배포 및 설문회수율

	배 포		회 수		전 체	지역별 회수율
	중학교 (남/여)	고등학교 (남/여)	학 생	학부모		
서울	150명 (100/50)	150명 (100/50)	292명 (97.3%)	259명 (86.3%)	551명	91.8%
부산	150명 (50/100)	150명 (50/100)	298명 (99.3%)	294명 (98.0%)	592명	98.7%
춘천	150명 (100/50)	150명 (50/100)	299명 (99.7%)	283명 (94.3%)	582명	97.0%
대전	150명 (50/100)	150명 (50/100)	300명 (100%)	296명 (98.7%)	596명	99.4%
광주	150명 (50/100)	150명 (100/50)	282명 (94.0%)	286명 (95.3%)	578명	94.7%
총 계	학부모·학생 각 750명	학부모·학생 각 750명	1,471명	1,418명	2,889명	96.3%

* 전체 회수율 : 96.3% - 학생 회수율 98.1%
- 학부모 회수율 94.5%

청소년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를 한 쌍으로 묶어 코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청소년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가 모두 있을 때 완전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 그러나 회수과정에서 학부모용 혹은 청소년용의 설문지 중 하나만 회수된 경우가 있고 데이터크리닝 결과 청소년용과 학부모용이 부모-자녀 쌍을 이루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분석의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청소년의 설문지가 쌍으로 분석되어야 할 경우에는 짝이 맞는 사례만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사례는 청소년 1,474명, 학부모 1,394명이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남/여 및 중/고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이 3 : 7 정도인데 40대 학부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50% 가량이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표 2, 표 3 참

조).

수집된 자료는 코딩작업을 거쳐 SPSS-PC+(4.0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에는 빈도분석(Frequency), 교차분석(Crosstabs Tables), 비서열적 변수의 상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표 2〉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별	구 분	명 수	%
성 별	남	720명	49.2
	여	737명	50.3
	미 상	7명	0.5
학년별	중	739명	50.5
	고	722명	49.4
	미 상	3명	0.2
총	계	1,464명	

〈표 3〉 학부모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별	구 분	명 수	%
성 별	남(부)	468명	33.6
	여(모)	910명	65.3
	미 상	16명	1.2
학력별	중졸 이하	327명	23.5
	고졸 이하	720명	51.6
	대졸 이하	319명	22.9
	미 상	28명	2.0
연령별	30대 이하	229명	16.4
	40대	984명	70.8
	50대 이상	143명	10.1
	미 상	38명	2.7
총	계	1,394명	

2. 면접조사의 방법과 절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면접조사지의 내용은 각 영역별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궁금하게 여기거나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행연구 분석과 학부모 자문회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진이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청소년교육과 관계된 상담실, 중등학교,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진 면접조사지를 먼저 보내고 1,2주 후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면접조사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한 경우에는 그 조사지를 회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조사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관계지도 : 김여옥(쌍문중학교 교장), 김혜숙(청소년 대화의 광장), 방기연(목동청소년회관)
- 2) 생활습관지도 : 김옥순(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김원중(서울대 강사), 김혜숙(청소년 대화의 광장), 오진환(오산고)
- 3) 성 교육 : 김남선(참교육상담소), 이명용(청소년상담연구소), 이명화(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임영희(서울여학생교육원)
- 4) 문제행동지도 : 고희원(연성원), 김형태(한남대), 김희태(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이규미, 한명섭(서울YMCA 청소년쉼터)
- 5) 진 로 지 도 :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현대고), 이옥(덕성여대), 이재창(홍익대)
- 6)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 : 김중호(영락교회 청소년상담실), 김혜래(현대고), 손봉호(서울대), 조난심(한국교육개발원)

Ⅳ. 조사결과 분석

이 부(제Ⅳ부)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의 주요결과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청소년기 가정지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지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결과의 내용은 각 지도영역(인간관계지도, 생활습관지도, 성교육, 문제행동지도, 진로지도,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의 각 주제별로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성되어진다.

첫째로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가 분석되어진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주제가 유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관련문헌 분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청소년 가정지도 관련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본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차이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를 보다 심층적,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청소년기 가정지도상의 문제와 요점들에 대해서 실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할 것인가에 관한 지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각 영역별 지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소개될 것이다.

1. 인간관계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1. 가정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1) 실태조사결과

전통적인 ‘엄부자모’의 부모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요즈음 실제로 가정교육의 많은 부분이 부모의 공동역할로 수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또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지도와 관련한 10여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러한 일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각각 물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4),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 일’,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일’, ‘뉴스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일’, ‘장래직업 등에 관해 조언해 주는 일’, ‘가정내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의 역할은 부모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에 대하여는 청소년 역시 대체로 부모가 함께 담당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온 ‘생계유지’의 역할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뉴스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이나 ‘장래직업에 대하여 조언해 주는 일’, ‘가정내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 역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필요한 물품을 사는 일’과 ‘친구문제·학교생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일’에 대하여는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습지도’, ‘생활습관지도’, ‘좋은 책·영화·공연물 등을 추천하는 일’ 등에 대하여도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일’, ‘친구문제·학교생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일’ 등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쪽에 높은 기대를 나타내는 역할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에게 기대하는 경우가 각각 34.1%, 40.2%, 37.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가정에서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일, 가정질서를 유지시키는 일, 자녀의 사회·직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일 등을, 어머니는 살림을 꾸리고 자녀의 학습과 생활습관지도와 일상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일 등을

각각 더 많이 맡아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부모상과 남녀의 역할구분이 많이 잔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내에서 아버지가 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왔던 엄하게 꾸짖는 일, 질서를 유지하는 일, 진로지도 하는 일 등이 부모의 공동역할로 많이 수행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기대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계책임을 제외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및 교육적 기능이 점차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가정에서 아래의 일들은 대체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학부모)
가정에서 아래의 일들을 누가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까?(청소년)

(단위 : %)

부모역할	집단	아버지	어머니	부모모두	기타
가정생계	학부모	67.9	6.5	25.3	0.3
	청소년	60.9	4.7	34.1	0.3
물품구입	학부모	5.9	67.9	24.9	1.4
	청소년	5.3	51.3	40.2	3.2
꾸중	학부모	31.3	23.7	42.8	2.2
	청소년	25.2	23.8	47.3	3.6
학습지도	학부모	16.8	31.3	28.5	23.4
	청소년	13.4	27.2	36.7	22.6
생활지도	학부모	13.2	40.9	43.0	3.0
	청소년	12.1	35.1	49.3	3.5
뉴스*	학부모	30.7	14.7	42.0	12.6
	청소년	37.5	10.4	37.9	14.1
문화추천	학부모	14.7	28.2	29.9	27.2
	청소년	12.7	22.3	34.7	30.3
장래조언	학부모	20.4	18.7	54.3	6.5
	청소년	20.7	13.7	55.2	10.5
대화**	학부모	6.7	47.8	35.7	9.7
	청소년	5.1	47.7	31.4	15.7
질서유지	학부모	26.5	18.7	52.3	2.5
	청소년	28.8	12.4	56.0	2.8

* ‘뉴스나 사회문제에 관하여 대화한다’

** ‘친구문제,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 선행연구결과 개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엄격하고,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자녀를 사랑하는 진한 속마음을 해프게 내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전형적인 아버지로 또

바람직한 아버지로 생각할 것이다. 또 어머니는 자녀와 격의없이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서울시 중고등학생 1,153명의 응답을 분석한 한 연구(김영순, 1986)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외출도 함께하며 격의없이 지내주기를 더 많이 희망하였다. 또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같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인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모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도방안

아버지도 참여해야 오늘날 ‘아버지의 부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바쁜 아버지들은 가정의 자녀교육까지 동한시하거나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업을 갖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은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일로만 남아있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같이 자녀양육과 가정교육에 협력하여 참여할 때 아이들의 성격발달이나 지적 발달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결과들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p. 24).

성역할의 유동성 어머니들의 사회참여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전처럼 부와 모의 역할을 분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부와 모의 역할을 일괄적으로 규정해 놓기 보다는 각 가정마다 상황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모 중 한 사람은 강하게, 다른 한 사람은 온화하게 자녀를 대하여 서로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이 때 한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 나라 부모들 중에서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부’의 권위만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머니가 이를 분명히 권위있게 지도하기 보다는 “아버지한테 이른다”라는 식으로 미루는 경우이다. 이처럼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권위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간 상호보완적인 역할수행이 어렵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지도할 때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성
지가 딸은 에 관련된 문제나 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항은 특히 그렇다. 고민에 대한
어머니가 상담자의 역할도 딸은 어머니가, 아들은 아버지가 맡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넓은 공감대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부모의 말
 이 더욱 신뢰성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기 자녀들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1) 실태조사결과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그들의 의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 설문조사에서는 가정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표 5) 학부모의 경우 6개 항목 모두에서 50% 이상이 청소년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거나 다소 반영하는 등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의 경우 이사회문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50%이상의 응답자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TV채널선택, 식단결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사가 다른 사항에 비하여 높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생활이나 이사회문제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학부모들은 그들이 자녀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생각에 비하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6개 항목 모두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에 비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생활, 집의 이사, 여름휴가계획 등의 항목은 그 외의 항목에 비하여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들에 비하여 자신의 의사가 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자녀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가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니까?

(단위 : %)

가정에서의 의결사항	집단 구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χ^2
TV 채널선택	학부모	84.5	15.4	182.4***
	청소년	80.1	19.8	
식단결정	학부모	88.3	13.8	179.6***
	청소년	77.8	22.1	
종교생활	학부모	59.2	40.8	307.5***
	청소년	51.5	48.5	
이사계획	학부모	53.6	46.5	213.9***
	청소년	40.7	59.3	
휴가계획	학부모	71.4	28.6	208.5***
	청소년	61.5	38.5	
가구배치	학부모	67.1	32.8	125.9***
	청소년	63.5	36.5	

*** $P < 0.001$ 에서 유의미

* 선행연구결과 개관

광주직할시와 전남지방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65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김노영, 1991 : 49)에 의하면 부모들은 생활비를 계획할 때 자녀의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지 않으며, 자녀들의 옷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그들의 의견을 들어준다. 생활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어머니는 24.6%이다. 반면에 자녀의 옷을 구입할 때는 49.1%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은 57.9%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준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반찬의 종류와 맛을 결정할 때에는 40.5%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28.3%만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이 사용할 가구를 결정할 때에는 43.7%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도 거의 같은 비율(38.9%)로 부모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준다고 응답했다. 자녀들의 진학을 결정할 때에는 47.9%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이보다 더 많은 54.5%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V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에는 39.0%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는 편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이보다 약간 적은 34.3%가 자신들의 의견이 고려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정생활에서 대체로 자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의 장래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학 결정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모가 11.0%이며 대체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모도 23.7%나 되었다. 특히 생활비에 관한 계획은 전적으로 부모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은 듯하다. 54.5%의 어머니가 생활비 계획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한 연구(최영애, 1982 : 69)는 자녀의 옷구입이나 방의 실내 장식 등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기지도나 진학문제, 직업선택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 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600명인데 그들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6개 항목 모두에서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부모가 많다. 거의 반수의 주부들이 자녀의 의복구입은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자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부모가 결정한다고 말한 주부도 36.8%에 이른다. 그러나 자녀가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다. 자녀의 방을 어떻게 꾸밀까를 결정하는 데도 역시 부모들의 결정이 지배적이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자녀의 특기지도에 관한 결정에서는 부모가 결정하는 가족이 85.1%였는데 부모가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응답이 43.4%였다. 진학에 관한 결정도 특기지도에 관한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부모가 결정하는 가족이 40.8%, 부모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가족은 32.4%였고, 부모의 의견을 참고로 자녀가 결정한다는 가족이 20.6%이다. 직업선택이나 결혼문제에서도 부모의 결정이 50% 이상 유효하기는 했으나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는 적었고, 결혼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자녀가 결정하는 가족도 12.3%였다. 이 연구결과도 앞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와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도방안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할 사항들	자녀의 의견을 가족의사결정에 얼마만큼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은 각 부모가 결정할 문제이다. 어떤 영역에 어느 만큼 반영시킬 것인지는 부모가 미리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자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녀의 용돈, 가구배치, 의복구입, 진로문제, 학교수업 외의 보충학습 문제 등과 같이 자녀본인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자녀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는 자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의견반영률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	--

부모와 자녀
가 함께 결정
해야 할 문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의해야 할 일로는 부모간의 갈등, 이사계획, 혼
사 등을 들 수 있겠다. 자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닐 때에는 부모 선
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부담으로 여
기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자녀가 충분히 성숙했다면 의사결정에 참여시
켜도 괜찮다. 또한 자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가 가족문제에 관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거나 보
여줌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
이 있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현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 서로 도우면
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함께 결정했을 때 그에 대한 자발성, 책임감은
증대되기 쉽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마음을 내어서 하는 일과
주어진 것을 그냥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마음을 내어서 하게 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있게 일을 하게 된다. 마음을 능동적으로 내
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급적이
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자기책임
자발적으로 수행해 가는 데서 그만큼 자주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임에 긍지를 느끼는 물론 가정에 대한 애착심 및 의무감도
갖게 될 것이다.

3. 형제간의 다툼에 대한 태도

1) 실태조사결과

자녀가 다툼 때 부모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싸움에 개입해야 하
나, 말아야 하나? 개입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중재를 해야 할까? 서열을 중시해야
할까, 아니면 잘잘못을 따져 판단해야 할까? 서열상 누구편을 들어야 하나?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1.3

%), 어떤 형태로든 중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방법으로는 ‘형이나 아우 가릴 것 없이 똑같이 꾸짖는다’는 응답자가 51.2%,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다’는 응답자가 27.1%였다(표 6). 한편 청소년들은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난 경우 82.3%가 ‘잘못한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형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동생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각 11.1%, 6.5%에 불과하였다(표 7).

〈표 6〉 자녀들간의 다툼이 있을때 대체로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학부모)

태도	%
대체로 손위형제를 꾸짖는다	10.3
대체로 손아래 형제를 꾸짖는다	6.8
똑같이 꾸짖는다	51.2
싸워도 간섭하지 않는다	1.3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다	27.1
기타	3.2

〈표 7〉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때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청소년)

태도	%
동생이 양보해야 한다	6.5
형이나 누나가 양보해야 한다	11.1
잘못한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	82.3

이로써 청소년 대부분이 형제간의 다툼을 해결함에 있어 행위의 잘잘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생각은 형제간 다툼에 있어 부모의 실제 중재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남을 발견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경우 잘잘못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반면 학부모는 자녀들의 다툼에 합리적인 판단없이 싸우는 그 자체로 두 사람을 모두 꾸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형과 아우의 서열을 염두에 둘 때 아우보다는 형을 꾸짖는 부모와 아우보다는 형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형제간의 다툼에 있어서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나 책임보다 형이나 윗사람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선행연구결과 개관

부모의 중재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elson, R.B. & Russo, N., 1988 : 11-18). 형제간의 갈등이 발생했을때 부모와 같은 힘 있는 제삼자가 갈등상황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모들은 형제가 다툰 경우 약한 자녀의 편을 들어 손아래 형제보다는 손위형제를, 딸보다는 아들을 꾸짖기 쉬운데 이러한 행동이 힘 있는 자녀로 하여금 더 빈번하게 공격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중재가 형제간의 갈등에는 비효과적이고 자매간의 갈등에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Kendric, C. & Dunn, J., 1983 : 62-70)도 있다. 형제다툼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형제간 갈등에 대한 중단적 연구결과,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그들의 싸움에 간섭할수록 나중에 가서도 자주 적대적인 행위를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간섭이 형제다툼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Daniels과 Plomin이라는 학자는 오랫동안 형제관계를 연구한 결과 형제관계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호심, 친밀감, 경쟁심, 적대감의 4가지를 추출하였다. 서울의 국민학교 6학년 학생(11-13세) 중에서 형제가 한 명인 246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편애한다고 지각할 경우 형제관계의 4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이 부각되는가를 분석한 결과(한미현, 19889)를 보면 보호심과 친밀감이 낮고 경쟁심과 적대감이 높았다.

Ihinger라는 학자는 부모의 편애나 비일관적인 태도가 자녀들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유를 형제자매들간에 통용되는 행동규칙이 “공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형제자매들간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부모가 불공평하게 대우하면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이익이라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원칙은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간의 행동원칙과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다거나 혹은 자녀가 부모보다 무엇인가 이득을 본다고 해서 부모자녀간에 자기가 손해본 것을 위해 싸움을 일으키는 가족은 드물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이른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흔히 말하는 “동생이니까 네가 참아라”든가 “형에게 그렇게 대하다니 사과해라”는 동의 말이 혹 자신과 자녀들간의 행동원칙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지켜지길 바라는 턱도 없는 기대는 아닐지 생각해 볼만 하다.

2) 지도방안

감정을 가라 형제들간의 다툼은 부모로서 대처하기에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에 속
않아야 한다. 뜨거워진 남비를 그냥 맨손으로 돌면 손을 데기 마련인 것처럼,
형제와의 싸움으로 화가 나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쉽

지 않다. 그러나 열을 계속 가하지만 않으면 남비가 식는 것처럼 화가 난 감정도 더 꼬이지만 않게 한다면 결국 가라앉게 된다. 형제들간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부모-자녀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 대응을 선포리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중재방법

가능하면 참견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해결하게 하는 것도 좋다. 정도가 너무 심할 때에는 중재에 나서되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각각 다른 방으로 떼어 놓는 것도 감정을 가라앉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툼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충분한 경청을 통해서 사태파악을 객관적으로 함은 물론, 공평한(편들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화난 감정이나 억울한 심정을 빨리 가라앉힌 후에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때 부모가 심판관처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부모라는 중재자를 가운데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감정수용을 안해 버리면 부모의 중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4.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친구의 영향

1) 실태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한 나머지 자녀의 친구관계를 간섭하고 제한하여 자녀들과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친구의 영향과 관련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부모와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 본 결과 부모 역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높이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의 긍정적 영향 중에서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준다’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생각에는 가장 많은 학부모(각각 73.9%, 66.2%)와 청소년(각각 83.9%, 74.7%)이 그렇다고 수긍함으로써 청소년 친구집단의 유희적 기능, 정보교환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그림 1).

		매우 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학부모	5.2	23.7	24.7	35.1	11.3
	청소년	3.8	13.7	32.7	31.8	18.0
		$\chi^2 = 57.5^{***}$				
2.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된다	학부모	4.8	19.9	17.1	40.6	17.6
	청소년	3.0	12.7	22.7	34.4	27.2
		$\chi^2 = 99.0^{***}$				
3. 자기 생각보다는 친구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학부모	3.8	23.5	22.9	35.3	14.6
	청소년	2.4	20.2	30.4	31.7	14.4
		$\chi^2 = 98.0^{***}$				
4.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준다	학부모	14.0	59.9	18.8	5.9	2.1
	청소년	31.6	52.3	12.0	2.1	1.2
		$\chi^2 = 96.8^{***}$				
5.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을 길러준다	학부모	7.8	39.3	30.6	16.5	5.8
	청소년	7.0	25.6	34.3	20.1	13.0
		$\chi^2 = 51.0^{***}$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학부모	14.4	51.8	24.5	7.1	2.2
	청소년	27.9	46.8	16.8	5.8	2.7
		$\chi^2 = 82.9^{***}$				

*** P<0.001에서 유의미.

〈그림 1〉 당신은 친구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학부모와 청소년 두 집단간에는 친구집단의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8). 표에 의하면 친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항목에서는 청소년

에 비하여 학부모의 경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고, 친구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항목에서는 학부모에 비하여 청소년의 경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친구의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는 청소년이 보다 높게 수긍하고 있는 한편, 친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비하여 학부모 집단이 보다 높게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친구집단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각차

친구집단의 영향	집단구분	평균	S. D	t-value
부정적 영향	학부모	10.046	2.685	5.44***
	청소년	10.516	2.335	
긍정적 영향	학부모	7.258	1.968	-3.09**
	청소년	7.041	2.071	

*** P<0.001에서 유의미 ** P<0.01에서 유의미

* 선행연구결과 개관

국민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친구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결과(정재걸, 1992 : 46-65)를 보면 국민학교 1-2학년까지는 이웃에 살거나 학원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을 구성한다. 그러나 3-4학년이 되면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또래집단을 만든다. 국민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남녀학생 모두가 동아리를 만드는데 여학생의 동아리가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배타적이다.

중학생이 되면 또래집단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 또래집단간의 긴밀성도 커져서 화장실이나 매점도 같이 가고 도시락도 같이 먹으며, 운동이나 귀가도 같이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TV탤런트 등 대중 스타에 대한 기호도 공유하곤 한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의 또래집단은 범위가 크지 않으며 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는 애들의 또래집단은 단적인 경우가 드물고 패거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는 애들의 패거리는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형성된다. 노는 애들의 또래집단은 결속력이 강하고 따라서 다른 학생들에게 상당히 신기하고 또한 위협적으로 비춰진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공부 잘하는 집단에서의 친구관계는 매우 소원하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친구와 이야기할 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둘씩 혹은 서넛씩 친구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또래집단에 비해 공동체의식이 상당히 약하다. 성적이 중간층인 학생들은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에게 친구는 학교생활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며,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이다. 이들의 또래집단은 2명이 한 조를 이루

는 단짝에서부터 7-8명이 동아리를 이루는 패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수업시간에는 잠잠하지만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후나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어울린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 중간층 학생들의 또래집단도 상당히 약화된다.

이 연구는 또래집단의 기능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을 가족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정을 도움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장차 하나의 가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부모들이 이 독립과정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별무리가 없게 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면 또래집단과 부모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두번째 기능은 사회화 기능이다.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타협의 정신을 배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차 시민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게 된다.

세번째 기능은 유희성 충족기능이다. 또래집단에서 공유되는 은어, 독특한 행동양식이 청소년들의 유희성을 충족시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네번째 기능은 정보의 확인 기능이다. 청소년들은 교사, 부모, 매스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보를 얻지만, 학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또래집단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를 같은 집단의 성원들을 통하여 확인하며,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영광한 소리 하는 애”로 낙인찍히지 않는다.

이 연구는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에 대하여 두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친구란 경쟁의 대상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선입관으로 인해 부모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또래집단의 중요한 기능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친구관계를 유보하고 공부에 전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친구집단의 무력화가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능력과 품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는 평가가 또래집단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남녀 고등학생 912명이 자신들의 친구관계의 특징을 보고한 결과(고영본, 1981)를 보면, 그 중 57.0%가 “많은 사람에게 성심껏 대하고 그 중 특히 마음에 맞는 친구와 더욱 가까이 지낸다”고 대답하였다. 친구를 “넓고 얇게 사귈다”는 학생은 15.8%이고 “좁고 깊게 사귈다”는 학생은 24.2%이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와도 비밀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지 않는 청소년이 54.2%이며, 공부나 여가를 같이 하는 정도로 지내는 경우도 21.6%이고, 남보다 좀더 가까이 지낼 뿐이라고 말한 청소년은 22.4%이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들과 밖으로 드러나는 생활을 공유하기는 해도 속마음을 서로 알고 고민거리를 서로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지도방안

청소년기에 친구관계가 갖는 의미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서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그 자체가 청소년의 발달에 갖는 함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청소년기에 있어 친구관계는 대인관계 형성의 초석이 되며 이성관계의 기반이기도 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주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또래집단의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자녀의 친구 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다.

잘난 친구, 못난 친구 보통 부모들이 자녀의 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자녀보다 무언가 나은 점이 있어서 본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친구’에 대한 부모들의 기준이 실제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기만 한 친구를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기껏해야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정도 아닐까? 잘난 친구건 못난 친구건 서로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익되는 것들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받으면서만 자란 아이의 경우에는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 반면에 주는 경험도 하면서 성장한 아이는 자주적이고 이타적인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친구는 자녀 스스로 선택해야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식별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인정받고, 신뢰받음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제대로 발휘되지만, 통제되고 불신받음으로 인해 좌절하게 될 때 이 식별능력은 발휘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가 사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를 선택하고 친구와 사귀는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녀도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녀의 친구와 친구의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만 선택한 친구들이 어떠한 아이들인지는 부모로서 알아두어야 하겠다. 친구를 밖에서 만나게 하기

친해지자. 보다는 집에서 만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때 같이 대화도 나눔으로써 자녀의 친구와 가까워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으나 그 시간은~이내로 해라”라는 등 어떤 테두리를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해진 테두리 내에선 간섭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아 자녀가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논 상대가 되어 줄 수 있어야겠다.

친구가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될 때
때때로 자녀의 친구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주)}
사실 청소년기에는 친구의 영향으로 좋지 못한 행동(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되면 대개 ‘친구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친구관계는 친구뿐 아니라 당사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별로 안좋아 보인다”, “그 친구와는 사귀지 마라”라고 하지 말자. 청소년은 친구관계를 부모로부터 간섭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렇다고 나쁜 영향을 받는 자녀를 그냥 놔둘수는 없는 일이다. 무조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우선은 그 친구들로부터 자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소속감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하위문화를 통해 자기합리화를 해야 할 열등감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파악이 되면 자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측면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친구들 모두를 지도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내 아이는 양순한데 다 친구탓이란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상황에 개입할 때 낱까, 말까? 어떤 일을 할까, 말까?’하는 갈등상황에서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기통제(self-control)의 훈련을 시켜야 한다. 자기주장훈련(self assertiveness training)이 효과적이다. 즉

주) 친구의 좋지 못한 영향에 관한 지도방안은 문제행동 지도영역의 전문가들 의견이 인용되었음.

남이 권해도 할 일과 안 할 일의 분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
에 키워줌으로써 유혹에 흡수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녀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친구들을 집에 초
대하자. 식사도 같이 하고 늦으면 “집에 전화 걸어주마”라고 하면서 친
절하게 대해 주도록 한다. 자신이 친구집에 가 있으면 부모가 하게 될
걱정, 염려를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방 안에서만 놀게 하지 말고
부엌으로 끌어낸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함께 이야기에 동참해
본다. “뭐 했니?” “너희들이 있어서 숨쉴 발취 좀 했는데 어떠니?” 맛
없다고 하면, “어,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다음엔 밥을 해주마.”
라고 해보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쁜 친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자녀와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들의 입
장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서로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전화번호, 집 등을 알아두고 그들
의 부모들과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좋겠다. 자녀의 친구들과 친해져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의논해 올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겠구나”라고 말해서 대화의 장을 열어 놓도
록 한다. 한 번으로 대화가 끝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친구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므로 자녀의 친구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기
억해야 겠다.

5. 청소년기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1) 실태조사결과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대
체로 학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이성친구와 교제하는 것이 공부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51.5%). 그러나 이성교제 자체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35.4%를 차지하고 있다(표 9). 그런데 한명희
의 연구(1980)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

으며 85% 이상은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가 10년 이상 전에 실시된 연구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보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학부모에 비하여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이성교제라는 문제를 두고 청소년과 학부모가 갈등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하겠다.

〈표 9〉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부모)

학 부 모 의 태 도	%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9.5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면 이성친구와의 교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51.5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5.4
판단이 서지 않는다	3.6

한편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친구와의 교제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님 몰래 계속 만난다는 경우도 13.2%,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만나겠다는 경우도 9.3%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계속 만난다’, ‘부모님 몰래 만난다’에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학생은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교제라면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교제를 끊든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그들의 교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하여 부모의 반대에 상관없이 교제를 지속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0). 여기에서 2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반대에 개의치 않겠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태도는 자녀와의 사이에 두터운 벽을 쌓는 결과를 낳은 뿐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10〉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단위 : %)

청소년의 태도	중 학 생	고등학생	남 학 생	여 학 생	전 체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계속 만난다	6.7	12.0	12.3	6.2	9.3
부모님 몰래 계속 만난다	7.0	19.5	15.8	10.7	13.2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해를 구한다	57.8	46.4	51.3	53.0	52.2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다	28.5	22.0	20.5	30.1	25.3
	$\chi^2 = 69.823$ P<0.001		$\chi^2 = 35.7$ P<0.001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시내 중학생 2,399명과 고등학생 1,007명을 대상으로 이성친구 교제 여부에 대해 질문한 조사결과(이영덕 외, 1991 : 207-209)가 있다. 중학생은 조사 대상자의 21%, 고등학생은 33%가 이성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40%)이 여학생(26%)에 비해 이성친구를 사귀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 1,210명을 대상으로 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한명희, 1980 : 25-29)를 보면 39.7%의 학생이 ‘서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서’가 29% ‘이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므로’, 17.3%가 ‘앞날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53.4%가 대화만 해 보았다고 말했으며 가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었다고 말한 학생은 19.6%이다. 또 14.9%의 학생은 손을 잡고 싶지만 참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를 보면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방식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일부 청소년들(11.7%)은 때로는 키스도 한다고 응답하여 부모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이리시내 국민학교 4,5,6학년 학생 300명과 중학생 593명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희망여부, 원하는 이유, 혹은 원하지 않는 이유, 이성교제의 기준, 사귀고 싶은 이성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김홍균, 1991 : 51-56)를 보면, 이성교제를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한 학생은 국민학생 293명, 중학생 584명이었는데, 국민학생은 38.2%, 중학생은 69.2%가 이성교제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성교제를 원하는 학생 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국민학교 4학년은 26.8%, 5학년 37.8%, 6학년 50.0%, 중학교 1학년 58.5%, 2학년 75.1%, 3학년은 73.0%가 이성교제를 희망하였다.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23명 중 40.2%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

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다음으로 친구로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서(24.1%), 이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16.1%), 호기심과 흥미가 있으니까(10.1%)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이성교제가 우정관계여야 한다고 말했고 우정과 애정을 함께 느끼는 관계라는 학생은 20.8%였다. 반면에 이성교제가 애정관계라고 보는 학생은 3.1%, 장래를 약속한 사이라고 보는 학생은 4.1%로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흥미있는 결과는 사귀고 싶은 이성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다. 이 문제에 답한 학생은 823명인데 36.6%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바라본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용기있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한다는 학생이 29.5%, 사귀고 싶다는 뜻을 편지로 전한다는 학생은 18.7%이며, 오히려 관심없는 척 한다는 학생도 11.3%나 되었다.

이성교제를 한다면 부모 혹은 교사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학생과 중학생의 반응이 달라 재미있다. 중학생은 557명 중 62.7%가 반대하지만 말고 이해하고 도와주기를 희망하며, 불량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14.5%이고, 일일이 참견하지 말았으면 하는 학생이 9.7%, 모른척 해주기를 바라는 학생이 7.2%,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학생은 5.9%이다. 국민학생도 역시 반대하지만 말고 이해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학생이 4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꾸짖어 주기를 바란다는 학생이 21.1%나 되어 중학생들의 반응과 대조적이다. 나머지는 일일이 참견하지 말기를 바라거나 모른척 해주었으면 하는 학생이 각각 10.9%이고, 불량하게 보지 말기를 바라는 학생이 7.9%이다.

여자중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조재명, 1981: 83)를 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122명의 학부모들 중, 사귀지 못하게 한다는 부모는 34명(27.9%)이며, 74명(60.6%)의 부모들이 경우에 따라 허락할 수도 있고 사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귀게 한다는 부모는 4명(3.3%)에 불과하였다.

만약 경우에 따라 허락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전전한”교제일 경우 허락한다는 입장이라면 많은 부모들이 대체로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전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 놓는 대화와 신뢰가 없다면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이성교제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중·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시 부모에게 알리는 정도에 관한 연구결과(이계화, 1988: 38-39)를 보면 부산지역의 중·고등학생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 197명이고 여학생이 112명인데, 그 중에서 남학생의 56.9%, 여학생의 69.6%만이 부모님께 알리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59.1%)보다는 중학생(52.3%)이 부모님께 보고하는 학생이 많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학생이 전체의 38.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들이 부모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할 것으로 짐작하고 부모에게 조언을 요청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실을 솔직히 알리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도방안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청소년기에 이성을 사귀고 싶어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성교제의 수준과 방법이 성인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건전한 이성교제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 자체를 금하기 보다는 이성을 사귀되 어떻게 사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녀와 이야기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왕성한 성적 충동을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할 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등 대화를 유도하면 자녀가 이성관계를 숨기기 보다는 오히려 의논하게 되므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다. 억누른다고 해서 이성친구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만큼 늘 대화를 통해 이성친구에 대한 자녀의 마음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른들의 편견 성인들은 청소년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육구는 왕성한데 그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크게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축각을 곤두세우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인 것만은 아니다. 개입이 매우 크고, 환경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특성들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음성적으로 되지 않으면 잘못될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호기심과 관심은 많으나 부모들의 억제나 지난친 간섭 때문에 속으로 마음만 태우거나 부모들 몰래 음성적으로 사귀게 될 때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건전한 부모자신이 살던 세대와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분명히 다르다. 성에

이성교제 필요 대해 엄격했던 옛날과는 달라서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성교제가 좀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리라 예측된다. 건전한 이성교제를 권장하는 것이 자라나는 신세대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허용되어졌을 때보다도 철저히 금지될 때 그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며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통제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가 이성교제에 대해 지나친 열망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다른 활동에까지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건전한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은 성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공부나 다른 활동들을 적절히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교제시 지켜야 할 원칙 참고로 자녀들로 하여금 이성교제시 지키게 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성친구가 생겼을 때에는 상대를 부모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도록 한다.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만한 음식대접이나 선물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도록 한다. 이같은 일은 그들이 갖는 교제의 순수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의복은 언제나 단정하게 입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기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의 의상을 통해 성적 충동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만나는 장소는 항상 공개된 장소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 곁에 사람이 없는 어두운 장소에서는 고의적이 아니라고 해도 성적 충동을 받을 위험성이 많다. 이상의 원칙은 자녀들에게 사춘기의 이성교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한계선은 넘지 않도록 하는 일과 교제를 하되 공개적으로 하게 한다는 두 가지 사실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2. 생활습관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1. 청소년기 자녀의 용돈지도

1) 실태조사결과

본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용돈을 받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받기 원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의 용돈지급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청소년들은 한달이나 한주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청소년보다 필요할 때 마다 필요한 만큼 받아쓰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47.8%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8.7%는 ‘한달 혹은 한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다’, 8.0%는 ‘한달 혹은 한주에 한번씩 필요한 만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11).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 주어진 용돈을 보다 잘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표 11〉 당신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받고 있습니까?(청소년)

용 돈 지 급 형 태	%
한달 혹은 한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다	38.7
한달 혹은 한주에 한번씩 필요한 만큼 받는다	8.0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받는다	47.8
기 타	5.5

선호하는 용돈지급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40.1%가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30.3%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27.1%의 청소년들은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1) 자세한 %는 본 보고서의 〈부록 3〉 p. 206 참조.

것이 좋다’는 응답을 하였다(표 12). 여기에서 보면 여학생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46.2%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3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남학생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3.9%에 이룬 반면 여학생은 26.4%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도 이와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하여 정기적인 용돈지급을 선호하고 있었다²⁾.

〈표 12〉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청소년)

용 돈 지 급 형 태	%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	27.1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	40.0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	30.3
기 타	2.5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방식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3). 첫째, 정해진 액수를 받으면 나름대로의 계획적인 관리 및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해진 액수를 한달 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남은 용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매번 필요할 때 마다 용돈을 타는 것은 부모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정해진 액수를 한달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용돈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풍족하지만 나중에는 모자라서 궁색해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셋째, 필요할 때 마다 받으니까 오히려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좋다는 것이다. 넷째, 필요할 때마다 받으면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표 14).

2) 〈부록 3〉 p. 206 참조.

〈표 13〉

한달 단위의 용돈지급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	%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54.2
자유롭게 쓸 수 있다	9.6
저축이 가능하다	4.1
절약정신을 키울 수 있다	13.0
관리가 어렵다	1.0
부모님께 죄송하다	1.9
부족하기 쉽다	0.3
한달보다는 일주일이 적당하다	0.2
기 타	9.1

〈표 14〉

필요할 때마다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이유	%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10.8
자유롭게 쓸 수 있다	11.2
저축이 가능하다	0.9
절약정신을 키울 수 있다	4.6
관리가 어렵다	27.3
부모님께 죄송하다	0.9
부족하기 쉽다	16.1
한달보다는 일주일이 적당하다	0.9
기 타	17.4

한편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한달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와 그 선호 이유가 같은데, 다만 이들이 이 방식(일주일 단위)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달은 너무 길어서 주어진 액수의 용돈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적당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한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좋겠다는 것이다(표 15).

이처럼 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필요할 때마다 받는 방법보다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고 지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받는 방법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용돈관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경제생활을 대비하고 훈련시

킨다는 의미에서 적당한 기간을 단위로 용돈을 지급하여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5〉 일주일 단위의 용돈지급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이유	%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23.9
자유롭게 쓸 수 있다	7.4
저축이 가능하다	3.8
절약정신을 키울수 있다	7.6
관리가 어렵다	3.8
부모님께 죄송하다	1.5
부족하기 쉽다	2.5
한달보다는 일주일이 적당하다	30.5
기 타	12.4

＊ 선행연구결과의 개관

부모들이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 47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상세히 조사한 연구결과(채정애, 1983 : 56-57)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받는 청소년이 약 60%이고, 주급이나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청소년이 약 40%이다. 지나친 감독을 하면서 걱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일수록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며,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합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려는 부모들은 비교적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스스로 용돈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도 54.5%인데, 학년이 낮을수록,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경험이 많다.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62.7%의 청소년들은 부모를 이해시켜 정당하게 용돈을 타지만 나머지 청소년들은 거짓말로 다른 물건을 산다고 말하거나 다른 물건을 살 때 미리 미리 용돈을 많이 타두었다가 산다. 만약 부모가 용돈 지급을 거절했을 때에는 포기하는 청소년이 35%, 친구에게 꾸서 쓰는 청소년이 28%, 가족에게 꾸서 쓰는 청소년이 24%이며, 자신의 저금통에서 찾아 쓰는 청소년이 13%이다.

서울시 중학생 652명을 대상으로 “용돈을 규칙적으로 지급 받는가?”, “용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는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용돈을 주는 대가로 집안 일을 돕게 하는가?”, “용돈 사용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한 조사결과(이재은, 1980)가 있다.

용돈을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학생은 31%이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받는 학생이

64%이다. 또 용돈의 액수를 부모가 정하는 경우가 29%이며, 부모와 자녀가 상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33%, 그리고 자녀가 정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받는 경우가 31%이다. 용돈을 주는 대가로 자녀에게 집안 일을 돕게끔 하는 부모는 48%이며, 용돈 지출에 관여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70%가 자녀에게 용돈을 준 이상 그 지출에 대해서는 자녀 자신의 책임하에 두며, 30%가 용돈 지출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가 저축은 얼마나 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부모들이 용돈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지만 일단 지급된 용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 지출방법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결과들을 볼 때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받는 학생은 30-4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후에 실시된 본 조사결과에서도 38.7%만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용돈지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요청됨을 알 수 있었다.

2) 지도방안

용돈액수는 1990년에 YWCA에서 서울 및 지방 대도시의 중학생 282명과 고등
 얼마가 학생 6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한달 용돈 액수는
 적당할까? 평균 2만원을 약간 웃도는 선으로(평균 2만 6백원) 3만원-5만원인
 경우는 21.6%, 5만원 이상인 청소년들도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한달 용돈은 평균 1만 8천 5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용돈액수는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얼마 얼마가 적절한 액수이다라고 정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가정에 따라서 용돈 안에 교통비와 식비, 문화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을 제외한 순수 여유자금만을 용돈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용돈의 액수를 정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용돈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액수를 제시하기 보다는 자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액수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같은 또래 아이들의 대체적인 용돈수준을 참작해서 결정하되,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용돈을
너무
많이 줄 때

용돈을 너무 많이 주면 낭비를 하게 되고 너무 적게 주면 불만을 갖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용돈은 약간 적게 주는 것 보다는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생활이 넉넉할지라도 자녀에게 과분한 용돈을 주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필요 이상의 돈은 거의 대부분 불필요한 곳이나 정의롭지 못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애정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겠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본인의 넉넉한 용돈으로 비행 성향을 지닌 친구를 사귀고 접촉하기가 쉬워 경제적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하층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김준호, 1990 : 130-131)를 볼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용돈을
적게
주었을 때

용돈을 줄 때 자녀가 자기의 용돈이 적다고 불평을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만하면 됐지 뭐가 적다고 그래!”라며 꾸짖는데 이러한 반응은 자녀와의 사이에 담만을 높혀줄 뿐이다. 대신 자녀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도 형편이 되면 너의 용돈을 좀 더 주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은 우리집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이 돈으로 한번 견뎌봐 주겠니?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올려줄게”라고 따뜻하게 말하면 자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홍영희, 1992 : 417).

용돈은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집안의 경제적 형편을 자녀에게 알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 나라 부모들 가운데에는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아이들에게 알려 그들을 정신적으로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부모는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들만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용돈도 남에게 뒤지지 않게 주어 그들만은 고생을 모르고 자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며 자식에 대한 참된 사랑도 아니다. 자녀들이 자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눈

치치게 되는 국민학교 3학년쯤 되면 그들에게 자기 가정의 경제형편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것은 알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사정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관계되는 말을 할 때 한마디씩 끼워서 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집안형편이 어려울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정의 경제사정을 알리는 목적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식구들에게 가정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알려 그들로 하여금 다행이든 불행이든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안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부모들은 그럴 경우 자녀의 정신적 위축을 염려할지 모르지만, 자기 집이 다소 가난해도 가정만 화목하고 모든 식구들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가정의 경제사정때문에 위축되거나 불만을 갖게 될 자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문제는 가정의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장하려는 부모들의 그릇된 의식과 삶의 태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의 형편을 잘 이해시켜 꼭 필요한 것은 요구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을 줄도 알도록 해야 한다(홍영희, 1992 : 423-424).

용돈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마지막으로 용돈의 액수를 정할 때 유의할 점은 용돈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 따라 용돈 안에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참고서비스를 따로 주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차이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용돈의 의미가 다를 경우이다. 용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돈을 주기 전에 각 가정 나름대로 부모가 사 줄것과 자녀 자신의 용돈으로 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계를 지워둘 필요가 있다.

용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본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자녀에게 용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모(51%)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모(49%)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는 학생이 27.1%,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는 학생이 40%로 정기적인 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는 학생도 30.3%나 되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그렇지 않다. 지급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녀들도 나름대로 계획성있는 경제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정기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도 확인되는데 자녀들 스스로도 그 이유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절약·저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용돈을 직접 벌어서 쓰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어진 용돈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돈을 관리—예산 작성, 합리적 소비, 지출후의 평가 등—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비정기적인
지급을
선호하는
남학생들

본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이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호하는 용돈 지급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한달에 한번 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들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로 처음에는 풍족하게 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모자라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용돈관리에 자신없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은 특히 정기적인 지급방식을 싫어하는 아들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기간은
자녀의
관리능력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 줄 것이냐 혹은 한달에 한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자녀의 용돈관리 능력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다. 관리능력이 떨어질수록 자주 조금씩 주는 것이 좋겠다. 나이가 어린 자녀나 처음 시도해 보는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가 적당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경험이 축적되면 2주, 1달로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이 좋다. 왜냐하면 자녀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도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이다. 자녀의 의사대로 해 보았다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다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자녀에게
보너스를

그리고 자녀의 생일이라든가 소풍, 운동회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달에는 미리 생각을 해두었다가 보너스를 얹어주자. 아마 자녀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정말로 부모님께서 나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신경써 주실 줄은 몰랐는데……’하며 자신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용돈지출은
어떻게?

서울시 중학생 6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일단 지급한 용돈에 관한 한 자녀가 책임지고 쓰게 한다는 부모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기를 원하는 이유에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전출납부
를 쓰게하라

용돈을 지출하는 태도는 이 다음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비 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는 소비 습관을 이 시기부터 길러주어야 한다. 자녀의 소비 습관 지도를 위해서는 용돈의 소비 내역에 대해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때 자녀로 하여금 금전출납부 형태의 기록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돈 지급일에 자녀가 기록해 둔 소비 내

역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가 의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 충동구매 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갖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용돈지출에 관여는 하되 그것이 자녀에게 간섭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녀로 하여금 ‘용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의견은 제시하되 허튼 데 썼다고 비난하거나 사소한 일일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용돈의 지출을 거짓으로 보고하게 되기 쉽고, 나름대로 용돈을 아껴서 규모있게 사용하고자 했던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용돈이 모지라 더 달라고 할때 용돈을 주기 시작한 초기에는 며칠이 안되어 다 써버리고는 더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안되면 가불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 이럴 때 애처러워서나 사정에 못이겨 돈을 더 주게 되면 용돈을 주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 용돈지도의 성공여부는 결국 부모들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돈을 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 편한 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주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자제력과 돈을 계획성있게 사용하는 생활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돈지급의 목적을 부모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번 용돈을 주면 다음 용돈지급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자녀와 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서로 노력해야겠다.

포상으로 용돈을 줄때 자녀가 성적이 올랐을 때, 아버지의 구두를 닦았을 때, 집안 청소를 했을 때, 심부름을 했을 때 등 그에 대한 포상으로 돈을 주는 부모들이 많다. 더 나아가 ‘설것이 한번에 얼마, 등수 하나 올라가면 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자녀와 계약을 맺어두는 부모들까지도 있다. 돈을 포상으로 내 줄었을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크다는 것을 부모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1등 하면 컴퓨터 살 돈을 주마”라고 말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곧 “이번에 1등 하면 뭘 사주실 건데요?”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녀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을 자청하여 훌륭히 해 내었을 때, 자녀가 맡지 않은 일, 다른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도와 주었거나 대신 해 주었을 때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격려하는 뜻으로 약간의 용돈을 더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으레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용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부는 물론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며 가사일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에 돈을 주게 되면 자녀들은 보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타산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남을 돕는다거나 남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조선일보 사회부, 1987 : 77-81).

2. 청소년기 자녀의 소비생활지도

1) 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은 물건을 살 때 미리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구입을 하는가? 부모님의 구매 지도여부가 청소년의 구매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본 조사에서는 먼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5개 항목의 물품에 대하여 구매 형태를 질문하였다. 참고서의 경우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는 학생이 91.5%로 가장 많았고, 학용품이 그 다음으로 81.6%, 의류나 신발, 소설책이나 잡지가 각각 73.5%, 70.5%였다. 음식의 경우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21.7%였다. 즉 청소년들은 참고서나 학용품 등을 살 때에는 미리 계획하고 신중하게 구입하는 한편 소설이나 잡지, 의류 등의 품목은 비교적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 음식의 경우 그 특성상(먹고 싶을 때 먹게 되므로) 충동구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6).

이를 성별로 보면 음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미리 생각했다가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급별로 보면 ‘소설책이나 잡지’, ‘의류 및 신발’, ‘참고서’ 등의 항목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하여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³⁾ 이러한 차이를 앞에서 살펴 본 용돈지급 선호형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

등학생이 물건을 구입할 때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돈을 받을 때도 여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지급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6〉 당신은 아래와 같은 물건을 살 경우 그것을 사야겠다고 미리부터 계획하고 사는 편입니까, 혹은 물건을 보고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는 편입니까?(청소년)

(단위 : %)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	물건을 보고 갑자기 사기로 결정한다
학용품구매	81.6	18.4
소설책구매	70.5	29.5
의류구매	73.7	26.3
참고서구매	91.5	8.5
음식구매	21.7	78.3

한편 학부모들은 음식이나 의류의 경우 부모님들이 알아서 사다주는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용품이나 참고서는 자녀들이 알아서 사도록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의류의 경우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가서 구입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7).

〈표 17〉 당신은 자녀가 다음의 상품을 구입할 때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지도하십니까?(학부모)

(단위 : %)

	사다 준다	함께 가서 산다	알아서 사도록 한다
학용품구매	5.2	8.5	86.3
소설책구매	9.9	20.6	69.5
의류구매	25.4	57.2	17.3
참고서구매	7.6	13.4	79.0
음식구매	35.5	14.9	49.6

3) 〈부록 3〉 pp.206-207 참조.

위의 두 결과를 통해 특기할 만한 점은 부모님들이 사다주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의류의 경우 청소년들은 충동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녀들이 알아서 사도록 하는 참고서나 학용품의 경우 청소년들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구입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참고서의 경우 그 특성상 충동적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학용품과 같은 소비성 품목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부모님들이 주로 구입해 주는 의류는 충동구매의 비율이 높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학용품은 계획적 구매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구매의 책임을 주고 직접 구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충동구매를 줄이고 계획적 구매습관을 익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의 중·고등학생 427명을 대상으로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이태호, 1993)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동기 중에서는 새로운 추세를 접하는 기회, 오감의 만족, 기분전환, 역할행동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유행에 민감하고 시각, 청각 등의 자극에 비교적 쉽게 노출됨으로써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분이 침체되었을 때 기분전환의 한 방편으로써 충동적인 구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동기 중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경험의 장, 준거집단의 유인 등이 충동구매를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구매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내세우고 권위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쇼핑장소를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의 장소로 자주 이용하면 그만큼 충동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특성 중에서는 명예, 신분의 과시, 스트레스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을 남보다 뛰어나고 특이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기에 항상 남보다 먼저 신제품을 구매하고 고가의 상품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많이 하며 스트레스가 많아 쌓였을 때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만족감을 성취하려고 한다.

환경적 특성과 충동구매와의 관계는 준거집단, 상품품질, 준거집단 모방성, 유명상표, 가족·친지영향, 저렴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준거집단에 소속하고 어울리기 위해 동료집단이 소지한 제품을 같이 구매하려고 하며, 상품의 품질이 동종의 상품보다 우수할 때 구매욕구가 높으며, 준거집단의 유행에 편승하길 원하고, 유명상표일수록 자신을 내세우는 데 편리하며, 제품 구매시 가족이나 친지들의 충동구매 영향을 받는 편이며, 정상적인 상품일 때 가격이 저렴하면 충

동적인 구매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용돈의 양과 충동구매 정도는 용돈의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구매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시내 국민학생 4,5,6학년 64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이계숙, 1991 : 52) 중에서 “새로운 상품을 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 많은 학생(44%)이 품질이나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유행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 30%, 부모님의 권유에 영향을 받는 학생은 11%이며, TV광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학생도 10%이다. 그밖의 학생들은 친구나 상인의 권유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유행에 더 민감하다는 것과 생활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부모의 권유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 지도방안

자녀의 소비생활 지도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은 스스로 사던 자녀들도 지급되는 용돈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야 할 때에는 부모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자신의 용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의논해서 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품목은 ‘의류’일 것이다. 이 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자녀에게 필요한 상품구입 방식을 물어본 결과, 자녀가 알아서 사게 하기 보다는 부모가 함께 가서 사거나 사다 주는 경우가 많은 품목은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겨울잠바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알아서 사라고 돈을 줄 것인가? 함께 잠바를 사러 갈 것인가? 아니면 사다 줄 것인가?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무 생각없이 행동을 취한다. 자녀의 소비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마는 것이다. 기회를 잡으려면 우선 준비가 필요하다. 각각의 경우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

자녀 혼자 사게 하는 경우 먼저 자녀 혼자 사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자녀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사 온 물건에 대해서는 부모가 곧바로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물론 다시 바꾸러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는 안목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많은 품목에 대해 혼자 사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단지 같이 사러 가기가 귀찮아서 혼자 사라고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자녀와
함께 가서
사는 경우

다음은 함께 가서 사는 경우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혼자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녀가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인 경우는 혼자 겨울잠바를 사게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사러 갔을 때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말 그대로 ‘함께’ 사러 갔다는 것이다. 자녀를 옆에 세워 두기만 하면 안된다. 함께 고르면서 바로 이때 물건 사는 요령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잠바를 살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과 잠옷을 살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다르다. 그때 그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자. 시장에 갈 때 함께 가면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과가 맛있는 것인지, 싱싱한 생선의 특징은 무엇인지, 유통날짜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시장을 함께 보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자녀로 하여금 먼저 사고 싶은 물건을 혼자 고르게 한 후 같이 가서 사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 때에도 잘 골랐으면 잘 고른대로 잘못 골랐으면 잘못 고른대로 그 이유를 말해 준 뒤 사는 것이 좋겠다.

부모가
사다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다 주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물건을 사는 요령을 말해 줄 기회도, 자녀의 안목을 평가해 줄 기회도 없다. 또 나이가 어린 자녀일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사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개성을 창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모의 취향대로 선택하여 사다 주는 것에는 반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 물론 가끔 부모가 대신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소비생활에 자신이 직접 참가하게 되는 기초단계이다.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겨 줄 때가 온 것이다.

자녀의
충동구매를
방지하는
전략

충동구매는 절약하는 생활과 검소한 생활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동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 발달특성상 유행을 통한 친구들에의 동조행위, 과시행위, 충동적 결정 등을 하게 되므로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필요보다는 흥미, 호기심에 의한 충동구매가 빈번할 수 있다. 전략 중 하나는 충동구매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자녀 자신이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추가로 용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빈번하게 충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자녀를 지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녀가 충동구매의 행동을 보일 때 부모들은 우선 자기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평소 물건을 구입할 때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 실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자녀의
심리상태를
살피야

부모 자신이 충동구매의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자녀가 충동구매의 행동을 빈번히 일으킨다고 할 때는 자녀의 심리상태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동구매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불안정, 자신감의 결여나 욕구불만 등의 심리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충동구매의 행위는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끔 해주는 노력없이 질책만을 한다고 하여 그 습관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충동구매의 습관을 계획적인 구매의 행동유형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고 원인에 따라 계획적인 구매의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한 전략은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경제적 관념의
부족으로
인한 충동
구매

충동구매의 원인이 돈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용돈의 액수를 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부모는 자녀에게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등 일정기간동안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적게 한 후 그 이후부터 구입하는 모든 물건들을 기록하게 한다. 자녀가 구입한 물건의 목록과 계획하였던 물품의 목록을 비교하여 그 물품 이외에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충동구매를 하는 습관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청소년기 자녀의 여가지도

1) 실태조사결과

여가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은 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2%). 그리고 25.9%는 ②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 외의 자유로운 시간을, 18.7%는 ③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나 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여가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도 청소년의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띠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비하여 학부모들은 ①에 응답한 비율이 낮다(39.1%)(표 18).

한편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독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음악감상’(11.4%), ‘운동’(11.0%)을 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운동’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독서’, ‘친구만나기’를 원하였다. 여학생들은 ‘독서’를 가장 원하였고, 다음으로 ‘음악감상’, ‘수면’을 원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고 싶어하는 일로는 ‘영화관람’, ‘TV시청’, ‘여행’ 등이 있다.

〈표 18〉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정에서의 여가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여가시간에 대한 정의	청 소 년	학 부 모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46.2	39.1
학교, 학원 혹은 집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외의 자유로운 시간	25.9	28.4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나 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시간	18.7	22.2
휴식시간	9.2	10.3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여가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홍세정, 1992 : 26-27). 평일에 여가시간이 전혀 없다는 학생은 7.2%이며 두 시간 이내라는 학생은 64.3%로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여가시간이 전혀 없다는 학생이 1%로 줄어들고 2시간 이내라는 학생도 24%였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2시간 이상의 여가를 가지고 있다. 휴일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42.6%)이 4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여가시간

(단위 : 명(%))

	전혀 없음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계
평 일	41(7.2)	368(64.3)	135(23.6)	28(4.9)	572(100.0)
토요일	6(1.0)	138(24.0)	278(48.3)	153(26.6)	575(100.0)
휴 일	9(1.6)	86(15.0)	235(40.9)	245(42.6)	575(100.0)

중·고등학생들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조사하고 그들의 부모 493명에게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질문하여 응답결과(홍세정, 1992 : 45-46)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들이 권하고자 하는 여가활동과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이 달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처럼 양자의 의견이 다른 원인은 부모들이 여가시간에 학과목 보충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평일에 부모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으로는 학과목 보충이 32.4%로 단연 으뜸이고 다음으로 가족과의 대화(25.7%), 독서(17.8%)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독서(10.9%), 악기연습(9.0%), 스포츠 활동(8.1%) 등을 가장 하고 싶어했다.

휴일에 부모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은 종교활동이 21.3%로 가장 많고 학과목 보충이 10.2%, 스포츠활동이 10.0%이나, 청소년들은 스포츠활동, 음악·영화·연극감상, 이성교제 등을 하고 싶어했다. 방학 중에도 역시 가장 많은 부모들(19.7%)이 학과목 보충을 들고 나왔으나 자녀들의 경우 친구와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37.6%)이 가장 많았다.

광주시와 그 주변지역의 국민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830쌍을 대상으로 국민학생들의 여가활동 종류, 희망하는 여가활동, 어머니의 여가활동지도 정도와 지도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박향숙, 1989 : 30-49)는 다음과 같다.

평일의 여가시간에 국민학생은 사회·오락적인 활동(62%)이나 지적인 활동(30%)을 하고 있고, 예술적 활동(21%)이나 신체적 활동(10%)을 하는 학생은 적었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신체적 활동(35%)이 가장 많았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는 학생은 9%에 불과했다. 부모들의 경우에는 4가지 활동 모두에 23-28%의 지지를 보여 특별히 많이 원하는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적인 활동을 원하는 학생이 9%인데 비해 그것을

권하는 부모는 24%나 되어 학업으로 인한 갈등이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국민학생들에게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들이 국민학생 자녀의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여가활동을 자주 지도하는 부모가 33%이고 가끔 지도하는 부모가 56%인데 지도내용을 보면 단연 지적활동에 대한 지도가 가장 많아서 다른 활동에 대한 지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도방안

여가의 개념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정의하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 명은 어떤 일을 하든지(공부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방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는 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가시간의 정의에 있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정답이나 보다는 자신과 자녀의 여가개념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자녀간에 여가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즘 국민학생들 중에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여가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밤늦게 숙제를 하는 자녀를 보고 “아까는 TV보면서 즐기만 하더니 이제 숙제하니?”라고 말한다면 눈을 동그랗게 뜰지도 모른다.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과 중의 하나인 것이다.

여가활동 지도 자녀의 여가시간은 기본적으로 자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휴식하는 방법까지 지시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것은 휴식과 놀이도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나 여가시간에 TV만 본다면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자녀에게는 유익한 활동을 권유해줄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의견을 말함에 있어서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여가를 보내는 실제적인 계획은 자녀들이 직접 짤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의견은 참고적인 정보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여가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생활 지도에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조하여야 할 점은 여가활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지 그것이 결코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재미있는 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여가시간에 꼭 공부만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부모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가
권하는
여가활동** 전문가들이 첫번째로 권장하는 여가활동은 ‘운동’이다. 청소년기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인데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몸을 움직일 시간조차 없어 심신이 허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1992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과 대학교 여학생의 평균 운동시간이 0.3시간으로 가장 적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 46).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가활동**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가활동을 아는 것도 여가생활 지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시간의 여유가 주어질 경우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해보고 싶어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 148; 홍세정, 1992 : 45-46). 홍세정(1992)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평일에는 독서, 음악·스포츠 활동을 가장 하고 싶어 했으며, 휴일에는 스포츠 활동, 음악·영화·연극감상,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 했다.

4. 청소년기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도

1) 실태조사결과

학부모들에게 아래 (표 19)에 제시된 7가지 가사활동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0% 이상의 학부모들이 ‘간단한 수선’, ‘식사전 상차리기’, ‘마른 빨래개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면 ‘식사전 상차리기’나 ‘마른 빨래개기’의 경우도 70% 이상의 부모들이 시키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당신은 자녀에게 다음의 일을
하도록 시킵니까?(학부모)

(단위 : %)

〈표 20〉 당신은 다음의 일을 평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청소년)

(단위 : %)

일의 종류	예	아니오	일의 종류	예	아니오
청소 및 정리	90.2	9.8	청소 및 정리	97.8	2.2
쓰레기버리기	75.2	24.8	쓰레기리기	84.9	15.1
상차리기	46.5	53.5	상차리기	57.4	42.6
혼자식사하기	95.0	5.0	혼자식사하기	96.3	3.7
이불개기	86.7	13.3	이불개기	93.0	7.0
빨래개기	53.6	46.4	빨래개기	57.9	42.1
수선	44.1	55.9	수선	64.7	35.3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위의 일들이 평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표 20),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평소에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표 21)를 질문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기방 청소 및 정리’,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 ‘이불개기’ 등은 평소에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식사전 상차리기’, ‘마른 빨래개기’,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의 경우 항상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59.4%), ‘자기방 청소 및 정리’(65%)나 ‘쓰레기 버리기’(54.7%) 등은

가끔 한다는 청소년이 많았다. ‘간단한 수선’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45.7%나 되었는데, ‘자기방 청소 및 정리’의 경우에도 전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2.8%나 되고 있다. 즉 ‘자신의 방 청소 및 정리’나 ‘이불개기’ 등은 평소에 자신이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21〉 당신은 다음의 일을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청소년)
(단위: %)

일의 종류	항상한다	가끔한다	전혀않는다
청소 및 정리	22.2	65.0	12.8
쓰레기버리기	21.7	54.7	23.6
상차리기	15.4	48.5	36.1
혼자식사하기	59.4	33.7	6.9
이불개기	36.9	39.3	23.7
빨래개기	9.0	51.1	39.9
수선	14.3	40.0	45.7

청소년들의 가사활동빈도를 중·고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2)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그 실행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하여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적고 부모님들이 학업을 이유로 하여 가사활동을 시키는 비율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사시간 전 상차리기’나 ‘마른 빨래개기’의 항목을 여학생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일을 시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여학생 자신이 그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보는 비율 및 실행빈도 역시 남녀학생을 모두 고려한 때 보다 높게 나타난다.

		항상한다	가끔한다	전혀안한다	
1. 청소 및 정리	중 학 생	27.0	62.3	10.7	$\chi^2 = 23.360^{***}$
	고등학생	17.5	67.7	14.7	
2. 쓰레기버리기	중 학 생	24.6	54.1	21.2	$\chi^2 = 10.560^*$
	고등학생	18.9	55.1	26.0	
3. 상처리기	중 학 생	18.3	48.7	33.0	$\chi^2 = 14.698^{**}$
	고등학생	12.6	48.4	39.0	
4. 혼자식사하기	중 학 생	57.8	35.3	6.9	$\chi^2 = 5.773$
	고등학생	61.2	32.0	6.8	
5. 이불개기	중 학 생	39.3	40.0	20.8	$\chi^2 = 11.443^*$
	고등학생	34.4	38.8	26.8	
6. 빨래개기	중 학 생	10.3	55.2	34.5	$\chi^2 = 17.903^{**}$
	고등학생	7.8	47.0	45.3	
7. 수선	중 학 생	12.1	38.3	49.6	$\chi^2 = 13.319^{**}$
	고등학생	16.5	41.8	41.8	

* P<0.05, ** P<0.01, *** P<0.001에서 유의미

〈그림 2〉 당신은 다음의 일을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단위 : %)

* 선행연구결과 개관

부모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대전시 인문계 고교 5개, 남녀학생 1,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김관식, 1988).

부모의 역할기대

(단위 : 명(%))

	공부만 열심히 하면된다	공부 및 가사능력	공부 및 정리정돈	동생들의 공부지도	공부 및 취미활동	기 타	계
아들에 대해	103(32.0)	85(26.5)	59(18.2)	10(3.1)	60(18.5)	7(2.2)	324(100)
딸에 대해	94(28.6)	95(28.9)	67(20.4)	4(1.2)	64(19.5)	5(1.5)	329(100)

자녀들의 역할수행

(단위 : 명(%))

	공부만 열심히 한다	공부 및 가사능력	공부 및 정리정돈	동생들의 공부지도	공부 및 취미활동	기 타	계
아들	147(41.6)	79(22.4)	55(15.6)	4(1.1)	61(17.3)	7(2.0)	353(100)
딸	136(38.3)	116(32.7)	52(14.6)	5(1.4)	33(9.3)	13(3.7)	355(100)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사활동은 다음과 같다(정한선, 1989).

의생활 영역

	남	여
이불개기, 깔기	164(62.1)	180(70.6)
자기옷장 정리	68(25.8)	127(47.2)
세탁할 옷을 구분하여 세탁장소에 둠	72(27.3)	92(34.2)
신발씻기	91(34.5)	168(62.5)
손수건, 양말빨기	50(18.9)	133(49.4)
가족의 옷 빨기	13(4.9)	38(14.1)
마른 빨래 개기	69(26.1)	160(59.5)
자기옷 빨기	24(9.1)	78(29.0)
어머니가 빨래할 때 도와줌	14(5.3)	63(23.4)
옷갈아 입은 후 옷걸이에 정리함	104(39.4)	153(55.8)

식생활 영역

	남	여
식사준비	77(29.2)	100(37.2)
설거지	36(13.6)	103(38.3)
식사도중 물이나 음식을 나눔	100(41.7)	138(51.3)
주스, 커피를 타서 가족에게 줌	34(12.9)	42(15.6)
간단한 음식(라면)을 만들어 먹음	188(71.2)	204(75.8)
늦게 들어오면 스스로 밥을 찾아 먹음	116(43.9)	124(46.1)
어머니가 안계시면 식사를 준비함	87(33.0)	156(58.0)
반찬 만드는 것 배우기	34(12.9)	91(33.8)
아무도 없을 때 손님대접	43(16.3)	92(34.2)

주생활 영역

	남	여
방청소	140(53.0)	183(68.0)
신발·신장 정리	102(38.6)	101(37.5)
화초에 물주고 손질	68(25.8)	61(22.7)
책상 정리	166(62.9)	198(73.6)
가족의 방 정리	76(28.8)	110(40.9)
쓰레기 버리기	111(42.0)	89(33.1)
세면대 주위 정돈	62(23.5)	86(32.0)
휴일 대청소	53(20.1)	97(36.1)
마당·현관 쓸기	58(22.0)	91(33.8)
집안의 물건정돈	94(35.6)	136(50.6)

가족돌보기와 시장보기 영역

	남	여
잔 심부름	194(73.5)	190(70.6)
동생 돌보기	47(17.8)	77(28.6)
잔칫날 도와줌	76(28.8)	101(37.5)
아버지 구두닦음	34(12.9)	33(12.3)
공공요금 납부	88(33.3)	73(27.1)
생활필수품 구입	48(18.2)	31(11.5)
집 보는 일(전화받기)	163(61.7)	157(58.4)
시장보기	58(22.0)	72(26.8)

(단위 : 명(%))

2) 지도방안

책보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과보호의 문제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교육상태가 외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 과보호는 청소년들의 책임감과 자율성의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과보호의 현상은 부모들의 교육관이 바뀌기 전에는 결코 어떤 한 두 가지의 제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 하다.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인식하여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가족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할 경우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합당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좀 더 나은 학업성취의 획득을 위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역할수행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자녀의 먼 장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눈 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절실히 깨달을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자녀의 장래를 위해 어려서부터 자신의 지위에 알맞는 역할 수행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불행스럽게도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 밖에 위치하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생활 경험들이 교육적이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것만이 공부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청소년 과보호와 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

부모들이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났을 때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제안은 역할을 한꺼번에 부여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부 수행토록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역할 수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에 알맞는 역할 수행을 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역할 수행을 요구한다면 책임감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반발심과 피로감마저도 느끼게 할 수 있다. 역할 수행을 지도하는 데에는 점증적으로 역할 수행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자녀가
말아서
해야 할 일

간단한 자기방 정리(주중) 및 주말의 자기방 청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며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온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즉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해 주었으면 하는 역할들을 제시하고 자녀 각각이 맡을 수 있는 역할, 맡고 싶은 역할 등을 제시하여 같이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역할분담을 하고 가정일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정리정돈
못하는
자녀

자신의 소지품을 어질러 놓기만 하고 치우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여 주어서 자율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지 못한 유형이 있을 것이고, 둘째 어려서는 정리정돈을 잘 하였었는데 청소년기 소위 사춘기에 따르는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 정리정돈을 하지 않게 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리정돈의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 첫번째 유형의 청소년들에게는 정리정돈의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리정돈의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은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리정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자녀의 정리정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녀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난보다는 정리정돈에 따른 적절한 칭찬과 격려의 말 등을 통한 긍정적 강화법이 정리정돈의 습관을 키우는 데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두번째 유형의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잘못하는 정리정돈 요법’이라는 자극요법을 권하고 싶다. ‘잘못하는 정리정돈 방법’이란 예를 들면 부모가 어질러진 책상을 정리해 주면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넣어 둔다거나 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대신 정리정돈을 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오히려 찾기 힘들어진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부모가 정리정돈을 해 주기 이전에 자신이 중요한 것을 자신이 찾기 쉬운 데에 정리정돈하게 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5. 청소년기 자녀의 시간관리 및 규칙적인 생활습관지도

1) 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규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시간계획을 세워 계획에 맞추어 보낸다는 청소년은 3.6%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45.2%) 시간계획을 세우기는 하나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부분(4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시간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2).

〈표 22〉 당신은 시간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청소년)

(단위 : %)

구 분	전체	남	여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계획에 맞추어 보낸다	3.6	2.9	4.2
계획을 세우기는 하나 잘 지키지 못하는 편이다	48.9	43.4	54.2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	45.2	50.8	39.8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1.4	1.8	1.0
기 타	1.0	1.1	0.8

$$\chi^2 = 22.351(P<0.001)$$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시간계획 및 활용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0%의 부모들이 자녀의 시간계획과 활용에 대해 충고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나머지 30-40%의 부모들은 자녀의 시간관리나 활용에 별로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의 시간관리 현황에 대한 위의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청소년들의 시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학부모들의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표 23〉 당신은 자녀가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지도하고 계십니까?(학부모)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자녀가 정기적으로 시간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64.8	35.2
자녀가 세운 시간계획이 적절한지 충고해 준다	64.0	36.0
시간계획을 지키는지 확인해 본다	52.8	47.2
자녀가 시간을 계획대로 잘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63.3	36.7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중학교 학생(국민학생 508명, 중학생 794명)을 대상으로 생활규칙의 수행상태를 조사한 결과(김희주, 1984 : 39-40) 중, “가정학습 시간표를 정하여 스스로 공부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꼭 시간표를 지킨다’고 응답한 학생은 국민학생이 32.4%, 중학생이 11.5% 였고, ‘가끔 지킨다’고 응답한 학생은 국민학생이 48.8%, 중학생이 55.3% 였으며, ‘잘 어긴다’고 응답한 학생은 국민학생이 12.4%, 중학생이 23.6% 였다. ‘관심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는데 국민학생의 6.4%, 중학생의 9.6%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2) 지도방안

아침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
스스로 하는 청소년들은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는 청소년들이다.
일어나지 물론 이러한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후천적인 훈련에 의해 대부분 획득된다. 대체적
자녀 으로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다른 나라의 부모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자
 율성과 자기통제력을 훈련시키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어린 나이에
 자율성과 자기통제력 훈련을 시키는 부모들이 매정한 부모로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자기통제력 훈련을 ‘아이가
 나이가 든 후’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을 획득시
 키기 위한 훈련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어야 하며 어린 나이
 에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녀 스스로
일어나게
하려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녀를 절대 깨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명종 시계를 사주고 그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기상하도록 해야 한다. 늦게 일어나므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늦게 일어난 사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 제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각오를 할 수 있으며 더 자고 싶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3과 같이 절대수면량이 부족하여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 알리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안마를 해 주면서 피곤을 풀어주고 자녀에게 “요즘 피곤하지?”하면서 부드럽고 다감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면 기상이 쉽다. 중요한 것은 부모자신부터 일찍 기상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다.

밤낮을
바꾸어 사는
자녀

밤낮을 바꾸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굳이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밤낮을 바꾸어 공부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몇 시에 자고 몇 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는 식의 규칙성을 띠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행동이 규칙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밤에 일어나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가족 전부가 일어난다든지 하여 전 가족들의 잠을 본인이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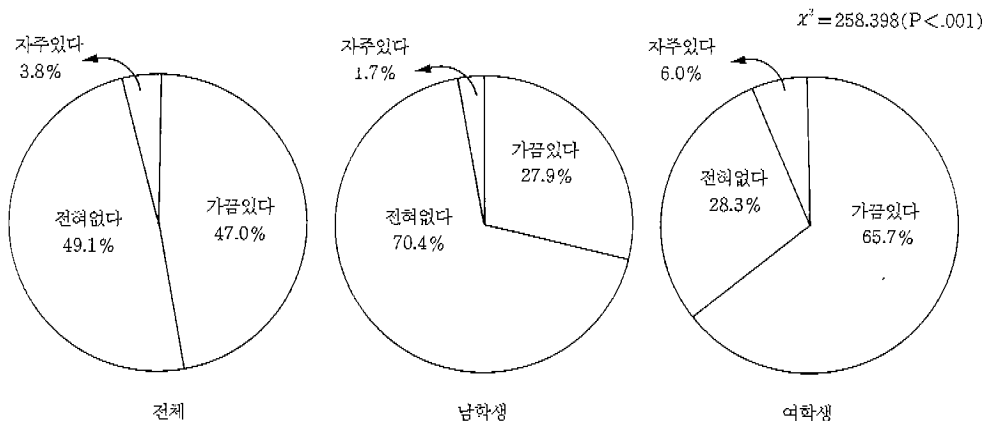
3. 성교육의 실태와 지도방안

1. 청소년기 자녀의 성교육 경험정도

1) 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성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얼마나 교육받고 있을까?

본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47.0%가 ‘가끔 있다’, 3.8%가 ‘자주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49.1%의 청소년들은 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 청소년들의 부모님으로부터의 성교육 경험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성에 관하여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인데 비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70%를 넘는 청소년이 부모님으로부터 성에 관하여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의 성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3〉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주) 〈부록 3〉 p.2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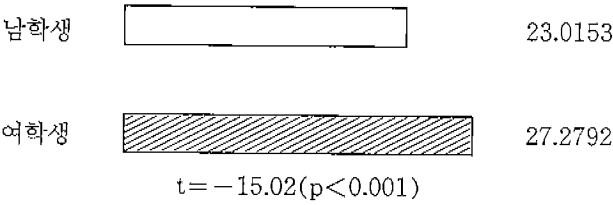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표 24), ‘생식기구조’·‘사정’·‘성충동’·‘자위행위’·‘성행위’·‘임신과 출산’·‘인공임신중절’·‘성병’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교육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70% 이상이나 되고 있다. 반면 ‘이성교제’나 ‘결혼’·‘사춘기의 신체변화’·‘사춘기의 정서변화’·‘월경’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비교적 자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다음의 성교육항목에 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청소년)
(단위 : %)

항 목	자 주	가 끄	없 다
생식기 구 조	1.7	23.1	75.2
신 체 변 화	5.5	51.1	43.3
정 서 변 화	10.1	45.9	43.9
월 경	12.4	36.2	51.4
사 정	0.8	8.2	91.0
성 충 동	2.2	11.8	86.0
자 위 행 위	1.4	8.7	89.9
성 위 생	13.4	28.7	57.9
이 성 교 제	16.5	48.8	34.6
결 혼	13.9	49.9	36.2
성 행 위	1.3	8.6	90.2
임 신 과 출 산	3.0	23.5	73.5
가 족 계 획	5.1	28.9	66.0
인공임신중절	1.0	6.0	93.0
남 녀 역 할	12.9	37.4	49.7
성 도 덕	8.1	27.4	64.5
성 병	1.6	10.8	87.6
성 피 해 방 지	12.5	24.8	62.7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성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더 적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의 성교육 빈도를 각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경험빈도에 따라 ‘경험무’, ‘가끔’, ‘자주’에 각각 1, 2, 3 점을 주고 18개의 항목을 모두 더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교육경험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남학생의 경우 23.015점, 여학생의 경우 27.279점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교육경험점수 차이

한편 청소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성교육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표 25) ‘이성교제’, ‘결혼’, ‘성행위’, ‘성피해방지’, ‘성병’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성행위’나 ‘성병’에 관하여 전혀 교육받아 보지 못한 청소년이 각각 90.2%, 8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피해방지’에 관해서도 62.7%의 청소년이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⁴⁾

〈표 25〉 당신이 성교육항목 중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청소년)

순위	전 체	순위	남 학 생	순위	여 학 생
1	이 성 교 제	1	이 성 교 제	1	이 성 교 제
2	결 혼	2	결 혼	2	결 혼
3	성 행 위	3	성 행 위	2	성 피 해 방 지
4	성 피 해 방 지	4	성 피 해 방 지	4	성 병
5	성 병	5	성 병	5	자 위 행 위
6	정 서 변 화	5	정 서 변 화	6	성 행 위
7	자 위 행 위	7	남 녀 역 할	6	인 공 임 신 증 절
8	남 녀 역 할	8	성 충 등	8	정 서 변 화
9	성 위 생	8	성 위 생	9	임 신 과 출 산
10	성 도 덕	10	성 도 덕	9	남 녀 역 할

주) 부모로부터의 항목별 성교육 경험정도에 대해서는 〈부록 3〉 pp202~204 참조.

성교육이란?

성교육이란 성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태도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올바른 성적 정체감을 길러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교육이란 성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라고만 생각한다. 청소년기 자녀나 부모들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성교육의 주체로 학교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성에 대한 지식은 전문적인 성지식을 갖춘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성에 대한 가치를 배우는 곳으로는 가정이 제일 좋다. 부모의 성태도는 자녀의 성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통해 아이들 각자가 성역할을 배우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지향해야
할 성역할

성역할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점에서 부모들이 지향해야 할 성역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일까? 시대와 사회에 따라 성역할은 다르므로 남자의 역할은 이러이러한 것이라든가 여자의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라라고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다. 생활에 있어서 자기 성에 만족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성역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법적 성역할 교육은 아이들에게 적응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남녀 모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남자라고 해서 감정을 무디어지게만 교육시킬 경우 인화가 중요한 직장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며 여자라고 해서 온순한 성격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힘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 “남자가 되어서 그만한 일에 눈물을 흘리면 어떡하니?”라든가 “여자가 되어서 조심스럽지 못하게...”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평소의
생활에서
배워지는
성역할

성역할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 말투, 얼굴표정 하나에서 자녀가 느끼고 배운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성역할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부터 자신의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부부 간에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아버지들의 경우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겠다. 아들과 딸을 공평하게 대하고 “너는 아들이니까, 너는 딸이니까”를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아들은 가사노동을 하면 안된다는 식의 성역할에 대한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은 버려야 하겠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부모들의 성지식 정도

1)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정확한 성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본 설문에서 학부모들의 성지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성지식평균은 8점 만점에 4점(4.016)을 기록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문항번호 1, 3, 5, 6, 8은 오답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문항번호 2를 제외하면 다른 문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결국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절반이상이 성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못지 않게 학부모들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27〉

학부모의 성지식 정도

번호	문항내용	정답율(%)
1	초경이후 4개월간 월경이 없어도 정상이다	39.3
2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초경연령은 12-13세이다	79.6
3	성충동을 느끼는 정도는 남녀가 비슷하다	47.0
4	사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6.5
5	자위행위는 신체에 해롭다	34.3
6	유방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커도 정상이다	45.2
7	성기의 크기는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1
8	십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십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아기와 비교할 때 기형아들이 훨씬 많다	46.5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시내 2개 국민학교 4,5,6학년 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국민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할 성지식에 관련된 11개 문항을 물어본 결과(이옥철, 1990) 전체 학생의 정답율은 56.2%로 조사되어 현재 우리 나라 국민학생의 성지식 정도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학부모 310명을 대상으로 성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20개 문항에 대해 정답율 51.3%를 보였는데 질문내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성지식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부모들이 체계화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과학적인 성정보를 지식화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중학생과 그 학부모의 성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원시내 중학교 1,2,3학년 학생 592명과 그들의 학부모 408명을 대상으로 성지식에 대해 학생에게는 O,X형과 사지선다형으로 25문항, 학부모에게는 O,X형으로 20문항을 물어 보았다(최순희, 1990).

학생의 경우 25개 문항에 대한 전체 정답율은 43.1%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내용별로 보았을 때 정답율이 높은(50% 이상) 성지식의 내용은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월경, 가족계획, 성충동에 대한 것이었고, 정답율이 낮은 내용은 비정상적 성행위, 사춘기 정서, 자위행위였다. 특히 자위행위에 가장 낮은 정답율(19.3%)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자위행위 경험 평균 연령이 남자 15세, 여자 15.3세로 중학교 때 대부분 자위행위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부모의 경우 20개 문항에 대한 전체 정답율은 52.2%였으며 내용별로는 인공임신중절, 성병, 사정, 임신, 성충동에 50% 이상의 정답율을 보였고 피임에 27.7%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 492명과 학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성지식 정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이은정, 1990) 고등학생의 성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성지식 수준은 학생들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학부모의 경우도 그리 높지는 않았다.

학생의 성지식 수준은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성지식 내용만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율이 전체 20문항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식수준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성지식은 학생과 같은 문항 20개 중 정답의 평균점수가 11.15 ± 3.10 으로 나타나 학생의 8.01 ± 3.24 보다 약 3점이 높았다.

내용별로 보면, 남녀학생 모두 자신이 속한 성의 생식기 구조와 성충동에 대해서는 정답율이 높았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구조 비교, 생식생리, 가족계획, 산후관리,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여성에 관계되는 내용에는 주로 50% 이상의 정답율을 보인 반면, 남성에 관계되는 내용 및 일반적인 성지식은 정답율이 50%이거나 모르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남학생

의 경우는 남성에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도 50% 이상의 정답율을 보였다. 정답율이 낮은 내용에는 성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한 것이 있는 반면 잘못된 지식을 바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정·성병·성행위 및 순결 등의 내용에 50% 이상의 학생이 오답에 O표시를 했다.

학부모의 경우 높은 정답율을 보인 내용은 성충동, 성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는 없었으며, 13개 항목에 50% 이상의 정답율을 보여 7개 항목에 50% 이상의 정답율을 보인 학생들보다는 성지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도방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가 어렵다. 자녀의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과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책·기관	서적－이화연, 「우리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돌베개, 1991.
	사랑의 교실 편저, 「자녀의 성교육 내일은 늦다」, 범림, 1990.
	김남선,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사계절, 1990.
	전교조 여성국, 「성교육교과서」, 동지출판사, 1990.
	한국남, 「엄마, 난 왜 없어?」, 도서출판 서우.
	정동철, 「가르쳐주세요」, 사방사, 1982.
	헬무트켄들러, 「행복과 해방의 성교육」, 대원사, 1988.
	귀뒤랑,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안암문화사, 1989.
	주정일외, 「성, 아기때부터 사춘기까지」, 샘터, 1982.
	서울 여학생 교육원, 「성교육사례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6.
	윤금초, 「순결교실」, 어문각, 1983.
	배병위, 「임신, 출산, 육아」, 민서출판사, 1985.
	박준희외, 「성교육」, 교육출판사, 1978.
	나건영, 「새로운 여성생리학」, 동지사, 1980.

기관－Y.M.C.A 청소년 상담실, 이화여대 연구소, 대한가족협회, 교육
개발원, 전교조 여성국, 참교육상담소

부모들이 자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내용 중 부모들이 잘못 알기 쉬운 성지식, 잘못 알기 성교육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쉬운 성지식 미리 앞질러 성지식을 주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자녀가 성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알려 주어야 한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성행위교육’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건전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와 같은 속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남녀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성심리가 다르다는 것은 꼭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남녀의 성충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부모들의 정답율이 낮아(47%) 우려가 된다. 또한 친척, 남매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위행위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물론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행동도 아니다(물론 모든 일이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듯이 지나친 자위행위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자녀의 경우는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주어야겠지만 말이다). 자위행위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위행위에 대해 막연하게만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자위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정답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34.3%) 나타나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위행위는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3. 청소년기 자녀의 성태도

1) 실태조사결과

다음의 4개 문항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단위 : %)

번호	문 항 내 용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거의그렇 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1	부모에게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어렵다	36.2	46.2	13.3	4.3
2	월경이나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다	28.6	38.5	22.5	10.4
3	사춘기때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4	11.3	30.2	54.0
4	자위행위는 비도덕적이다	22.6	37.6	25.8	14.0

〈표 29〉 학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단위 : %)

번호	문 항 내 용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거의그렇 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1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한다	7.6	39.7	43.2	9.6
2	월경이나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다	7.2	40.3	42.0	10.5
3	사춘기때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6.0	17.4	62.0	14.7
4	자위행위는 비도덕적이다	21.5	33.9	37.1	7.4

위의 두 표를 보면 청소년은 학부모들에 비하여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는 학부모 보다 청소년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태도를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각각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주고 성별·학년별로 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3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에 의하면 여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10.1, 남학생의 점수는 9.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9.4, 고등학생은 9.9, 점을 기록하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 및 고등학생이 남학생 및 중학생에 비하여 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30> 청소년의 성태도비교

구 분	사례수	평균	t값
남 학 생	684	9.193	-8.05***
여 학 생	709	10.107	
중 학 생	688	9.426	-3.95***
고등학생	708	9.883	

다음으로는 학부모와 자녀가 쌍을 이루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태도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는데(표 31), 학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의 관계를 비서열적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감마값(G)을 통하여 보면 네 문항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부모가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성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1> 청소년과 부모의 성태도간 상관정도

학부모	청소년	1	2	3	4
1		.164	-	-	-
2		-	.191	-	-
3		-	-	.106	-
4		-	-	-	.245

번호는 문항번호임.
수치는 G(gamma)값임.
각각에 대한 χ^2 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39.19***, 46.21***, 19.17*, 64.11***
(* p<0.05, ***p<0.001에서 유의미)

*** 선행연구결과**

이옥철의 연구결과(1990)에 의하면, 국민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나 9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30%이상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성태도와 학부모의 성태도를 문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월경에 대해서는 함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두 집단간의 성태도가 결코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학생의 경우 여아 또는 남아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는데 남아 82.4%, 여아의 71.4%가 자신의 성을 그대로 택하고 있어 남아가 자신의 성을 좀 더 자랑스럽게 여김을 볼 수 있었다.

학부모의 일반적인 성태도를 해부생리에 대한 본인의 느낌,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본인의 느낌,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비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비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해의 5개 항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해부생리에 대한 느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아직 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견해를 밝게 묘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성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해부생리에 긍정적인 사람은 정상적 성행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밖에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현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지고 있다고 보아 그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학교 5,6학년 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태도를 15개 문항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김옥렬, 1992 : 38-39) 아기의 탄생, 결혼, 남자가 여자 일을 도와주는 것 등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옥철씨의 논문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 음경, 난소, 사정 등의 해부생리 부분과 남녀가 뽀뽀하는 장면 등에 대해서는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부생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관련시켜 볼 때 지식이 낮을 수록 해부생리에 대한 태도 또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에 관련된 질문을 해 본 결과(최순희, 1990) 전체적으로 생식기 청결, 가족계획, 결혼의 항목에는 80%이상의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매매음, 성병, 동성애, 혼전성행위, 인공임신중절, 음란필름·출판물에 전체학생의 80%이상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월경을 자랑스럽다와 자연스런 현상으로 68.1%가 응답하여 1988년 이계화씨의 연구에서 48.1%라고 보고된 결과(이계화, 1988)에 비교해 볼 때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54.9%의 학생이 부끄럽게 느낀다고 대답하여 1985년 이영주씨의 연구에서도 중학생 중 성장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고민하는 학생이 40.6%로, 고민하는 성문제 중 1위를 차지한 것(이영주, 1985)과 관련해서 볼 때 사춘기의 변화를 정상적인 성장과정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성충동에 대해서는 56.3%의 학생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성에 관한 무지에서 부정적 태도를 갖게되며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행위를 당연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19.9%로 나타났으며 78.6%의 학생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결혼은 해야 한다’에 88.7%, 혼전 성행위에 대해서는 ‘된다’에 16%의 학생이 각각 응답하여 그 이전의 연구결과들보다 결혼과 혼전 성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성교에 대해서도 44.1%의 학생이 긍정적 태도를 보여 1984년 정재호씨의 연구에서 성행위에 대해 ‘신성한 것이다’에 32.7%의 학생이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높아졌다.

학부모의 경우 전체적인 성태도에 대한 결과는 비슷하였으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월경, 사정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학생과 학부모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최순희, 1990).

서울 시내 고등학생 492명과 그들의 학부모 중 193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태도를 생식생리에 관한 내용(월경, 정액, 유방, 음경, 음모, 사춘기, 갱년기),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관한 내용(자위행위, 이성교제, 결혼, 성교, 임신, 출산, 가족계획, 피임), 성의 비규범적 행위에 관한 내용(인공임신중절, 동성애, 성폭행, 남녀차별, 이혼, 매춘) 등의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이은정, 1990).

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는 생식생리에 대한 느낌이 점수가 낮아 부정적인 태도에 가까웠고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느낌보다 도덕적, 사회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성의 비규범적 행위에 대한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도덕적, 사회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본인의 느낌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생식생리와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의 비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학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생식생리와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는 긍정적 태도를, 성의 비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40대의 학부모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부정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학생과 비교해 보면 생식생리와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지도방안

**부정적인
성태도를
지닌 자녀의
지도방법** 부정적인 성태도를 지닌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성태도에 있어서는 부모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성기를 만지면 엄포를 놓는 부모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 눈이나 코와 마찬가지로 몸의 한 부분으로 성기를 인식시킴으로써 어색하지 않게 자신의 몸의 일부로 보게 해야 한다.

월경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에게는 여성의 신비한 몸의 기능으로서의 월경작용을 이야기하고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하는데 그 중대한 일을 여성의 몸이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르치면 월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좋은 아이, 튼튼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성행위임을 아이들의 처지에 맞게 이야기해 주면 성행위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게 되리라고 본다. 부정적인 성태도를 지닌 사람은 성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므로 비디오, 책 등을 통해서라도 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의
성태도와
아이들의
성태도** 성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월경이나 몽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요즘의 청소년들과 부모간에는 성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즉, 알려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조차도 은폐하려는 기성세대의 성태도와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아이들의 성태도간의 차이를 부모들은 인식하고 지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태도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의 얼굴표정, 태도에서 아이들은 배울 수가 있다. 자녀가 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부모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 시기별로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

1) 실태조사결과

18가지 항목의 성교육내용을 자녀의 국민학교 이전 단계부터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5단계 과정 중 어느 시기에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하여 부모들에게 물어본 결과 (표 32) 중학교때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응답을 한 항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시절이 적절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월경’이나 ‘생식기구조’ 등의 내용은 국민학교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각각 55.3%, 38.9%로 높았고, ‘신체변화’(52.2%), ‘사춘기 정서변화’(68.5%), ‘성충동’(50.1%) 등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중학교때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결혼’(50.4%)이나 ‘성행위’(38.3%), ‘임신과 출산’(37.3%), ‘인공임신중절’(39.4%), ‘가족계획’(49.6%) 등의 항목에 관하여는 고교졸업 이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위행위’, ‘성행위’, ‘인공임신중절’ 등의 항목에 관하여는 응답자의 20% 가까이 되는 부모들이 아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러한 항목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32〉

부모가 희망하는 성교육시기

(단위 : %)

	국민학교 이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후	가르칠 필요없음
생식기구조	9.6	38.9	40.5	5.7	1.9	3.4
신체변화	1.0	37.9	52.2	5.9	1.2	1.9
정서변화	0.7	18.5	68.6	9.4	1.2	1.7
월경	1.3	55.3	37.2	3.1	0.7	2.4
사정	1.1	10.8	48.7	19.7	9.3	10.4
성충동	1.0	8.9	50.1	23.3	8.6	8.1
자위행위	1.0	5.7	41.9	23.4	8.7	19.2
성위생	3.3	16.3	44.5	16.4	12.2	7.1
이성교제	0.7	11.3	39.0	20.7	24.8	3.4
결혼	1.0	3.0	13.4	23.8	50.4	8.5
성행위	0.5	1.9	19.4	22.7	38.3	17.2
임신과 출산	0.7	4.0	25.4	24.3	37.3	8.4
가족계획	0.9	2.0	12.0	20.8	49.6	14.7
인공임신중절	0.5	1.1	14.7	22.5	39.4	21.8
남녀역할	1.3	12.2	29.0	24.1	26.0	7.3
성도덕	1.1	12.1	41.0	24.0	17.2	4.6
성병	1.0	3.6	32.5	29.8	24.0	9.1
성피해방지	3.4	17.8	42.4	19.3	11.7	5.4

* 선행연구결과의 개관

국민학교 학생의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김옥렬(1992)씨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제주도에 사는 국민학교 5,6학년 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10개 문항으로 5점 척도화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성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10개 문항은 성기의 청결, 우리 몸의 성장과 변화, 남녀의 차이와 역할, 사춘기의 변화, 여자는 왜 월경을 하며 가슴이 커지는가, 정자와 난자의 만남, 아기는 어떻게 생기고 어디로 나오는가, 이성교제, 성피해방지, TV·비디오에서의 애정표현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문항에 대한 전체점수는 평균 3.77로 비교적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내용별 요구도를 보면 ‘우리 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성기의 청결 > 아기는 어떻게 생기고 어디로 나오는가 > 성피해 방지 순이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31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요구내용과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이옥철, 1990 : 26-27) 국민학생 때 배우기를 바라는 성교육 내용은 생식기 구조와 신체변화, 정서·정신적 변화, 월경이었다. 대체로 요구 학년은 국민학교 5,6학년 이후로, 중학교때부터 성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많았으며 성교, 인공임신중절, 매춘, 이혼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교육 요구도가 낮았다.

대구직할시에 소재한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2,4,6학년 학생 600명과 중학교 2학년 학생 2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서석근, 1988)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내용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기를 원하는 성교육 내용 사이에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국민학생의 학부모인 경우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가 가장 많았고, 남중생의 학부모인 경우는 변성,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의 학부모인 경우는 초경 및 월경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반응율이 높은 항목은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 초경 및 월경, 변성, 사춘기의 특징, 우정과 연애했고 낮은 항목은 성교, 피임, 몽정, 자위행위, 성욕, 성병 등이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은 국민학생, 중학생 모두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 사춘기의 특징, 초경 및 월경, 우정과 연애가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가정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는 성교육의 내용인 성교, 피임, 몽정, 성욕 등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적었다.

수원시내 중학생 592명과 그들의 학부모 408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별 희망시기를 조사한 결과(최순희, 1990)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때 알게 되기를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은 성위생, 성충동, 성피해방지, 성에 관한 필름과 출판물 보는 법 등이었다. 결혼, 이혼, 성교, 임신, 출산, 가족계획, 피임, 인공임신중절, 매매음, 비정상적 성행위, 혼전·혼외 성행위에 대해서 중학교때 알아야 한다는 학생도 20%내외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고등학교때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학부모의 내용별 교육 희망시기를 보면 사춘기 정서, 이성교제, 성행위, 성충동과 자위행위, 성피해방지, 남녀평등과 가족의 역할 등의 내용은 중학교때 배우게 되기를 바랐고, 결혼·이혼, 가족계획·피임·인공임신중절, 혼전·혼외 성행위, 성교, 임신, 출산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때 배우게 되기를 바랐다.

서울시내 고등학생 492명과 그들의 학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요구시기를 내용별로 살펴보면(이은정, 1990) 생식기 구조와 신체변화, 정서변화에 관한 내용은 학생, 학부모 모두 국민학교 4-6학년때를 원하고 있었고, 사정, 성충동, 자위행위, 성위생, 이성교제의 내용은 학생, 학부모 모두 중학교 1학년때를 원하고 있었으며, 결혼, 성교, 성병, 비정상적 성행위, 성역할, 성차별 등의 내용은 학생·학부모 모두 고등학교때를 원하고 있었다.

성교육 요구시기가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출산, 가족계획, 인공임신중절, 이혼 등인데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고

등학교 이후의 시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성피해방지의 내용은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때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데 비하여 학부모들은 중학교 1학년과 국민학교 4-6학년 때를 가장 많이 학습시기로 원하고 있었다.

2) 지도방안

(1) 국민학생 자녀를 위한 조언

국민학생들은 성에 관한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국민학생 자녀가 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 한 예로 국민학생 자녀로부터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자녀로부터 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대답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을 받았을 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질문을 어른들의 틀에 끼워 넣어 복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아기를 보거나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궁금하게 느껴져서 물어보는 것이다. 자녀가 중학생 정도인 경우는 알면서도 엄마, 아빠도 성교를 하는 지가 궁금하게 느껴져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수준에 따라서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한가지 쥔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기서 자녀의 ‘수준’이란 자녀가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하는 연령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국민학생이라 하더라도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학생들간에 존재하는 ‘개인차’이다.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자녀

가 실제로 얼마 만큼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수준·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자녀의 성지식 수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녀에게 무엇이 그 대답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답의 초점을 자녀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에 맞출 수가 있고 자녀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도 알아낼 수가 있다.

사실을 알려 주어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리밑에서 주워왔다고 배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짓정보는 자녀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빈번한 요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보원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는 믿지 않게 된다. 그리고 사실을 숨기려는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이 빨라서 국민학생때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다.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생기는 국민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자신의 성장속도나 변화된 모습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의 고민을 덜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의 고민 먼저 어떤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YMCA에서 펴낸 자료집을 보면 아이들의 솔직한 소리를 모은 부분이 있는데 신체변화에 관련된 고민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서울YMCA 청소년 상담실, 1993 : 132-133).

‘요즘은 가슴도 나오고 생리라는 것도 해요. 난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생리를 시작하면 울고 그러는데 나는 엄마한테 갑자기 생리를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도 막상 생리를 하니까 긴장되고 울고 싶었어요. 왜 여자들만 생리를 하고 가슴이 나오고 그럴까요...' <인천 ㅅ국교 6학년>

‘난 왜 키가 안 클까? 남들처럼 포경수술을 안해서일까. 난 그것도 안났다. 딴 애들은 다 났다고 하던데. 난 딴 애들보다 큰 것이 없다. 난 정녕 기형아일까? 성격도 녀그럽지 못하다. 엄마의 출산과정에서 잘못된 걸까?’ <영서중 2학년>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자

아이들의 글에서도 보이듯 아이들은 대부분 표준화된 변화시기, 신체 치수와 맞지 않을 때 고민하는데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려 주면 된다.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부모 자신의 경험—엄마, 아빠도 이러이러해서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민할 것이 하나도 아니더라는 식의—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먼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목욕탕에 같이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몸의 변화를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서 받아들이게 하고 개인차가 있음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부모의 말을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가 쓴 책을 보여주거나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라고 할 수도 있겠다.

(2) 중학생 자녀를 위한 조언

중학생 시기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시기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방에서 포르노 잡지나 음란 비디오를 발견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태를
알고
있어야

위의 질문은 상담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남중고생의 60~70%가 음란물을 보는데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자녀의 방에서 이런 비디오나 잡지를 발견했을 때 우선 놀라고 당황하는 부모들이 많다. “내 아들이 이런 비디오를 보다니...”

하면서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부모 자신이 긴장, 흥분해서 자녀를 보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 부모들이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자녀의 행동을 죄악시키는 것이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당장 갖다 버린다거나 자녀에게 무릎 꿇고 반성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성적 호기심이 강한 이 시기에 포르노 잡지, 음란 비디오를 보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겠다.

침착성을
찾은 후에

제일 먼저 부모들은 침착할 필요가 있다. 충격을 받아 흥분한 채로 자녀를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모 자신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 자녀세대의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생활실태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자녀의 방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 아이의 수준·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받아들이 수 있는 부모가 되자.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은 뒤에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관찰을

선불리 아는 척은 하지 말자. 우선 얼마나 자주 보는지, 일상생활에 영향은 받는지, 문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친구관계에 변화는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생활이 예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이면 모른척 하면서 아이의 건강한 판단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되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것을 보는 걸 보니까 너도 이제 많이 컸구나.”라고 자녀의 성장을 인정해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선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보고 난 느낌은 어땠는지, 혼란을 느끼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듣고 난 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언을 하면 되리라고 본다. 이 때 잡지나 음란비디오에 나오는 내용에는 정상적인 것보다 변태적인

성행위나 과장된 부분이 많아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것들은 성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된다는 것을 함께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가족운동(탁구, 볼링 등),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습방안인 동시에 예방책도 된다.

비디오
관리에
관하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비디오 관리’에 관한 것이다. 요즘은 성문제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인이 바로 ‘비디오’이다. 부모들이 보던 비디오를 안방에서 우연히 보게 된 후 충격을 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사촌여동생과 비디오를 함께 보다가 거기에 나오는 대로 흉내를 내보았다는 학생도 있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 지식없이 그런 비디오를 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아직 우리 나라에는 이런 비디오테이프가 많지는 않지만—를 자녀에게 추천해 준다거나 비디오를 함께 보는 기회를 자주 마련한다거나 자녀가 보기에 적합치 않은 비디오는 잘 간수를 한다거나 하여 비디오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3)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조언

사춘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쯤 되면 사춘기 초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하여 많이들 알고 있다. 성역할이나 성태도도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해 줄 필요가 있는 성교육은 어떠한 것일까?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성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하고, 성행위 후 성병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임신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걱정하기도 한다. 먼저 고등학생 자녀의 성충동 해결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성충동을 느끼는 시기 이 때가 되면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에 나타나는 자신의 욕구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고 잘 억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간의 성의식이나 성행동은 동물과 같이 충동적인 본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뇌 신피질의 정신 활동에 의해 생후의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학습되고 형성된다. 성에 대해서 대뇌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충동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들은 이러한 인간의 성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자녀가 성의 노예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

엄선된 내용을 입력시키자 먼저 자녀가 건전한 이성관,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여주는 등 엄선된 내용이 성에 대한 정보로 대뇌에 입력되도록 해야겠다.

인내심을 키워야 그 다음에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내와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시켜 성욕구를 가능한 한 스스로 최소의 긴장상태로 억제해 둘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제심을 키운다는 것, 이것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할 발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청소년기의 자녀가 성충동을 잘 조절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성욕을 그 욕구에 따라 부족함없이 충족한다면 사람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힘이 약화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환경에서 오는 자극도 강하게 느껴지고 내적인 욕구 역시 강하게 분출될 때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성충동을 잘 조절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이성적 욕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제시키려 하기 보다는 오락, 각종 스포츠, 문화활동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이 부족하면 성적인 유혹에 보다 강

한 상상적 반응을 보이게 되기가 쉽다. 외로운 상태에서 흥미가 어떤 구체적인 곳에 쏠려 있지 않으면 성적 행위로 돌파구를 찾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부모에게 의논하는 고등학생들은 별로 없다. 정 쑥스러운 경우에는 꼭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을 그냥 책상 위에 갖다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성충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에 따르는 책임, 위험을 인식시킬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반발적인
행동인
경우

마지막으로 점진해 보아야 할 것은 자녀가 성충동을 행동화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부모에 대한 반발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어떤 것이든 부모에게 불만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때부터 누적되어 이제는 적개심으로 변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의 지나친 편으로 부모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녀나 일관성없는 부모의 태도로 혼란을 많이 느낀 자녀, 잦은 부부싸움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평온치 못한 상태에서 성장한 자녀 등 부모와 자녀간에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행동, 방종에 가까운 성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는 여학생들의 성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여성과
남성의
성심리 차이

자신의 몸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몸 생리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고 여성의 생리와 남성의 생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의 성심리와 여성의 성심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성은 이성관계에서 수동적, 감정적이기 쉬우나 남성은 여성과는 다른 생리적 특성때문에 시각적 자극에 충동적이기 쉬우며 성행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남성의 성충동을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만 빼고 남자는 다 늑대다”와 같은 식의 지도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출이 심한 옷은 되도록 피하게 하고 이성간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할 줄 알고 행동에 남성을 자극할 만한 것이 없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밤늦게 오숙한 곳은 가지 않도록 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도 혼자 타지 않게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남성의 성심리는 여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는 계획적인 경우는 드물다.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친척 등 아는 사람일 경우는 여자가 정확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TV나 신문에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함께 보았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딸에게 성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주자. 사후에는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4. 문제행동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1. 청소년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행동과 그에 대한 심각성 인지정도

1) 실태조사결과

본 조사에서는 16가지의 문제행동을 열거하고 청소년들의 경험여부와 빈도 및 이들 행동에 대한 심각성 인지정도를 알아보았다.

16가지의 행동 중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행동은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전자오락실출입’, ‘이성교제’, ‘음란물보기’, ‘음주’, ‘성인영화관람’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험은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 두 집단을 나누어 이들 행동의 경험여부를 알아보았는데(표 33), 두 집단의 차이는 ‘본드흡입’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였다.¹⁾ 여학생의 경우 ‘음란물보기’, ‘이성교제’, ‘과대치장’, ‘음주’, ‘전자오락실출입’, ‘성인영화관람’, ‘시험 중 부정행위’ 등 7가지 행위를 제외한 항목에서 90% 이상이 그러한 행동을 ‘전혀 경험한 바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본드흡입’, ‘집단싸움’, ‘디스코장출입’ 등 세 항목의 경우에만 90% 이상이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이들 16가지 행위에 대한 경험 빈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경험 빈도가 높다.

1) 남학생과 여학생집단간 차이의 통계치(χ^2)는 다음과 같다.

항 목	통 계	항 목	통 계 치
흡연	122.847***	과대치장	24.293***
무단외박	37.943***	음주	91.962***
디스코장출입	31.582***	전자오락실출입	460.148***
하급생구타	51.504***	부모님께거짓말	24.266***
집단싸움	12.938*	당구장출입	169.813***
본드흡입	4.169	돈내기도박	320.860***
음란물보기	307.815***	성인영화관람	116.085***
이성교제	43.401***	시험중부정행위	113.990***

*는 $P < 0.05$ 에서, ***는 $P < 0.001$ 에서 유의미.

〈표 33〉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행동 경험여부 및 빈도

항 목	남 학 생					여 학 생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흡연	78.9	11.5	2.7	3.2	3.8	97.3	2.6	0.1	0.0	0.0
무단외박	89.2	8.7	1.4	0.4	0.3	97.0	3.0	0.0	0.0	0.0
디스코장출입	92.5	4.7	1.7	0.8	0.3	98.4	1.5	0.0	0.1	0.0
하급생구타	88.8	9.9	0.4	0.1	0.1	98.1	1.8	0.1	0.0	0.0
집단싸움	94.7	4.6	0.4	0.0	0.3	97.8	1.9	0.0	0.1	0.1
본드흡입	98.7	0.8	0.1	0.1	0.1	99.6	0.4	0.0	0.0	0.0
음란물보기	39.5	46.5	9.4	2.7	2.0	83.5	15.3	0.8	0.4	0.0
이성교제	53.8	23.1	13.2	6.0	3.9	65.6	22.6	9.0	2.0	0.8
과대치장	70.4	19.1	7.8	1.4	1.3	80.8	12.9	4.6	1.4	0.3
음주	60.8	27.7	7.1	2.8	1.7	82.2	15.2	1.8	0.3	0.5
전자오락실출입	11.0	35.9	23.2	19.3	10.6	55.1	37.0	5.2	1.9	0.8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15.9	63.3	14.8	4.2	1.8	22.8	64.5	9.7	2.3	0.7
당구장출입	74.0	15.0	4.3	3.9	2.8	97.7	1.5	0.4	0.1	0.3
돈내기도박	57.8	33.8	6.0	1.3	1.1	97.0	2.5	0.4	0.1	0.0
성인영화관람	60.2	29.5	6.0	2.4	2.0	84.9	12.7	1.9	0.4	0.1
시험중 부정행위	63.9	29.8	3.8	1.8	0.7	87.2	12.0	0.3	0.1	0.4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 간에도 위의 16가지 행동 중 ‘하급생구타’, ‘집단싸움’, ‘본드 흡입’ 등의 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경험 및 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4). 즉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하여 위의 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경험 빈도 또한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중학생의 경우 ‘흡연’, ‘무단외박’, ‘디스코장출입’, ‘집단싸움’, ‘본드흡입’, ‘당구장출입’ 등의 항목에서는 95% 이상이 이들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고 있고, ‘음란물보기’(23.1%), ‘이성교제’(27.2%), ‘과대치장’(18.6%), ‘음주’(11.5%), ‘돈내기도박’(14.4%), ‘성인영화관람’(16.6%), ‘시험중 부정행위’(18.9%) 등의 항목에서는 이들 행동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오락실출입’이나 ‘부모님께 거짓말하기’의 항목은 60%이상의 학생이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들 행동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에 비하여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음란물보기’나 ‘이성교제’, ‘음주’ 등은 거의 50% 이상의 학생들이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고, ‘당구장출입’, ‘돈내기도박’, ‘성인영화관람’, ‘시험 중 부정행위’ 등을 한 경험이 있

〈표 34〉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경험여부 및 빈도²⁾

항 목	중 학 생					고 등 학 생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흡연	95.9	3.7	0.1	0.1	0.1	80.3	10.4	2.6	3.1	3.6
무단외박	96.6	3.0	0.0	0.4	0.0	89.6	8.6	1.4	0.1	0.3
디스코장출입	99.2	0.8	0.0	0.0	0.0	91.7	5.4	1.7	1.0	0.3
하급생구타	93.6	6.0	0.1	0.1	0.1	93.3	5.6	0.8	0.1	0.1
집단싸움	97.2	2.8	0.0	0.0	0.0	95.4	3.6	0.4	0.1	0.4
본드흡입	99.5	0.5	0.0	0.0	0.0	98.9	0.7	0.1	0.1	0.1
음란물보기	76.9	20.6	1.9	0.4	0.1	46.2	41.2	8.2	2.6	1.8
이성교제	72.8	17.5	6.9	1.6	1.1	46.5	28.2	15.3	6.4	3.7
과대치장	81.4	12.9	4.2	1.2	0.3	69.9	19.0	8.2	1.5	1.4
음주	88.5	10.1	1.1	0.0	0.3	54.1	32.9	7.9	3.1	2.0
전자오락실출입	39.6	34.9	12.8	8.2	4.5	26.8	38.2	15.3	12.9	6.8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22.5	63.1	11.0	2.9	0.5	16.3	64.7	13.5	3.6	1.9
당구장출입	96.7	2.3	0.3	0.1	0.5	74.9	14.2	4.4	3.9	2.6
돈내기도박	85.6	12.7	1.2	0.4	0.1	69.5	23.2	5.3	1.0	1.0
성인영화관람	83.4	13.5	2.0	0.7	0.4	61.8	28.7	5.8	2.1	1.7
시험중 부정행위	81.1	17.6	0.7	0.3	0.4	69.8	24.5	3.3	1.7	0.7

는 학생은 거의 40%를 육박하거나 4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본드흡입’, ‘흡연’, ‘집단싸움’, ‘무단외박’, ‘돈내기도박’ 등의 순이었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순서를 보이는 것이다(표 35).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각각의 행동들에 대하여 학부모보다 더

2)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간 차이의 통계치(χ^2)는 다음과 같다.

항 목	통 계 치	항 목	통 계 치
흡연	94.276***	과대치장	36.502***
무단외박	35.286***	음주	219.118***
디스코장출입	48.873***	전자오락실출입	35.045***
하급생구타	3.901	부모님께 거짓말	16.898*
집단싸움	8.040	당구장출입	146.605***
본드흡입	3.239	돈내기도박	60.262***
음란물보기	157.125***	성인영화관람	88.344***
이성교제	117.914***	시험중부정행위	35.895***

*는 $P < 0.05$ 에서, ***는 $P < 0.001$ 에서 유의미.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와 ‘전자오락실출입’의 항목만이 청소년보다 학부모들이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35〉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각성 인지정도³⁾

항 목	청 소 년			학 부 모			χ^2
	심각 ×	보통	심각	심각 ×	보통	심각	
흡연	18.2	9.1	72.7	34.1	3.8	62.1	145.2***
무단외박	18.5	16.2	65.3	35.0	6.9	58.1	181.4***
디스코출입	21.5	18.6	60.0	36.2	7.2	56.6	211.5***
하급생구타	21.0	17.7	61.3	35.2	9.2	55.7	188.4***
집단싸움	18.0	14.3	67.6	33.9	6.2	59.9	175.2***
본드흡입	15.0	4.3	80.8	33.8	2.1	64.2	203.8***
음란물보기	21.4	21.9	56.6	34.1	8.9	57.1	142.3***
이성교제	59.4	25.1	15.5	44.1	29.9	26.1	122.3***
과대치장	36.9	30.8	32.3	37.5	24.6	37.9	117.0***
음주	25.5	21.1	53.4	35.4	12.2	52.4	199.2***
전자오락실출입	50.9	28.0	21.1	40.5	24.0	35.6	107.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19.6	33.8	46.6	31.8	19.2	49.0	95.7***
당구장출입	26.5	19.6	54.0	36.3	10.7	53.0	167.4***
돈내기도박	20.6	15.9	63.5	35.0	5.8	59.2	155.6***
성인영화관람	23.6	21.7	54.6	35.1	10.7	54.2	129.3***
시험중 부정행위	20.5	19.9	59.7	35.2	10.1	54.6	244.3***

***는 $P < 0.001$ 에서 유의미

청소년들이 위의 행동들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와 그 행동을 경험하는 빈도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심각성인지정도와 경험 빈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표 36) ‘부모님께 거짓말하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변수 사이에 부적(－)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들이 위의 행동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낄수록 경험의 빈도는 줄어들을 알 수 있다.

3) 본 설문지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 4. ‘심각하다’ 5. ‘매우 심각하다’

〈표 36〉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인지와 경험빈도간 상관관계

항 목	χ^2	G	항 목	χ^2	G
흡연	219.7***	-.489	과대치장	134.3***	-.340
무단외박	143.4***	-.589	음주	404.0***	-.539
디스코장출입	68.0***	-.533	전자오락실출입	185.5***	-.296
하급생구타	55.5***	-.367	부모님께 거짓말	128.4***	-.072
집단싸움	62.7***	-.400	당구장출입	182.3***	-.506
본드흡입	54.7***	-.509	돈내기도박	322.7***	-.448
음란물보기	283.2***	-.412	성인영화관람	252.7***	-.431
이성교제	128.7***	-.292	시험중부정행위	160.3***	-.296

***는 $P < .001$ 에서 유의미.

* 선행연구결과 개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고등학생 1,437명과 소속학교의 교사 908명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315명을 대상으로 13가지의 문제행동 유형에 대한 심각성의 지각정도가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해 본 결과(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심각성 지각의 순위는 흡연, 본드흡입, 음란물 보기, 음주, 집단싸움 등의 순으로 청소년, 학부모, 교사가 공통적이었으나 심각성 지각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는 흡연, 음주, 하급생 구타, 집단 싸움, 본드흡입, 무단외박, 이성교제, 디스코장 출입, 전자오락실, 음란물 보기, 과대치장, 무례한 행동, 노름 등 이 연구에서 선정한 13가지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모두 청소년이나 교사보다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은 음주, 하급생 구타, 집단싸움, 무단외박, 이성교제, 과대치장, 노름에서 청소년이나 교사보다 높은 심각성 지각 정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이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5가지 상황별 문제행동을 제시하여 조사해 본 결과, 우연적인 음주행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67.1%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와 교사는 각각 47.2%, 55.2%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앞의 심각성 조사에서 음주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되었음을 고려할 때 ‘우연한 음주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음주행위가 우연적인, 즉 일회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에는 다소 허용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미스러운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5.9%인데 비하여 학부모, 교사들은 각각 34%, 34.3%로 낮은 응답을 보여 역시 성인들은 청소년의 어떠한 음주행위도 금지해야 하는 쪽으로 응답하였다.

하급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선의의 이유로 인한 구타행위에 대해서 ‘허용’에 응답한 청소년은 61.5%인데 비하여 학부모와 교사는 각각 48.6%, 35.2%로 응답하여

성인들은 청소년보다 낮은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비행을 일으킬 소지가 적은 디스코장이나 전자오락실 출입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59.4%가 ‘허용’에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34.2%, 교사는 48.1%가 응답하여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인 중에서도 학부모는 65.8%가 금지에 응답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음주행위(66%)와 함께 가장 높은 금지적 태도를 보였다.

육체적 접촉이 없거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75%가 넘는 높은 허용적 태도를 보여 다른 상황별 문제행동에 비해 매우 높은 허용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93%가 ‘허용’에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75.1%, 교사는 85.3%가 응답하여 청소년이 성인들에 비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시학교에서 학부모·교사 100명씩을, 지방학교에서 학부모·교사 100명씩을 그리고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중등학생의 행동 중 어떤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조사한 결과(이현우, 1982), ‘명절 때 웃어른께 인사를 잘 안한다’를 문제행동으로 지각하는 응답률을 보면 부모집단은 67%가, 교사집단은 47%가, 전문가들은 30%가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남녀가 함께 방학때 등산을 간다’를 문제행동으로 지각한 응답률을 보면 부모집단은 52%가, 교사집단은 33%가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었으며, 전문가집단은 불과 4%만이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고 70%가 문제행동이 아니냐에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5명과 학부모 103명, 교사 114명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정도를 측정한 결과(박용권, 1989: 24-36), 각 문항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심각하게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학생집단에서는 ‘군것질이 많다’, ‘성에 관한 호기심이 많다’를 가장 심각하게 문제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고 ‘환각제를 흡입한다’와 ‘불량아와 꽤거리를 짓는다’를 심각하지 않은 문제행동이라고 지각한 데 반하여 학부모집단에서는 ‘군것질이 많다’와 ‘참을성이 없다’를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이라고 지각하고 ‘환각제를 흡입한다’와 ‘음화를 본다’를 심각하지 않은 문제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집단에서는 ‘이기주의적이다’, ‘참을성이 없다’를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협박을 한다’, ‘기물을 파손한다’ 등을 심각하지 않은 문제행동이라 지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가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이라 지각한 것과 심각하지 않은 문제행동이라 지각한 것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행동의 각 요인에 있어 반사회성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순으로 심각한 문제행동이라 지각한 반면, 자기중심성과 허황성은 교사>학생>학부모의 순으로 심각한 문제 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2) 지도방안

자녀의 생각만을 바꾸려고 하는 부모들 이때 대개의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자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의 판단기준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는 별로 없다. 자녀의 생각이나 판단을 존중해 주는 부모는 드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전제하에 자녀만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기는 커녕 더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견해차이를 인정해야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견해차이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나 경험의 세계가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서로 문제행동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안목으로 밖에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견해차이를 인정했다면 문제해결의 반은 해결된 셈이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서로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부모도 자녀측으로 한걸음 다가서야 한다. 자기를 절대기준으로 삼고 자녀만 다가오라고 부르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세대의 흐름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생각, 가치기준, 동료들의 생활상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부모의 생각을 들려주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도 은근히 암시를 해주는 게 좋다. 대화를 나눌 때 유의할 점은 부모의 생각을 말하기 이전에 자녀의 생각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커다란 공감대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도울 것이다.

2. 청소년이 부모님 몰래 하는 행동과 부모들이 염려하는 자녀의 행동

1) 실태조사결과

16가지 유형의 행동들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몰래 한 적이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표 37)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전자오락실출입’, ‘음란물보기’, ‘이성교제’, ‘성인영화관람’, ‘음주’, ‘흡연’ 등의 순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일으키는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표 38),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전자오락실출입’, ‘흡연’, ‘이성교제’, ‘본드흡입’, ‘무단외박’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이 부모 몰래 빈번하게 행하는 행동들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표 37〉 부모님 몰래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었습니까?(청소년)

행 동 유 형	%	행 동 유 형	%
부모님께 거짓말	22.0	돈내기 도박	3.4
전자오락실 출입	18.9	시험중 부정행위	3.3
음란물 보기	14.1	과대치장	1.5
이성교제	9.2	디스코장 출입	1.3
성인영화관람	7.3	무단외박	0.9
음주	7.0	하급생구타	0.8
흡연	5.6	집단싸움	0.4
당구장 출입	4.0	본드흡입	0.2

(복수응답문항)

〈표 38〉 자녀의 행동 중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은 무엇입니까?(학부모)

행 동 유 형	%	행 동 유 형	%
부모님께 거짓말	25.4	집단싸움	2.9
전자오락실출입	15.5	성인영화관람	1.8
흡연	13.2	음주	1.7
이성교제	10.0	시험중 부정행위	1.7
본드흡입	8.2	디스코장 출입	1.4
무단외박	6.9	돈내기 도박	1.1
과대치장	4.6	하급생구타	0.7
음란물 보기	4.4	당구장 출입	0.6

2) 지도방안

짧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라도 대화를 부모의 일방적인 잔소리는 대화에 들어가지 않는다. 학업성적에 대한 이야기도 평소에 계속하면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자.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요즘 자주 먹는 간식은 무엇인지, 점심시간의 농구시합에서는 몇 골을 넣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보면 자녀의 생활이 저절로 머리속에 그려질 것이다. 부모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느낀 자녀가 부모 몰래 문제행동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3. 청소년들이 염려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대처방법

1) 실태조사결과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가 염려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학부모들은 대체로 ‘때번 잘잘못의 이유를 설명,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지도한다’(73.1%)고 응답하고 있으며, 12.9%는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지켜본다’, 10.4%는 ‘별이나 매 등의 체벌을 통해 가르친다’고 응답하였다(표 39). 그러나 청소년 들의 경우 21.8%가 부모님이 ‘무조건 혼을 내며 야단 치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5.2%만이 ‘부모님께서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신다고’고 응답하여 학부모의 응답과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표 40).

〈표 39〉 문제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대처

대 처 유 형	%
별이나 매 등의 체벌을 통해 가르친다	10.4
때번 잘잘못의 이유를 설명,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지도한다	73.1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지켜본다	12.9
청소년기에는 가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준다	2.2
기타	1.4

〈표 40〉

문제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부 모 님 의 반 응	%
무조건 혼을 내며 야단치신다	18.5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신다	35.2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하신다	20.6
그냥 모른척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	4.0
위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15.2
기타	6.6

다음에서는 부모님의 위의 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56.3%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9.6%나 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남학생 20.7%, 여학생 33.2%), 고등학생의 경우도 중학생에 비하여 섭섭하다는 생각을 갖는 비율이 높았다(중학생 25.1%, 고등학생 28.8%)

〈표 41〉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청소년의 느낌 - 남/녀, 중/고 차이

항 목	남	여	중	고
대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61.6	50.8	59.8	52.7
운이 나빠서 야단맞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6.9	3.1	3.6	6.5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단맞게 되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3.3	1.8	2.9	2.2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다	20.7	33.2	25.1	28.8
기타	7.5	11.0	8.6	9.8
통계치(χ^2)	44.484***		29.788***	

***는 $P < 0.001$ 에서 유의미.

2) 지도방안

문제행동의 징조 문제가 커지기 이전에 자녀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고 싶다면 부모 혼자 마음 속으로만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에 눈을 돌려야 한

다. 청소년비행은 원인이 어디있든지 대개의 경우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친구들에게 오는 전화가 많아지고, 하교후 곧 바로 집을 나가서 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하교시간이 늦어지고, 학과공부를 등한시 하며,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려고 하고, 친구네 집에서 외박을 하겠다고 하거나 말없이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고, 옷차림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부모에게 예전보다 거친 태도를 취하고 말대꾸가 많아지며,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 신경질을 내고, 부모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싫어하여 고의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숙이는 경우가 많을 때 등이다.

초기에 바로 잡아야 자녀의 문제행동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자녀의 행동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이를 가볍게 넘기려고 하거나 그냥 아니겠지 하면서 자녀를 믿고 싶어한다. 초기에 문제행동이 용납되면 자녀는 계속적으로 문제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친구관계에 대해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자녀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의 성향을 평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기가 수월하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당황해서 자녀의 문제행동에 끌려 다니는 경우도 많다. 때때로 부모들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정말로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썽을 피우더라도 초기에는 대개 부모의 권위에 순응적이므로 이때 자녀에 대해 불안해 하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자녀는 부모가 어쩔줄 모를 때 더욱 혼동스러워 한다.

부모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싸거나 숨기지 말고 부모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가 혼동스러울 정도로 부모간의 자녀교육관이 달라 한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자녀를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상

실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간의 태도를 합의한 후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의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녀의 문제행동을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자녀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주고 부모가 이를 일관된 교육태도로 지도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기준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인 유대감 형성 비행의 조짐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녀의 생활에 간섭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한 구속감은 자녀를 더 큰 소외감에 빠지게 하며 그 소외감 해결을 위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부모는 자녀를 옹아매는 방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으로 자녀가 가족을 의식하고 행동할 만큼의 심리적인 끈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 심리적 유대감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취하여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비행 초기에는 자녀들도 심한 갈등에 빠져 있게 되므로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문제의 조짐이 보이던 아침에 “오늘 몇 시에 오니?”, “그래? 아버지도 그때 오마”라고 말한 뒤 저녁식사시간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이 무엇인지 끌어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행동의 원인파악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그 행동의 의미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반항인지, 학교나 가정에서의 부적응과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의 행동화인지, 일탈행동의 상징인지 등 먼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이상한 옷차림을 할 경우 유행을 쫓거나 별의미없이 친구 따라서 이상한 옷차림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술, 담배를 할 경우에는 자녀가 문제의 초기인지 아니면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한 옷차림을 할 경우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몇 가지 변형요령을 알려주거나 타협하면서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은 강화해 주고 매우 눈에 거슬리는 부분만 수정해 주면서 서서히 지도해 나가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아이들의 옷차림은 어른들의 눈에 거슬리기 마련이다. 사실 어른들이 이상한 옷차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저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일 뿐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개방적 사고와 부모의 보수적인 관념으로 인해 사소한 것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하고 간섭할 경우에는 오히려 마찰이 커질 수 있다. 자녀와 적당히 타협해 가며 몇 가지 관계개선을 해 나가는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해 가다 보면 나름대로 개성있는 옷차림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자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생각때문에 자녀가 문제아로 보이는 것인지 부터 분석하여야 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현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입장에서 자녀와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부모자녀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도록 한다.

술, 담배를
할 경우

자녀가 술, 담배를 시작했을 경우, 단지 나이가 어리니까 안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서 흡연이나 음주의 해독을 설명하거나 아버지가 먼저 담배를 끊는다든가, 같이 끊는 것을 시도해 본다든가 하여 부모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는 하면서 자녀에게만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호식품이므로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자녀 스스로 이 행동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안으로는 의사의 입장, 밖으로는 동료, 동반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학교나 가정
생활의 부적
응이 원인일
때

문제행동이 심리적 문제로서 학교나 가정생활의 부적응에 따른 것이라면 자녀의 심리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관심을 끌려고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또는 심리적 불안감,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등을 문제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역기능적인 행동체계가 형성되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고 보다 기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며, 자녀의 문제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로 자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는 경우, 문제의 초기에는 대개 친구들과의 관계때문일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만족한 상태이거나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때문에 부모가 이 시기에 자녀가 저지르고 있는 사소한 문제행동이라도 지적하면 자녀는 대개 신경질과 짜증을 심하게 낸다. 자신도 이미 깨닫고 있는 죄책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잘못을 들킨 느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때는 초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자녀는 부모의 지도에 반항적으로 나오더라도 이면에는 부모의 지도에 순종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부모는 이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정해 주어야 하며 자녀가 이를 어겼을 경우 감정적으로 처벌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규칙불이행에 대한 결과를 자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할 수 있으며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이 생긴다.

결국은 자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도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원인이 어디 있든지간에 결국은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 남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지연시키거나 성취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

에 결국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문제 행동이 심각해져서 범죄적 양상을 보일 때 자녀가 이미 내쫓아 버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개 범죄에 빠져들때 또래 패거리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대체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별로 없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기준이 단지 사회적 제약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에 대해 피상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동기준으로서의 효력은 상실된 상태인 것이다. 또한 패거리내에서는 사소한 비행이 자신들을 성인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속에 있을 경우 현실과 유리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자녀들을 지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쉽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로 부모 자신까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두번 노력해 본 뒤 포기하거나 먼저 지쳐서 손들어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너무 벅차게 느껴질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자녀의 지도를 가정에서 포기하게 되면 사회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줄 곳, 도움을 줄 곳은 없다. 또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부모까지도) 없다는 생각을 자녀가 갖게 되면 행동이 극단화된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편법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비행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녀를 지도할 때 잘못에 대한 용서를 너무 빨리 하거나 자녀가 잘못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재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또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자녀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쉽게 여기게끔 하는 것이며 자녀에게 ‘정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자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내가 잘못해도 부모가 다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불끄러 다니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외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시켜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직접 자녀를 말로 꾸짖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녀가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들어 갔을 때 음식, 옷을 넣어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편함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자녀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막대한 손해, 부모를 괴롭혀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미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평소에 자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부모들은 이러한 점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초점은 항상
현재에

비행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녀도 늘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주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잘하고 있을 때에는 잘못될까 불안해 하지 말고 정말로 자녀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확고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무조건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 비행을 저지르는듯 싶는데 확신이 없을 때에는 신경을 써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이때 과거의 모든 일까지 함께 거론하지 말고 항상 초점은 현재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생 자
녀의 도벽

사소한 도벽, 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돈을 훔쳐가는 경우에는 우선 가정에서 돈이나 물건을 단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돈을 아무데나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돈이나 물건을 보면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인데 자제심이 약한 자녀에게는 이것이 강한 유혹이 되기 때문이다.

도둑질을 별뜻없이 하는 경우나 자녀의 소유개념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하며 도벽행동에 대한

규제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

자녀의 도벽이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나타나는 행동일 경우에는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훔친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 내에서 무시당하는 아이, 소외된 아이, 열등감이 심한 아이들이 주로 훔친다. 이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자녀가 갖고 있는 심리적 배경에 관심을 쏟고 그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돈 관리를 잘해서 훔칠 기회, 훔치는 경험의 횟수도 줄여가야 한다. 훔치므로써 부모의 관심을 끄는 데 한번, 두번 성공하면 계속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기본원인은 불안에서 오는 것이므로 부모가 할 일은 평소에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상담실에 와서 부모의 관심만 쏠려도 횟수가 부쩍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모의 태도가 민감하게 작용한다.

안 훔쳤을 경우 기간을 늘려 가면서 (3일, 일주일...) 상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훔쳤을 때보다 안 훔쳤을 때 얻는 것이 더 많으면 안 훔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에 없어지는 행동은 아니고 없어지는가 하면 다시 발생하기도 하므로 인내를 갖고 지도해야 한다. 대개는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지만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안되면 다른 일탈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신경증적 문제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학생 자녀의 과도한 전자오락실 출입

아이가 어떻게 지내든 관심없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외롭지 않으면 안 간다. 집에 있는 것이 지나치게 지루하거나 부모의 간섭, 잔소리 때문에 피롭거나 신경질적인 어머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가정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

거의 습관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갑자기 딱 끊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흥미거리를 만들어 주고 가족들의 관심을 느끼게 해주어 행동 기회를 줄여 나가도록 해야겠다.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휴일날 함께 등산이라도 가 보자.

집에다 사다 주고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 자기가 잘

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므로 친구들이 있는 오락실에 가게 될 것이다.

국민학생 자녀의 도박성 놀이 몰입

어른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다. 어른들부터 고쳐야 한다. 스릴감, 경쟁, 도전, 모험을 즐기려는 경향이므로 도박 뿐 아니라 다른 문제행동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임 중에도 놀이내용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놀이 욕구가 있고 놀이는 생활의 일부이므로 놀이를 금지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체놀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놀이에 재미를 부칠 때 이런 도박성 놀이보다는 가족과 함께 윗놀이, 바둑, 장기 같은 것부터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게임을, 오락을 하면서도 교육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마음씀이 필요하다. 정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것으로부터 성취감을 느끼게 도와주고 적절한 용돈관리—정기적인 용돈지급, 용돈기입장 쓰기, 적당한 보상—를 통해 안정된 금전관리 요령을 배우게 하는 것도 좋다. 아이들이 후다닥 감출 경우에는 모른척하고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재미있니?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끼어들어 보자. “애들이 무슨 도박이니!”라고 소리질러 봤자 소용없다. 문제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의 음란물 탐닉

이 시기에 자녀가 음란비디오나 음란서적에 빠져들어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도록 부모가 적절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성적인 호기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감추려고만 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성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잘못된 성개념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자녀의 소지품 중 음란출판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무안을 주거나 무조건 죄악시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성에 대해 부모가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면 자녀에게 성에 대한 수치심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길러주게 될 것이다. 침착한 태도로 음란 비디오가 가져다 주는 폐해, 즉 성가치관이 키워지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가치관 형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음란물은 사실적이지 못한 자극물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왜 청소년들이 보는 것을 금지하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성표현이 나오는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자녀와 부모가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건전한 성가치관을 길러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취미활동을 권해서 음란 비디오나 서적에 관심을 가질 틈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이 시기에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므로 관심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거나 온가족이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다.

**중학생 자녀
의 상습적인
본드 흡입**

상습적인 본드흡입은 약물남용으로서 전문적인 정신과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본드흡입을 계속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환각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야 한다. 흔히 본인의 의지로 이를 끊도록 강요하여 그것을 못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습적이라면 본인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무리한 요구이다. 호기심에 한두번 한 경우라면 약물의 피해를 알려주고 왜 약물에 탐닉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약물남용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경우 학교문제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약물 그 자체 뿐 아니라 약물에 빠지게 되는 원인, 열등감, 소외감, 모험심, 자기파괴욕구 등을 파악하여 심리적인 측면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고교생 딸의
불건전한 이
성교제**

학생은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경우이므로 무조건 어떤 규칙에 잡아 넣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성적이 나쁘다든가, 자기열등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그를 대신하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자신이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가, 대담하다는가 하는 나름의 가치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초기 이성교제 탐닉형은 부모, 형제, 친구들로부터의 애정 결핍에 대한 보상행위인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신뢰받는 부모인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초래할 불

행을 인식시키면서 계속 설득하도록 노력한다.

자녀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양성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화가 왔을 경우 “누구니? 좋아하니? 사귄만한 아이니?”라고 물어 상대방이 드러나게 한다. “건전한 이성교제는 인정한다”라고 말해서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들어 오도록 유도한다. 얼굴을 보이고 나면 나쁜 행동은 하기 어렵게 된다. 부모가 없는 빈 집에는 모이지 않게 주의한다. 일정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둘 사이를 부모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문제행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은 자녀를 인정해 주자. 둘이 결혼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면 자녀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현실탈협형’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부모가 딸에게 끝까지 허용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해놓고 많은 부분은 타협해 나가면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고교생 아들의 상습적 폭력

폭력은 습관적인 것이거나 억압된 감정표현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성격이 단순하고 표현적이지 못한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의 표현을 지지해 주고 받아들여주며(정상적인 표현의 경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표현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해 준다.

상습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신경증적 증세가 없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이 심하거나 반사회적인 성향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격성은 욕구불만이나 좌절감, 무의식적 갈등 등을 외부로 표현하는 하나의 심리적 기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대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우선은 자녀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욕구나 좌절감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끔 안정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조직의 일원인 경우는 내 아이만 빠지게 하기는 어렵다. 집단의 구성을 부모가 알도록 한다. 집단이 정당하면 부모가 후원인이 되어 주는 것

도 한 방법이다. 후견인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정당하지 않으면(불량집단) “그 모임의 목적은? 하는 일은? 구성원은?” 등에 대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집단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밍 보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청소년들의 체벌에 대한 견해

1) 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때때로 그들에게 체벌을 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표 42〉 체벌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구 분	%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간에 체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0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가할 수 있다.	70.7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체벌은 효과적인 훈육책이 될 수 있다	10.7
잘 모르겠다	6.6
기타	1.9

본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10%만이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대부분 체벌에 대하여 전적인 반대를 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체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부득이 체벌이라는 방법을 가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일관성있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가정적 상황과 자녀의 탈선을 막기 위한 부모의 자세

1) 실태조사결과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가정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본 설문조사에서는 문제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표 43)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할 때’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각 약 6%는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할 때’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에 비하여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에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가정적 상황이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표 43〉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가정적 상황

(단위 : %)

유 형	학부모	청소년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16.8	14.9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	51.7	47.0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	22.9	29.9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경우	6.8	6.2
기타	1.8	2.0

$\chi^2=103.07(P<0.001)$

* 선행연구결과의 개관

인천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김인자, 1991 : 28-35)가 있다. 학생 스스로 인지한 가정분위기를 조사하여 문제행동과의 관련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가정분위기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이 본 자신의 가정분위기에서 “불화가 잦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남녀학생 모두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문제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적일수록, 적대-거부적일수록 여학생의 문제행동 경향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통제, 적대-거부적일수록 남학생의 문제행동 경향이 높았으며 특히 권위-통제적 태도보다 적대-거부적 태도가 남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보다 상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적대-거부적일때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들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딸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훈육방식을 단호한 훈육, 비단호한 훈육, 공격적인 훈육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한종국, 1992 : 28-32),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요구하며, 아이들이 부모가 바라는 행동을 안했을 때는 잘못된 점을 아이가 느끼도록 훈육하는 단호한 훈육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낮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훈육하는 비단호한 훈육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경우 비행정도가 높고, 공격적인 훈육방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행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활동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을 측정한 결과, 부모의 모니터링의 양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중다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부모의 단호한 훈육방식, 아동의 성격차원 중에서 강인성 그리고 자녀활동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의 양, 자녀의 학년, 부모의 학력 등이 아동의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설명력 31%)들로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량집단 가입과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불량집단 가입학생과 일반학생의 비행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가족간에 유대감을 느끼는 정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부부간의 화목도, 부모의 편애, 부모와의 동일시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양

정국, 1987 : 11-17)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비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낄수록, 가족간의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부모의 편애가 심하다고 느낄수록, 자기 부모를 바람직한 부모로서 지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불량집단에 가입하게 되고 비행을 저지른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편애와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다고 느낄수록 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량집단 가입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불량집단 가입학생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비행에서 교우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 근교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의 입소자 중에서 15세에서 21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 3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정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왔는가를 분석한 연구(박성수, 1991)가 있다. 자녀의 행동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행동과 생활활동의 내용과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나마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는 34사례 중 3명에 불과했다. 대개의 부모는 자녀의 공부에만 신경을 쓸 뿐 행동이나 생활의 여러 활동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학교생활이나 방과 후의 생활, 친구관계, 용돈사용에 대한 지침 등 생활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이거나 있었던 경우도 귀가시간에 대한 지침이 전부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부모 중 생활에 필요한 행동의 규칙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부모는 한 사례도 없었다.

훈육방식을 살펴 본 결과는 비행자 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은 왜 나쁜 것이니 하지마라’는 식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지도받은 사례는 없었고 다만 막연하게 ‘나쁜 짓 하지마라’는 수준의 규율을 명령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또 자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의 훈육방식은 너무 극단적으로 허용적이거나 반대로 강압적인 경우로 나뉘어졌으며 일관성이 없고 일방적이며 지속성이 없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어서 자녀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개의 비행청소년은 부모가 올바른 행동은 이런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애정을 느껴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여가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대응력에 대한 가정교육을 받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들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삶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2) 지도방안

형식적인 역할에만 충실한 부모들 부모의 적절한 관심, 자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그 영원한 해답일 것이다. 부모가 형식적인 역할에만 충실할 뿐 자녀와 진정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녀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일체감이 중요 가족일체감이 중요하다. 사회적 요인으로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부모가 빨리 알아차려 가족일체감을 회복시켜주면 된다. 함께 식사, 쇼핑, 친척방문, 여행 등을 하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자.

부모가 몸소 보이는 모범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의 세상 보는 눈, 가치관, 태도, 성실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청소년기 자녀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자꾸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자기해답을 찾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암암리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부모자신이 늘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일관된 태도로 주체적 자기실현을 촉진지원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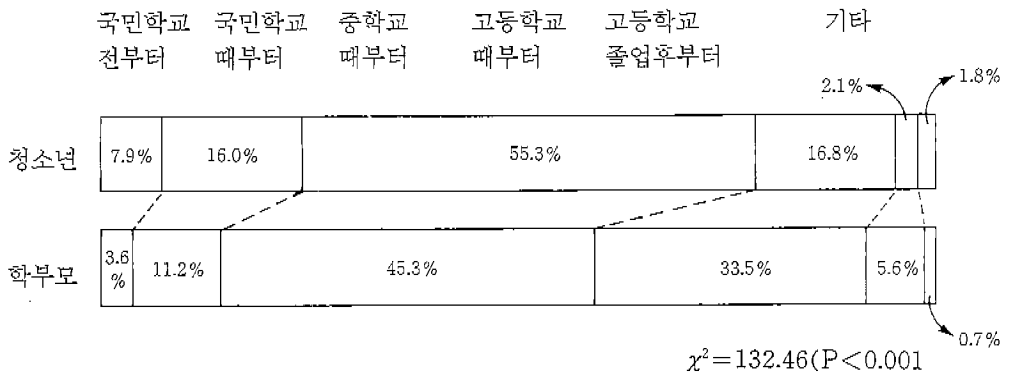
자녀에게 일관된 부모 이미지를 갖게 하자 허용과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는 가치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부모에 의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부모의 행동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므로 부모자신의 실제 신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의 일관된 태도는 자녀의 머릿속에 늘 간직되어 있어서 부모의 이미지처럼 존재하게 된다. 어떤 행동장면에서 부모 이미지는 실제 부모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해답을 암시하게 되고 자녀를 지켜주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을 내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와의 심리적 유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5. 진로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1. 진로지도시기

1) 실태조사결과

진로지도 시기는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시기, 국민학교시기 등을 들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에 비하여 진로지도를 더 일찍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학교 이전에 진로지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비율이 학부모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그림 5).



〈그림 5〉 진로지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과 강원도 소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국민학교 6학년 학생 360명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래 직업에 대하여 처음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김진웅, 1992: 29-30) 전체적으로 학생의 34.2%는(학부모는 15.5%가 응답) 국민학교 3-4학년 때, 학부모의 44.6%는 국민학교 5-6학년 때라고 응답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학생, 학부모 모두 5-6학년 때 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가장 비슷하였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학생은 국민학교 3-4학년 때, 학부모는 5-6학년 때라고 응답하여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6%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학부모의 경우는 전체의 28%나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국민학교 때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진로인식이 미약함을 보여주어 국민학생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진로인식의 변환이 요청된다.

직업개념의 발달수준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초·중등학생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직업지도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학교 4, 6학년,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도, 직업의식 수준, 직업선택 기준, 직업정보 및 탐색활동 등의 발달상태를 조사한 연구(문채룡, 1990)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처음으로 진로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로 직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는 국민학교 4학년의 경우 “직업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에 반응한 학생이 34.6%였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16.2%였으며, “어느 분야를 택할 것인가를 마음에 정하고 있다”에 반응한 학생은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이 8.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20.5%로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학생들이 구체적 관심도가 높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중 진로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이나 분야결정을 한 학생이 29.6%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직업선택이나 분야선택에 있어서 중 3과 고2의 차이가 없었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봉사보다 보수나 개인적 만족,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현실 타협적 성향을 많이 보였으며 직업선택의 행동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상에 맞는 직업을 추구하려는 유형보다 현실적 여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는 유형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진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은 41.1%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16.6%가 부모님의 충고를 따르겠다고 응답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물어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나 선배가 중요한 정보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고생(9.6%)보다는 남고생(22.4%)이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나 직업의식 수준, 직업선택 기준 등의 직업개념의 발달은 학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개인의 진로는 자신의 능력과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의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자녀에게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 줄 때에는 학년 수준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도방안

진로지도 언제 시작하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는 자녀가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 그리고 자신과 직업현실간의 조화와 타협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초기부터 아이들은 어른들의 직업에 대해 이미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삶에 있어서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광의의 의미로서의 진로지도라면 학령전 아동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진로지도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의미나 직업세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일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에 따른 제한을 둔다든가 정신노동에 비해 육체노동을 경시한다든가 하는 태도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진로진도는 중학교 때부터 그러나 한 개인의 장래 취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진로지도는 현실적으로 자녀의 중학교 시기에서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고교진학시 인문계와 실업계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지 발달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경험하지 않은 일(장래 직업이나 역할 등)을 가설적으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가 12세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학생의 진로 지도 국민학교 시기는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지적 수준과 관련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모든 직업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일의 사회적, 개인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국민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가치있는 사회적 제도로서 직업세계를 인식하게 한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자기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내용과 일상생활의

경험속에서 많은 직업들을 소개해 준다. 일과 직업 및 직업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자녀 스스로도 일한 뒤 보상을 얻는 기회를 갖게 하여 일의 가치를 터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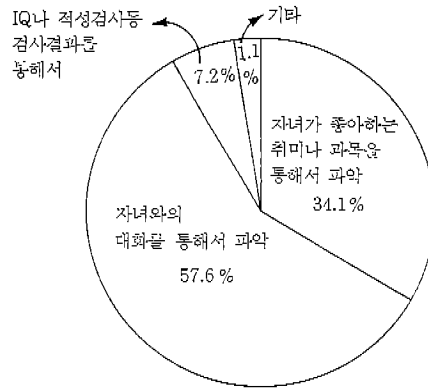
중학생의 진로지도 중학교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교육경험과 관련하여 흥미와 관심있는 영역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진로계획에서 책임인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잠정적이지만 개인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하도록 격려해 준다. 직업(occupation)과 직장, 삶의 방식(life styl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신의 희망과 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방식을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희망직업과 관심직업을 위한 훈련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 맞는 영역을 찾도록 격려해 준다. 인문계, 실업계로 나뉘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준비를 시켜야 한다.

고등학생의 진로 지도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진로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인 검사(적성, 흥미, 학업성취 등)들을 통하여 탐색하게 한다. 자신이 선호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삶의 형태를 명료화시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격려해 주고 합리적 진로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2. 학부모들의 자녀 특성 파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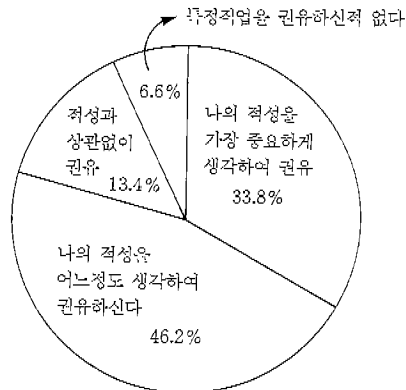
1) 실태조사결과

부모들에게 진로지도를 위해 자녀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물어 본 결과(그림 6) 학부모들은 주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7.6%). 다음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를 통하여 자녀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34.1%), IQ검사나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는 경우는 7%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 6〉 진로지도를 위해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학부모)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직업을 권할 때 그들의 적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그림 7) 대체로 부모님이 자신의 적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여 권유하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46.2%), 자신의 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권유하신다’고 응답하는 청소년도 30%가 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의 취미나 흥미를 통하여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며, 자녀에게 장래의 직업을 권유할 때 그들의 적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7〉 부모님이 장래직업을 권유할 때 당신의 적성을 어느정도 고려한다고 보십니까?(청소년)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 259명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의식에 관해 비교한 결과(강신환, 1987 : 55-63)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직업은 교사·교수 > 의사 > 공무원 > 외교관 > 사업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자신이 원하는 직업도 교사·교수 > 의사 > 사업가 > 컴퓨터 기술자 > 외교관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자녀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 > 사회에 대한 공헌 > 직업의 안정성 순으로 답하였으나 부모는 직업의 안정성 > 자녀의 취미와 적성 > 사회에 대한 공헌 순으로 답하였다. 덧붙여서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3개를 고르라는 물음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응답결과에 의하면 학생과 부모 모두 적성·흥미·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들도 평소에는 직업선택 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고는 있으나 막상 자신의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할 때에는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막강하므로 - 부모 67.6%, 선생님 10%, 친구 3% - 자녀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특히 부모들의 신중한 태도가 더욱 더 요청된다고 하겠다.

서울지역의 중 3 학부모 739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지능, 흥미, 적성, 취미 등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김정택, 1987)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부모가 56%로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잘 모르거나 거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학부모도 35.5%나 되어 자녀의 특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부족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서울지역의 4개 고등학교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어떤 표준화 검사를 받아보았는지를 물어본 결과(김영란, 1992)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능검사(82.6%)와 적성검사(82.9%)는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인성검사(26.6%), 자아개념 검사(5.8%), 내·외 통제성 검사(1%)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받아 보았다고 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선택을 위한 자신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검사의 종류가 치우쳐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인성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도방안

평소의 행동관찰	평소에 자녀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 각자 다른 성격과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놀이태도나 습관 등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발견된다. 어떤 일에
-------------	---

자녀의 집중력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그 일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이나 진로, 교육과정을 자녀에게 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시켜보는 것이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학습 성취도를 보고 학교의 학습 장면에서의 성취도를 보고도 알 수 있다. 과목간의 선호도와 성취도가 흥미, 적성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과목의 선호도와 성취도는 담당선생님과 관계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도 있다. 지능검사나 적성검사를 받아본 학생들은 많으나 인성검사나 자아개념검사 등은 소수의 학생만이 받아보았다고 응답한 연구결과가 앞서 제시된 바 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자녀의 적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녀의 흥미와 적성은 변할 수도 자녀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흥미를 나타내는 분야를 주시해서 그러한 흥미를 개발할 수 있는 생활경험이나 특수교육과정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때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하여 자녀들의 흥미와 적성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은 청소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탐색이나 여러 검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부모-자녀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 있는 분야를 지원해 주어서 자녀의 소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예컨대 흥미, 적성등을 고려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면 일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전과, 편입 혹은 휴학하고 다시 입학하는 일 등을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의사가 무시된 혹은

적성은 무시되고 성적에 맞춘 경우이다. 그러나 부모, 자녀 모두가 자녀의 결정이 실제로 합리적 결정인지, 또는 충동적 결정인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에 자녀가 원하는 직업보다 더 흥미나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더 가지고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결정을 밀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때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녀에게 자녀가 결정한 진로의 다른 측면들(안정성 문제, 성년·장년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 확실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되 결정은 자녀 본인이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생각하는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부모의 기대 를 표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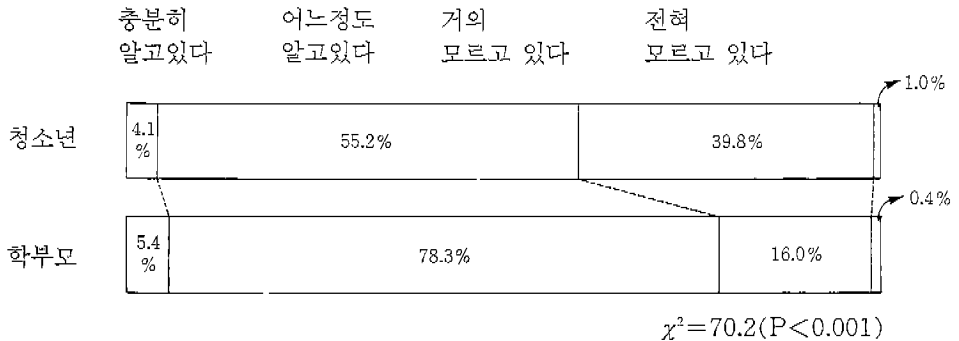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의 기대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는 방식이면 된다. 진로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결국 부모이다. 자녀도 부모가 기대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너무 벽차게 느껴질 때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그 이유를 표현하기는 하되 결정은 자녀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 주도록 한다. 자율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부모자신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진실로 자녀를 위한 기대인가, 또는 부모의 대리성취를 위한 기대인가를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자녀의 만족한 삶을 위한 기대일 경우에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압력이나 부담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결정(합리적 결정)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면서 본인 스스로 진로에 대해 성실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해 격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 정보

1) 실태조사결과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부모의 78.3%와 청소년의 55.2%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학부모와 청소년 각각 5.4%, 4.1%). 청소년의 39.8%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직업 관련지식이나 정보습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8).



〈그림 8〉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양한 직업정보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얻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은 대중매체(30%), 가정(15.5%), 학교(17.4%), 친구나 선배(16.8%), 서적(17.7%)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표 44) 학부모들은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62.0%)가 대부분을 차지, 부모들이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45).

* 선행연구결과 개관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의 종류가 일만 여종이나 되며 선진국의 경우 3만에서 5만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 연구결과(강신환, 1987)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100개 이상 안다고 한 학생은 11.9%에 불과하였고 부모의 경우는 아예 한명도 없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11-60개 정도, 학부모들은 60-100개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학부모 모두 직업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로부터 얻는 학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부모로부터 얻는다고 답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매스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그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적어보시오’란 질문을 하였더니(한소연, 1989) 47.3%의 학생이 0-3개를, 26.3%의 학생이 4-10개를, 14.3%의 학생이 11-20개를 적었다.

〈표 44〉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항 목	%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얻는다	15.5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얻는다	17.4
선배들로부터 얻는다	16.8
직업에 대한 서적을 통해서 얻는다	17.7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	30.0
기 타	2.5

〈표 45〉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얻고 계십니까?(학부모)

항 목	%
책을 통해서 얻는다	11.2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다	18.2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	62.0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강좌 등을 통해서 얻는다	5.3
기 타	3.2

2) 지도방안

무엇을 우선 청소년기에는 개별직업이 아니면 직업군(occupational cluster) 탐색해야 의 수준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의 내용, 하나? 작업환경, 특정 직업의 취업 기회, 해당 직업에 필요한 적성, 교육수준 (취업 준비과정, 자격요건 등), 수입, 장래전망 등에 관한 객관적 정보들을 파악,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그들의 구체적인 작업형태, 여가생활, 생활양식, 작업시간, 직업에 대한 가치감, 직업적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이유 등을 알게 되면 해당 직업이 자신이 선호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부모가 수많은 직업에 관하여 모든 정보를 찾아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는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특정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된다. 손쉬운 방법은 서점에 나와 있는 관련서적을 통해서 얻는 것일 것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도 신문을 열심히 읽게 할 필요가 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신문 읽을 시간이 어디있냐고 하면서 자녀들이 신문을 읽는 것을 말리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세상살이에 대하여 알 기회를 상당히 늦추거나 자녀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세계의 신질서나 새로운 정보에 둔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혼탁한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신문을 못보게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일년에 4,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사태에 대한 정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충격일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 창업이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안인가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직업정보

또한 신문을 읽게 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신문사에 들어 가려는 자녀에게 경제신문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도록 하는 것은 입사시험을 치를 때 당면하게 될 전공시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 신문을 3개월 읽은 사람과 10년간 읽어 온 사람과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학교 공부만이 결코 자녀들이 해야 할 공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입시나 입사시험 경향이 관념적이거나 학문적인 흐름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실제와 부합되는 내용의 문제가 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해당 직업 특정 분야의 직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종사자와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안내자료, 약사회나 엔지니어협회와 같은 사설단
접촉하라 체에서 나오는 자료, 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노동부, 경제기획원
 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
 정직업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정보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 직업
 종사자와 접촉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녀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의 주관적인 직업 정보보다
 는 가능한 여러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참고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제요인을 발견하려는 부모
 들의 해안이 필요하다.

4. 청소년 자녀의 진학-취업, 진로에 대한 이상-현실적 여건의 괴리 사이에 서의 고민과 부모의 대응

1) 실태조사결과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대학진학 외
 에 다른 진로(취업,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
 며(학부모 66.7%, 청소년 45.2%), 다음으로 ‘대학은 꼭 가야 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학부모 20.3%, 청소년 32.7%).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진학을 모색해 보겠다’는 절충적 입장에 대해서는 부모집단에서보다 청소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위의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들이 학부모보
 다 대학진학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당신의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청소년)

내	용	%
대학은 꼭 가야 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가려고 할 것이다		32.7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45.2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대학진학을 모색해 볼 것이다		18.4
기 타		3.6

〈표 47〉 자녀의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학부모)

내 용	%
대학은 꼭 가야 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라고 하겠다	20.3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를 권하겠다	66.7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진학을 모색해 보라고 하겠다	11.5
기 타	1.5

한편 진로에 대한 이상과 현실적 여건의 괴리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 본 다음의 질문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제한요인을 극복하겠다’고 응답한 비율(52.5%)이 ‘현실에 맞게 진로를 수정하겠다’(46.4%)에 비하여 높은 반면, 학부모집단의 경우 전자(42.5%)에 비하여 후자(56.2%)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학부모들은 청소년에 비하여 현실적응을 고려하여 목표를 수정할 여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이상과 현실사이의 큰 간격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청소년)

항 목	%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제한요인을 극복하겠다	52.5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하겠다	46.4
기 타	1.2

〈표 49〉 이상과 현실사이의 큰 간격으로 인하여 자녀가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학부모)

항 목	%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라고 하겠다	42.5
현실에 맞게 진로를 수정하라고 하겠다	56.2
기 타	1.2

* 선행연구결과 개관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24명, 4년제 대학교 학생 177명, 전문대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요인에 관해 조사(조재천, 1991)하였다. 고 3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동기를 물어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해”라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으며(73.8%) “지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해”, “학문을 닦기 위해”라고 대답한 학생은 적었다(26.2%). 이 결과를 통해 대학진학을 직업준비와 밀접히 연관시킴을 알 수 있다.

선택한 학과에 대한 인식도는 “대략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고3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학생도 35.4%나 되었다. 좀 더 자세하게 선택한 학과에 대해 그 학과의 특성, 관련진로 분야, 취업전망, 유사학과, 설치대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또한 조금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 학과 선택을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결정시기를 물어본 결과는 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할 때 결정했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4년제 대학교 학생 53.1%, 전문대생 74.4%). 그리고 대학과 학과선택시 고3은 우선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4년제 대학교 학생은 자신의 성적 때문에, 전문대생은 졸업 후 취업 전망 때문에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인물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 및 학과선택에 대한 부모의 견해에 대해서는 고 3 학생들 중 40.3%가 꼭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원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적성과 능력 보다는 장래 직업 때문이라고 한 학생이 많아 부모 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에 있어서 장래 직업의 선택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김진석, 1992)한 바에 따르면 선택하고 싶어하는 진로와 실제로 선택하는 진로가 일치하지 않는 학생은 52.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30.3%의 학생이 능력부족을 들었으며 그 다음 적성·흥미에 맞지 않는다(11.8%) > 부모의 직업기대와 다르다(4.4%) > 부모가 지원할 수 없다(3.2%)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 배경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는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모든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보았더니 교육자 > 언론인 > 의약계 > 예체능계 > 상업계 종사자 순으로 대답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장차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 직업은 교육자 > 기술자 > 상업종사자 > 의약계종사자 >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다.

2) 지도방안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자녀가 특정진로를 결정했을 때 장차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자녀 자신이 이해하고 진로를 결정한다면 부모로서도 그 결정을 격려하고 심리적으로도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결정이 부모가 보았을 때 위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생각의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설득력을 갖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무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자녀 자신의 선택(진학이든 취업이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해 줄 수 없는 한계를 인식시키되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노력만 하면 학업을 계속 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 취업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도록 한다. 평생교육기관인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대학, 개방대학,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사내대학 등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꼭 그 직업 하나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도록 한다.
자녀가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학업능력, 학업적 성취의 부족으로 대학진학이 어렵다해서 다른 취업이나 진로 역시 어렵다는 암시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이것이 우열과 관련된 것은 아님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개성인 것이다. 아이가 좌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오히려 다른 길을 제시해 주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게 될 수 있다. 자녀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대학에 진학할 실력은 부족하나 다른 능력

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개발해 주어야 한다. 학업이외의 다른 능력과 흥미, 적성을 찾아보고 이를 지원해 주는 부모의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실력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발견하여 적절히 제시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학업성적등)과 현실(대학진학에 요구되는 학업성취)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진로결정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타협의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의 인생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꼭 대학에 진학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진학 역시 궁극적으로는 취업과 관련지어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은 취업(진학후 선택하게 될 직업을 포함하여)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초로 자신의 자아개념, 흥미와 적성, 가치관, 소망하는 생활방식과 어느 정도로 부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자녀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부모의 의사결정에 좌우된 결정인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녀자신이 아닌 부모에게 지우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능력(적성)에 대해서, 자기자신의 노력의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직업학교에 대해서 ‘직업학교’에 대한 정보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직업학교에 갈 수 있다. 직업학교는 아현 직업학교, 종로 직업학교, 서울 직업학교가 있으며 1992년 현재 지방에는 다섯 군데에 직업학교가 있다. 특히 아현 직업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는 전자과, 디자인과, 자동차정비과, 상업과, 정보처리과, 의상과, 자수과, 미용과가 있으며, 남녀 공히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은 거의 다 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1년간 실습위주의 위탁교육으로 1, 2부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학문을 하기 위해서 보다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에 간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직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밝히면서 부모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다. 직업에는 의사, 교수, 외교관, 검사,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들부터 판에 박힌 직업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자녀들도 진정으로 자신에게 알맞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무조건 대학에만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5. 딸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태도

1) 실태조사결과

아래 표에 나타난 세 문항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아래의 각 진술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생각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50〉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청소년)

(단위 :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않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 보다는 아들을 진학시켜야 한다	5.6	13.4	12.5	24.5	44.3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자보 다는 여자에게 어울린다	24.4	34.5	13.9	14.9	12.3
부모님께서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평 생동안 사회생활을 하기 원하신다	34.6	35.7	19.2	8.2	2.3

〈표 51〉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부모)

(단위 :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않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 보 다는 아들을 진학시켜야 한다	7.5	27.8	9.9	33.5	21.5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 자보다는 여자에게 어울린다	21.6	54.3	11.4	9.4	3.3
딸도 아들처럼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30.3	39.8	18.0	10.2	1.8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 보다는 아들을 진학시켜야 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44.3%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4.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거의 70%의 청소년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문항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경우 55%가 반대의견을, 35.3%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인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어울린다’는 진술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24.4%가 ‘매우 그렇다’, 34.5%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58.9%가 찬성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가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75.9%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볼 때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미용사나 간호사 등의 직업은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청소년들 보다는 부모들이 직업에 있어서 성에 대한 편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딸도 아들처럼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70.1%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응답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70.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10.5%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응답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77%가, 여학생의 경우 63.6%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8.6%만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여학생의 경우 12.5%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 이러한 차이는 부모에게서도 나타난다. 즉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63.8%가 긍정, 14.3%가 부정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73.4%가 긍정, 10.7%가 부정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들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평생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 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 선행 연구결과 개관

한 연구(김희정, 1986)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이 여학생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학생의 67%가 남성지배적 직업을 선택). 또 성별에 따른 이상적 직업선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현실적 직업선택 때와 비슷한 (67.6%) 남성지배적 직업을 선택) 결과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현실적 직업선택 때와는 달리 남성지배적 직업을 선택하는 정도가 15.6%에서 30.1%로 높아졌으며 여성지배적 직업은 38.7%에서 25.3%로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만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이상적 직업선택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성성인 경우도 8.1%만이 여성지배적 직업선택 62.2%가 남성지배적 직업선택,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이상적 직업선택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남성성인의 경우는 47.1%가 남성지배적 직업선택)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남성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큰 권력과 위신이 남성의 역할과 결합되어 있으며 대체로 남성적인 특성이 여성적인 특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므로 남성적인 성격특성을 지닌 여성은 여성적인 특성을 지닌 남성과 달리 비난을 받지 않으며 더 영향력 있는 남성적 역할을 습득, 선택하게 되지만 남성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르게 하는 사회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성역할 정체감에 관계없이 남성지배적 직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흥미, 기술을 발달시키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및 활동을 구분하고 있는 성역할 규범을 따르는 사회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1)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부록 3>을 참고하십시오.

2) 학부모 응답의 부·모 차이는 <부록 4>를 참고하십시오.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충분히 넓은 범위까지 탐색 하도록 하며 다양한 영역의 직업을 추구하도록 돕기 위해서 진로지도 시에는 성에 의해 구분된 전통적 직업과 비전통적 직업은 상호배타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닌 개인의 욕구 흥미에 기초하여 직업을 선택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도방안

딸의 취업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역할에 대한 논란의 한 대안은 “양성성”이라고 본다. 여성취업에 대해 부모가 더 ‘가정’과 ‘직업’을 모두 중시할 수 있는 양성성을 가진 자녀를 기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딸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격려하고 생업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지도와 이해가 필요하다. 딸로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복지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서 여성의 취업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라해서 인간적 삶을 위한 영역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남성지배적 직업에 대한 조언 부모가 적절한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는 딸이 그 직업을 원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기사라는 직업이 단지 남성지배적 직업인 딸에게 이므로 여성으로서의 일시적 호기심인지 또는 막연히 성취하기 어려운 직업에 대한 도전과 성취감을 만족하기 위한 것인지, 그저 그럴듯해 보여서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자녀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 흥미, 긍정적 성취감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면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겠다. 여학생에게 또는 남학생에게 적절한 직업이라고 여겨왔던 직업들은 여자는 가정, 남자는 사회라는 이분법적 역할규정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에 탈피, 남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녀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차에 의한 직업선택이 이루어져야겠다.

도전적 직업에서 격게될 어려움에 대한 대비는 당부해 주어야 하겠다. 경쟁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극복의 어려움 등을 설명해 주고 딸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직업에 근무하는 여성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있다. 부모가 아들, 딸 구분없이 자녀의 직업적 성취와 열망을 존중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1. 도덕성지도를 위한 부모의 태도

1) 실태조사결과

본 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충고의 내용은(표 52) ‘학업 및 성적’ 혹은 ‘생활습관’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하는 충고의 내용은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인생의 목적·가치관’에 관한 것이었다. 즉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업이나 성적, 생활습관에 관하여는 자주 충고하지만(이러한 내용의 충고는 청소년들에게 ‘잔소리’로 느껴질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 그리고 직업관 등에 관하여는 청소년기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께서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부모님께서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하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에 관하여 충고해 주시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평소에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기를 바라는 내용의 충고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겠다.

한편 학부모들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충고의 내용(표 53)으로서 ‘건강관리 및 위생’, ‘학업 및 성적’, ‘예의범절’ 등을 들고 있으며, 가장 하지 않는 충고의 내용으로서는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과 ‘인생의 목적·가치관’에 관한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을 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학업이나 성적에 관한 내용과 함께 건강이나 예의범절 등에 관하여 자주 충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평소에 해 주시는 충고의 내용으로서 그러한 것은 학업이나 생활습관에 관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52〉 평소에 부모님께서 주로 해 주시는 충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청소년)

(단위 : %)

항 목	평소에 주로하는 충고	해 주기를 바라는 충고
인생의 목적·가치관	48.6	42.7
생활습관	81.5	12.2
친구 및 대인관계	71.0	23.5
직업관 및 일의 세계	43.3	48.6
예의범절	78.3	13.8
학업 및 성적	84.2	12.2
건강관리 및 위생	70.8	20.6

〈표 53〉 당신은 평소 자녀의 바른 행동형성을 위해 자녀에게 아래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충고해 주십니까?(학부모)

(단위 : %)

항 목	전혀 없다	가 끄	보 통	자 주	매우 자주
인생의 목적·가치관	6.4	50.5	19.0	20.2	3.9
생활습관	1.9	24.9	22.0	42.7	8.6
친구 및 대인관계	2.7	28.8	29.8	33.2	5.5
직업관 및 일의 세계	7.0	38.5	27.7	23.4	3.4
예의범절	1.3	20.6	21.9	41.8	14.4
학업 및 성적	1.3	18.7	23.3	40.6	16.1
건강관리 및 위생	2.5	15.7	23.0	42.3	16.4

* 선행연구결과와 개관

경기도 K시내 국민학교 6학년 207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박경렬, 1991), 가정이 사회적 상승주의, 물질 지향주의 혹은 전통주의 중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폐쇄적이거나 혹은 친애적이거나 거부적이거나 하는 것 또한 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무관하였으나 성취지향적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점은 그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덕성 발달수준은 Kohlberg 이론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였다).

서울시내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판단수준과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환경을 가정의 물리적 조건,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정의 집단성격, 가정의 심리적 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왕은숙, 1989)에 따르면, 가정의 물리적 환경수준(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가옥의 크기, 내부의 문화시설, 경제적 지위 등)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도덕성 판단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출세지향적이나 물질지향적이나 전통주의를 지향하느냐 하는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학생의 도덕성 판단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집단성격과 도덕성 판단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응결력이 높은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월등하게 도덕성 판단수준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가정의 심리적 과정과 도덕성 판단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성취, 자율 요인과는 관계가 없었고, 친애, 개방 요인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개방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폐쇄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월등하게 도덕성 판단수준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2) 지도방안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모 자신의 생활태도를 점검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첫째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의 감시자이다. 자녀들 앞에서는 행동,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녀는 부부가 만든 사랑의 사닥다리를 타고 성장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의 정도는 자녀교육에 큰 영향을 주므로 우선 부부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한가?,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가?’하는 점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자녀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될 뿐이다.

가족간의 페어 플레이 가족간의 페어 플레이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정의(正義)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편하게 누워 있고 아내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가정 안에서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든 자녀든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도록 한다.

인내심을 길러야 도덕성 발달에 필요한 경험 중의 하나는 자기통제력을 기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달라고 자녀가 조르는 경우 곧바로 사주지 말고 “네 스스로 돈을 모아보렴.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도와주마”라고 말

해 본다든지,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을 음식 만드는 과정에 참여시켜 보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기의
도덕성** 이 문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도덕적 민감성 vs 현실적 삶’이라는 문제이다. 청소년기는 도덕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다. 부모들이 현실에 너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부모들의 삶의 논리를 거부, 혐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수긍할 만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부모의 가치지향성, 특히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보여주는 태도, 행동이 중요하다. 두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도덕적 자율성 vs 규율’의 문제이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이유기로서 생활 속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아직 도덕적 규칙들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능한 자율성을 허용하되 꼭 지켜야 할 최소의 규칙에 대해서는 엄정한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이 최소의 규칙은 가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입시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욕구들은 입시가 끝나고 난 뒤로 미룰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부모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의 폭넓은 대화에 힘써야 한다.

**이기적인
자녀들을
지도하는
방법** 한편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곤 한다. 자녀가 이기적인 경우의 지도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른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첫번째로 꼽고 있다. 특히 친구나 친척집에서 자고 오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집에 가서 자게 하기도 하고 그 친구나 친척을 집에 와서 자게 하기도 하면서 같은 방, 같은 물건을 함께 사용하도록 해보자. 때때로 캠핑에 참가시켜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도 좋겠다.

가족들과의 공동생활에서 가능한 지도방법은 집에서도 일을 시키는 것이다. 자녀에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도 시켜보자. 어른들이 다 하고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을 조금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나이에 따라 부모가 해왔던 일을 분담해서 하도록 한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학교와 같은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불우한 이웃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봉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도 있다. 분명 자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남을 돕는 가운데 ‘나누는 삶’의 기쁨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인간사회라는 것은 이기적 존재의 병존임을 인식시킨 뒤,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것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됨을 알게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전자는 동료애, 단체정신의 체득을 통해, 후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타인을 고려하도록 교육시키면 그렇게 교육 받은 아이가 많이 다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고통을 부모들이 함께 감수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들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잘못된 행동들에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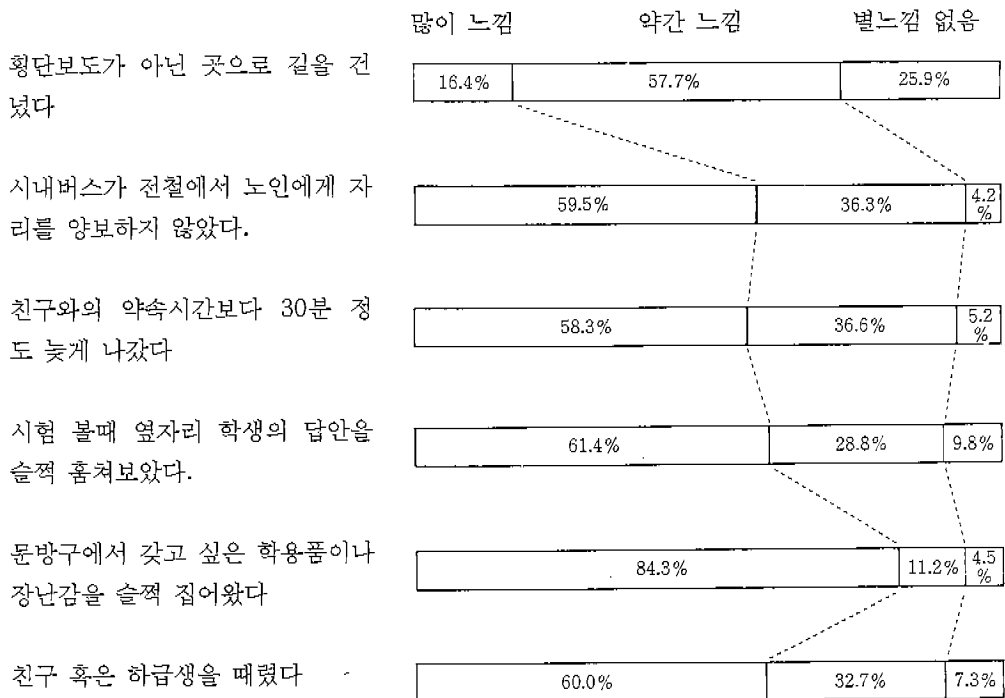
1) 실태조사결과

본 설문에서는 사회에서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어서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6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슬쩍 집어 왔다’는 문항에 대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84.3%), 다음으로는 ‘시험을 볼 때 옆자리 학생의 답안을 슬쩍 훑쳐 보았다’(61.4%), ‘친구 혹은 하급생을 때렸다’(60.0%)의 문항에 대하여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약속시간보다 30분정도 늦게 나갔다’의 문항에 대하여는

각각 59.5%, 58.3%의 학생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적었는데(16.4%), 이 문항에 대하여는 ‘별느낌없다’는 응답도 25.9%나 되어 학생들이 무단횡단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그림 9〉 당신은 위의 상황에 처할때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니까?(청소년)

* 선행연구결과 개관

서울시내의 국민학생 15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도덕적 판단능력과 도덕적 행동점수를 알아본 결과(송숙자, 1988), 양자 사이에 의미있는 관련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도덕적 판단능력 및 도덕적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덕적 판단능력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도덕적 행동과는 상관이 있었다. 즉 가정의 심리환경이 좋을수록 도덕적 행동은 좋으나 도덕적 판단능력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전체 자녀의 도덕적 판단능력간에는 의미있는 상관이

없었으며 단지 고등학생 자녀에서만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도덕적 행동간에는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학급별로 보면 중학생 자녀에서만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지도방안

**도덕적
감수성을
일깨워야** 요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무디다.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량·성장 위주의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물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부모들은 현대 사회의 이러한 단점을 인식하고 자녀들의 감수성이 깨어나도록 하는데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감수성’ 문제는 단지 도덕성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녀의 감수성은 작은 풀잎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깨울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도움이 될 것이다. 화초를 함께 가꾼다거나 금붕어를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벌을 주자 가정에서 자녀가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벌을 주어야 한다. 잘못된 일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상당히 아픈 벌을 주어야 한다. 어릴수록 엄한 체벌이 효과가 있는데 체벌을 할 때에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벌은 시간이 좀 지난 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네델란드에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체벌을 하지 않고 교장이 모든 벌을 준다고 한다. 중학교 이상은 체벌이 효과가 없으므로 힘든 일을 하게 하는 등 다른 벌이 나올 것이다. 벌을 줄 때에는 억울하지 않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게 한 후 벌을 주어야 한다. 잘못을 깨닫게 하는 벌은 고문이다.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자** 어겨도 되는 규칙은 준법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자녀지도에도 혼란을 가져오므로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자녀와 함께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규칙을 정한 후에는 — 사회에서는 용인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 꼭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위반한 경우에도 자식들에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모습—괴로워한다든가 배상하는 모습 등—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해서 딱지를 뽐 때에도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없다고 해라”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부정에 대해서 부모들이 화내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녀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자존심이 있는 아이들은 쉽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 밖에 때때로 자녀가 도덕적인 양심과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원칙과 가치의 위계체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universal value)은 분명히 해야 하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을 주어야 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양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꼭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반론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의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인 ‘하인즈 딜레마’를 예로 들어보자. 아내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현실과 도둑질을 하면 안된다는 도덕적 양심 사이의 갈등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이야기 전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하인즈 딜레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유럽에서 어떤 부인이 치명적인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 병은 일종의 암이다. 의사들이 보아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약이 한가지 있다. 그 약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느 약제사가 최근에 발견한 어떤 형태의 라듐이다. 그 약의 생산가는 아주 높았다. 그래서 그 약제사는 약을 만드는 데 든 총비용의 열 배 정도인 2000불을 그 약의 값으로 매겨 놓았다. 부인의 남편인 하인즈는 돈을 빌리기 위해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을 찾아 다녔지만 겨우 1000불을 구하는 데 그쳤다. 약제사에게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약의 값을 좀 싸게 해서 팔든지 아니면 나머지 돈을 외상으로 해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약제사는 “안됩니다. 나는 약을 만든 사람이고 그 약을 팔아 돈을 좀 벌 참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하인즈는 절망한 나머지 아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약을 훔칠 셈으로 약방

을 털었다(김봉소, pp. 48-49).

이때에는 아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원칙보다는 ‘생명의 소중함’이 더 중요한 가치이며 이 이야기에서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실제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문제 및 관련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을
지녀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포기해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아주 소중한 것일 경우이다. 이때에는 현실의 이익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보다는 부모가 현실 논리의 지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먼저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 것인지를 부모 자신들부터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의
대화도
주의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들이 평소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일상대화에서 도덕적인 사람을 비하해서 말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자녀에게는 모범답안적인 훈계를 하면서 부부끼리, 어른들끼리의 대화에서, 또 자녀와의 대화 중에서도 일상대화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을 현명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부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둘째 삼촌은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에요. 요즘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한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부모의 언행 역시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편법을 쓰는 자녀들 또 자녀들이 숙제를 할 때 사전을 찾지 않고 참고서를 베끼거나 해답을 보고 문제집을 풀어가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 결실을 얻으려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량·성장 위주의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부모들의 태도와 과중한 학업량이 맞물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편법주의가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법주의의 해악 먼저 자녀로 하여금 편법주의의 문제점, 해악 등을 생각하게 한다. 편법을 써서 과제를 해 내었을 경우에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UN)에 대해 조사해 오기’와 같은 과제가 주어지면 참고서를 보고 베끼가는 학생과 사전을 찾아서 해 가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전을 찾아서 하는 학생이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두 학생이 공책에 적어가는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녀는 물론 부모들도 알아야겠다. 참고서를 보고 써 간 학생들은 단지 국제연합에 대한 지식만을 얻었을 것이다. 사전을 찾아서 해 간 학생들은 국제연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식은 물론 사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사고력에서 나타난다. 참고서를 본 학생은 이 과제를 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참고서를 보고 그냥 베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전에서 국제연합에 대한 내용을 찾은 학생에게는 생각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전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는 없다. 요약할 해야 하는 것이다. 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 읽은 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어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고력을 키워 나가게 된다.

과정을 평가해주는 편법주의의 해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있어 손쉬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므로 과정에서의 태도를 중간중간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성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발전이 보이면 격려를 해 준다거나 원리원칙대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한다.

성취감을 느낄수 있는 경험제공 성취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들에게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휴가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짜고 같이 준비해 보면 좋을 것이다. 부모의 프로그램에 자녀를 끼워넣지 말고 함께 프로그램을 짜라. ‘아이들의 몫’을 줄 필요가 있다.

성적만으로 따지지 말아야 성적만 잘 받아오면 된다는 부모들의 태도는 자녀들의 편법주의를 부채질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성적표만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 한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네가 정말 그만큼의 실력이 되는거니?”라고, 성적이 나빠도 “네가 실력만 쌓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과제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자녀가 좋아하는 몇 과목에 한해서 원칙대로 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자녀에게 부과되는 과제의 양이 적정한지도 따져보아 구조적으로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부모와 자녀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의 대처방안

1) 실태조사결과

①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②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③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④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⑤ 교과외 클럽/써클활동을 하는 일, ⑥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일 등의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는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③과 ④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밖의 상황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특히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이라든지, 장래직업을 선택하는 일의 경우 청소년의 입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집단과 학부모집단의 응답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학부모집단의 경우 청소년집단에 비하여 학부모 자신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집단의 경우 학부모집단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집단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54〉 다음 사항에 대해 자녀와 부모의 의견이 다를 때 결국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내 용	청 소 년	학 부 모	χ^2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92.9	89.2	8.25*
이성 친구를 사귀는 일	80.0	62.1	41.10***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29.5	15.4	30.34***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43.8	29.5	36.24***
교과외 클럽/씨클활동을 하는 일	85.6	76.3	44.31***
장래직업을 선택하는 일	95.2	89.3	13.41***

* $P < 0.05$ *** $P < 0.001$ 에서 유의미

* 선행연구결과 개관

이 연구(엄경란, 1989)는 서울시내 중학생 450명과 그들의 부모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생·학부모간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 가치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항목(단란하고 편안한 가정)이나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항목(나라를 좌우할 만한 권력)은 학생·학부모가 일치하고 있으나 각 가치영역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개의 궁극적 가치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건강한 상태가 지속되는 장수」, 「정신·육체적으로 성숙된 사랑」 등에 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학생들은 부모에 비해 「과업의 성취」, 「만민평등」, 「자유·자주」, 「나라를 좌우할 만한 권력」, 「순수한 우정」, 「슬기로운 삶」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특히 「순수한 우정」, 「만민평등·기회균등」, 「자유·자주」 등의 항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수단적 가치문항 중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문항은 「성실한·정직한」 생활 태도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항목은 「이지적인」 생활태도 였다. 18개의 수단적 가치문항 중 학생과 학부모간에 가치관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7개였는데,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가치를 둔 항목은 「야망있는」, 「성실한」, 「예의바른」, 「책임감 있는」, 「자제력 있는」 이었고, 「명랑한」, 「남을 잘 돕는」에서는 학생들이

학부모보다 더 가치를 두었다. 특히 「명랑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개인적이고 수양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데 반해 학생들은 남을 돕는 생활, 명랑하게 사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성별, 학생의 성별에 따른 상호차이를 살펴보면 「명랑한」, 「남을 잘 돕는」 행동양식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그들의 아버지들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었고, 「이지적인」, 「책임감 있는」, 「자제력 있는」 문항에서는 아버지들이 더 가치를 두었다. 여학생과 아버지 사이에는 6개의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한 수단적 가치는 「야망·포부가 큰」, 「자신을 믿는」, 「책임감 있는」 행동양식이었고 여학생들이 더 가치를 둔 행동양식은 「명랑한」, 「깨끗한」, 「다정한」 등의 문항들이었다. 어머니와 남학생간에 차이가 나는 항목은 8개나 되었는데 남학생들은 「명랑한」, 「용감한」 생활태도를 중시하는 반면 어머니들은 「성실한」, 「순종하는」, 「예의바른」, 「책임감 있는」, 「자제력 있는」, 「깨끗한」 생활태도를 더 중시하였다. 여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들간에 차이가 나는 항목은 5개로 어머니들은 「예의바른」, 「성실한」,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를 더 중시하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명랑한」, 「깨끗한」 생활태도를 더 중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성별과 학생의 성별을 짝지워 상호비교해 본 결과 동성의 부모보다 이성의 부모와 더 많은 문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지도방안

청소년기는 일차적으로 책망을 하기 이전에 부모가 이해심을 갖고 수용적인 태도를 부모로부터 보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다. 청소년기 독립하려는 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심리가 강한 때이다. 이런 자녀에게 “너는 틀렸으니 나같이 되라”라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개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은 없이 부모의 의견대로만 쫓아서 하는 아이들은 의존적인 아이가 되기 쉽다. 독립하려는 청소년이 건강한 것이다. 부모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자녀의 의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적어도 갈등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인정은 하되 이견으로 인한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 “너도 이제 다 컸구나. 하지만 이 일은 나와 생각이 같기를 바랬었는데…….”라는 말에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특별한
가치는
구분해야

그러나 기본적 도덕률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굽히지 말
고 확고하게 주장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와 특별한 가치를 구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치에 관련된 문제는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보편적 가치에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 머리모양이나 옷모양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지만 자녀가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야단을 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은 겉으로 드러난 자녀의 모습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
가 많다.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시시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아이들이 가출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시시한 것을 가지고 부모들
이 야단쳤을 경우이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야단을 쳤을 때에는 가출하지
않는다.

일관성을
기해야

부모가 지도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각 자의 기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일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을 확고하게 주장해야 한다.
기본적인 도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힐 때에는 사안에
따라 부모 혹은 자녀의 의견을 따른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특정한 사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에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숙고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합의가 되면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자
녀가 자신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모대상 교육자료인 가정지도편람(Ⅱ)의 내용편성 기준과 집필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의 분석과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기초로하여 가정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을 크게 ① 인간관계지도, ② 생활습관지도, ③ 성교육, ④ 문제행동지도, ⑤ 진로지도, ⑥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지도상의 관심과 논쟁을 제기하기 쉬운 주제들을 선별해서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대도시의 청소년과 학부모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1절) 이에 따라 나타나는 청소년 가정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며(2절), 끝으로 오늘날 청소년기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변화와 적응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본 연구가 시사해 주는 바를 밝혀보고자 한다(3절).

1.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각 영역별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관계지도

실태	지도방안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청소년 가정지도는 현재 대부분 부모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또 부모가 공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가계책임이나 가정질서유지를 담당

실 태	지 도 방 안
동으로 담당하기를 청소년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부와 모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일, 가정질서를 유지 시키는 일, 자녀의 사회, 직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일 등을, 어머니는 살림을 꾸리고 자녀의 학습과 생활습관지도와 일상문제에 대해 대화 하는 일 등을 각각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가정내 의사결정에 자녀의 의견반영 정도 가정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6가지 사항(TV채널선택, 식단결정, 종교생활, 이사계획, 휴가계획, 가구매치)에 걸쳐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청소년의 의견 반영정도를 물어본 결과, 집의 이사문제를 제외한 모든사항에 대해 50% 이상의 응답자가 청소년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하거나 다소 반영하는 등,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무모와 청소년 두 집단의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6가지 전 영역에 걸쳐 청소년들은 부모들에 비해 자신의 의사가 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반면에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생각 하는 것 보다 자녀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이 나타난다. ○ 형제간 다툼에서의 부모의 입장 요즈음 부모들은 싸워도 간섭하지 않는 경우(1.3%)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형이나 아우 가릴 것 없이 똑같이 꾸짖거나(51.	하고 청소년들에게 독립심, 책임감을 보여주고 키워줄 수 있는 역할, 어머니는 가정생활을 꾸미고 가족내 유대와 협동을 이끌어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서와 협동심을 배우게하는 역할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대적 상황과 개별적인 가정적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겠으나 둘 중의 한 사람은 강하게 다른 한 사람은 부드럽게 처신함으로써 인간관계에 있어서 강온의 조화와 자립심과 협동심의 조화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가족내의 소속감과 가정문제에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자녀 본인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는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녀가 성숙할수록 더욱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일단 그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게 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고 그 후에는 부모가 공평한 자세로

실 태	지 도 방 안
.2%), 잘못된 사람을 꾸짖음으로써(27.1%) 어떤 형태로든 중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형이 양보하거나 동생이 양보(6.5%)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보다 잘못된 사람이 양보(82.3%)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기준으로 형제간의 서열보다는 행위의 잘잘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기에 친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부모들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공부에 방해, 나쁜행동 습득 등)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 부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에 대해 높게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학부모집단 보다 청소년집단이 더 많이 수긍하고 있고 반대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청소년집단 보다 부모집단이 더 많이 수긍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부모들이 청소년보다 친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공평한 자세란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모들이 인식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며 좋은친구를 사귀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보다 우수하고 잘난 친구뿐만 아니라 자녀보다 부족하고 못난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서 협동하고 베풀며 사는 법도 친구관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2. 생활습관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용돈 지급방식 청소년들은 한 달이나 한 주에 한 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청소년(38.7%)보다	자녀의 용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예산작성, 합리적인 소비 등

실 태	지 도 방 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받아쓰는 청소년(47.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하는 용돈 지급방식으로는 ①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액수를 받기를 원하는 청소년(40.4%)이, ②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받거나 (30.3%), ③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기를 원하는(27.1%) 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물품 구매방식 대부분의 품목(학용품, 소설·잡지, 참고서 등)에 걸쳐서 부모가 직접 사다주는 경우보다 알아서 사도록 하거나 함께 가서 사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서 부모가 직접 사다주는 비율이 높은 품목은 음식(간식류 35.5%)과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식(간식류)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걸쳐서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충동구매의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충동구매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음식·소설·의류 및 신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가사활동에의 참여정도 ‘어머니 안 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는 항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59.4%)이 높았고, ‘나의 방 청소 및 정리’(65%)나 ‘쓰레기 버리기’(54.7%) 등은 가끔 한다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간단한 수선(단추 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은 거의 안하는 청소년의 비율(45.7%)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불개기’나 ‘쓰레기 버리기’를 거의 안하는 청소년도 각각 23.7%, 23.6%나 되었으며 ‘자신의 방 청소 및 정리’도 12.8%나 되는 청소년들이 거	에 기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은 자녀의 관리능력에 따라 일주일, 2주, 1달 등으로 하되 학년이 올라가고 경험이 축적되면 기간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한다. 용돈의 액수는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함께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 때 같은 또래 아이들의 대체적인 용돈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품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부모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충동적으로 혹은 아이가 원할 때마다 보다는 자녀와 함께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 자녀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줄 필요가 있다. 돈의 귀중함과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 선택의 의미, 디자인, 유행, 싸게 구매하는 방법 등도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생활 경험들이 교육적이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간단한 자기방 정리 및 청소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하게 하고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해 주었으면 하는 역할들을 제시하고 자녀 각각이 맡을 수 있는 역할, 맡고 싶은 역할 등을 제시하여 같이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가정 일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실 태	지 도 방 안
의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의 방 청소 및 정리’(97.8%)나 ‘이불개기’(93.3%), ‘쓰레기 버리기’(84.9%) 등은 평소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항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고, 거의 안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시간활용 방식 시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 계획에 맞추어 보내는 청소년(3.6%)은 매우 적었고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내거나(45.6%)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청소년(49.4%)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의 시간 계획과 활용에 대해 충고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나머지 30%-40% 부모들은 자녀의 시간관리나 활용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어주어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 사용지도는 자신의 생활을 시간별로 잘 기록하여 분석함으로써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무엇인가 의미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부터 일찍 기상하며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다.

3. 성교육

실 태	지 도 방 안
○ 성교육 경험정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49.1%)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8개 항목별 성교육 경험유무를 물어본 결과에 있어서도 ‘생식기 구조’, ‘임신과 출산’, ‘성병’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청소년이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성교육 항목을 물어본 결과 ‘이성교제’, ‘결혼’, ‘성행위’, ‘성피해	부모들은 자녀가 성의 노예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녀의 성충동 자체를 무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제 할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의 습관을 키워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녀의 수준에 따라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객관적 사실들을 알려주고 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 태	지 도 방 안
방지’, ‘성병’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성행위’나 ‘성병’에 관해 전혀 교육 받아 보지 못한 청소년이 각각 90.2%,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피해 방지’에 관해서도 62.7%나 되는 청소년이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 성교육 담당자 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 모두 청소년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율(부모집단 61.3%, 청소년집단 4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두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부모들보다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서나 친구들로부터 성지식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에 대한 태도 응답자중 82%의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질문하기를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67%가 월경이나 동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으며 60%의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을 비교해 볼 때 부모가 성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성에 대한 생각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시기별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 18가지 항목의 성교육의 내용을 어느 시기에 가르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부모들에게 물어본 결과 중학교 때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율이 높은 항목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을	성교육이란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태도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올바른 성적 정체감을 길러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이들의 성교육의 주체는 가정에서의 부모이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개별지도가 쉽기 때문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통해 아이들 각자가 성역할을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성태도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부터 성에 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알려주어야 할 것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고치고 보다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태도로 자녀의 성교육에 임해야 한다. ○ 국민학생의 성교육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알려주되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 중학생의 성교육 자녀의 성적호기심이 음란비디오와

실 태	지 도 방 안
들고 있었다. ‘월경’이나 ‘생식기 구조’ 등의 내용은 국민학교때 가르쳐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각각 55.3%, 38.9%로 높았고 ‘신체변화’(52.2%), ‘사춘기 정서 변화’(68.5%), ‘성충동’(50.1%) 등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중학교 때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결혼’(50.4%)이나 ‘가족계획’(49.0%) 등은 고교졸업 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자위행위’, ‘성행위’, ‘인공임신중절’ 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20% 가까이 되는 부모들이 아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위의 사항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서적 등 왜곡된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도록 항상 자녀의 상황변화와 생활변화에 관심을 두고 자주 이해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를 하도록 한다. 성인용 비디오들의 간수와 관리에 유의하고 평소 건전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 고등학생의 성교육 분출하는 성적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며 한편으로는 인내,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자위행위, 성병, 임신 등에 관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성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시키며 성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이성관,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다양한 정신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힘쓴다.

4. 문제행동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청소년이 부모님 몰래하는 행동유형과 부모가 가장 염려하는 자녀의 문제행동 16가지 유형의 행동들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몰래 한 적이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전자오락실 출입, 음란물보기, 이성교제의 순으로 응답 한 청소년이 많았으며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일으키는 문제행동들 중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전자오락실 출입, 흡연, 이성교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 문제행동의 심각성 인지정도와 경험빈도의 관계	문제행동 징후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자녀의 다음과 같은 행동변화에 주목한다. - 전화통화가 잦아진다. - 하교시간이 늦어진다. - 외박이 잦아진다. - 외모에 부적 신경을 쓴다. - 부모에 대해 태도가 불손해 진다 등. 초기 문제행동의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 - 지나친 간섭, 의심, 비난을 피하고 관점의 차이를 조정한다.

실 태	지 도 방 안
또한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와 행동경험 빈도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행동을 심각하게 느낄수록 경험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처방안과 이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벌이나 매를 통해 가르치거나(10.4%), 참고 지켜보기(12.9%) 보다는 대화를 통해 지도(73.1%)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이 무조건 혼을 내며 야단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7%나 되었다. 각각의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더니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61.9%) ‘대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도 29.6%나 되었다. ○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견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기 쉬운 가정적 상황으로서 부모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부모 51.7%, 청소년 47.9%)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등을 들었다.	- 자녀에게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도록 한다. - 흡연이나 음주 등은 그 해독을 설명하고 부모가 먼저 술선수범하도록 하며 문제행동의 결과는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자녀에게 인식시킨다. 자녀의 문제행동이 범죄적 양상을 보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잘못에 대한 용서를 너무 빨리 하거나 자녀가 저지른 행동을 무마하고 자 불끄러 다니는 태도 등은 사회적·법적 제제의 효력과 자녀의 정의에 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 피해자에게 부모가 사과하는 모습 보임으로써 자녀가 심리적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도박, 전자오락실출입, 도박, 음란비디오나 서적탐닉, 본드흡입, 유흥업소출입, 폭력 등 유형별 문제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도방안들은 본 보고서 pp. 103~108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고 탈선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부모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자녀로 하여금 가족일체감을 형성하고 부모와 심리적 유대감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기초로 행동에 대한 허용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일관된 태도로 자녀지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진로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진로지도의 시작시기에 관한 견해 청소년집단과 학부모집단 모두 중학교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율(청소년 56.5%, 학부모 45.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국민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집단의 경우, 부모집단 보다 중학교부터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들은 청소년에 비해서 고등학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진로지도시기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들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로지도에 있어서 자녀 적성의 고려 정도와 적성파악방법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직업을 권할 때 그들의 적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어느 정도 고려하여 권유’한다고 응답한 청소년(46.2%)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권유’한다고 응답한 청소년(33.8%)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적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에게 진로지도를 위해 자녀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자녀와 대화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57.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를 통해서 파악’하는 비율(34.1%)이 높았으며 IQ검사나 적성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통해 파악(7.2%)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에 대한 인지정도과 직업정보 획득 방법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응답자의 78.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는 자녀가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장래취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진로지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여건상 중학교 때 부터 가능하다. 진로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자녀의 적성과 자녀의 특성은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애 자녀의 놀이 태도, 습관, 과목 선호도와 성취도, 지속적으로 집중력이 높게 나타나는 과제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흥미와 적성은 자녀 자신의 탐색이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녀와의 대화, 객관적인 검사자료,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등도 자녀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업세계를 탐색할 때 부모와 자녀가 꼭

실 태	지 도 방 안
의 부모들과 55.2% 청소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고 청소년 중 39.8%나 되는 응답자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정보습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직업정보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얻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청소년들은 가정(22.2%), 학교(24.9%), 친구나 선배(24.0%), 서적(25.3%)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부모는 ‘TV나 라디오등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62.0%)이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들이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진학과 취업’사이, ‘이상과 현실적 여건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할 때의 대처방식 청소년이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진학이 어려울 경우’ 부모와 청소년집단 모두 ①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취업, 취업준비등)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부모 66.7%, 청소년 45.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② ‘재수해서라도 대학진학을 하겠다’는 응답자(부모 20.3%, 청소년 32.7%)가 많았다. ③ ‘일단 취업하고 대학진학을 모색하겠다’는 절충적 입장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①의 응답율은 부모집단이 청소년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데 비해 ②의 응답율은 청소년집단이 부모집단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진학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는 청소년에 비해 현실적응을 고려한 수정의 여지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알아 보아야 할 내용은 그 직업이 주는 개인적·사회적 의미, 해당 직업에 필요한 적성, 취업준비과정(교육수준, 훈련과정, 자격요건 등), 경제적 보상수준, 작업환경, 미래전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들이다. 우선 청소년기에는 개별직업 아니면 직업군의 수준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진학이나 취업이나를 결정할 때에는 우선 자녀의 인생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학에 진학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취업에 관한 정보들을 기초로 자신의 자아개념, 흥미와 적성, 가치관, 소망하는 생활방식 등과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자녀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적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자신의 여건을 인정하고 인생목표를 점검하도록 하며 선택직종 등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개성과 여건에 맞는 직업선택을 장려하도록 한다.

실 태	지 도 방 안
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력부족 등으로’, 이상적 직업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의 반응의 차이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즉, ①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제한을 극복하겠다’(52.5%)고 말한 청소년들이 ②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하게 하겠다.(46.4%)고 말한 청소년들 보다 많은반면 부모들은 ②의 응답자(56.2%)가 ①의 응답자(42.5%)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들이 보다 현실적응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도덕성과 가치관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부모들의 충고내용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가장 자주 하는 충고의 내용으로서 ‘학업 및 성적’ 혹은 ‘생활습관’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가장 적게 하는 충고의 내용은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인생의 목적, 가치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하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에 관하여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소에 청소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듣기를 바라는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이나 ‘인생의 목적, 가치관’에 관한 충고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녀의 도덕성 및 가치관 지도를 위해서 부모들이 평소 유념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꼭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후 부모부터 모범을 보일 것 —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심을 일깨워 줄 것 — 원칙과 가치의 위계체제를 제시하여 중요한 원칙과 가치 우선으로 지켜나가도록 할 것 —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원리원칙대로 성실히 수행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 것 — 부모부터 현실논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 등

실	지 도 방 안
○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6가지 비도덕적 상황중에서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슬쩍 집어 왔다’는 문항에 대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84.3%), 다음으로는 ‘시험을 볼 때 옆자리 학생의 답안을 슬쩍 훑쳐 보았다’(61.4%), ‘친구 혹은 하급생을 때렸다’(60.0%)의 문항에 대하여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나갔다’의 문항에 대하여는 각각 59.2%, 58.3%의 학생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적었는데(16.4%), 이 문항에 대하여는 ‘별 느낌없다’는 응답도 25.9%나 되어 학생들이 무단횡단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모-자녀간 의견 대립시 대처방안 ①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②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③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④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⑤ 교과외 클럽/씨클활동을 하는 일, ⑥ 장래직업을 선택하는 일 등의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③과 ④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밖의 상황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 집단과 청소년	컨닝을 한다든지, 차가 없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넌다든지, 약속시간에 예사로 늦는다든지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도덕적 불감증’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도덕적 감수성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것은 성인이, 집에서는 부모가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무디어진 청소년의 감수성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모 자신부터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타인을 고려할 줄 모르고 친구를 이해한다거나 친구와 협동할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에게는 공동체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개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교양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상이한 신념, 가치기준 등으로 인해 자녀와 충돌하게 될 때 부모가 지녀야 할 태도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고 특별한 가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옷을 입는 방식, 머리모양, 음악에 대한 취향 등 각자의 기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들일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실 태	지 도 방 안
집단은 각각 자신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가정지도의 문제점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자녀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자녀간의 입장과 시각에 있어 불일치와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가정내의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며, 또 의견이 대립될 때도 부모와 청소년들은 각각 자신들의 의사가 좀 더 고려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룰 때 다루는 자녀를 모두 꾸짖음으로써 싸움을 중재하는 한편 청소년들은 잘못된 사람을 꾸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친구의 영향에 대하여는 청소년보다 학부모들이 자녀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에 수긍하는 경향이 높았다. 넷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지적해 주며 대화로 지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무조건 화내며 야단친다고 느끼거나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었다.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력의 부족으로 이상적 직업선택이 어려운 경우 부모들은 현실상황을 고려해서 자녀가 진로를 수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현실의 제한을 극복해 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2. 청소년들이 필요로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교육과 진로지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응답자의 절반가량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전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병’이나 ‘성피해방지’, ‘성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볼 때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종과 직업세계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매우 적었고, 응답자의 39.8%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은 평소에 부모로부터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충고를 듣기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내용의 충고는 학업이나 성적, 생활습관 등의 부분 등에 비하여 부모들이 가장 적게 충고하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수행해야할 책임이 면제되어 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의 방 청소 및 정리’와 ‘이불개기’, ‘쓰레기 버리기’ 등은 평소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항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고 또 거의 안하는 청소년들도 각각 전체 응답자의 12.8%, 23.7%, 23.6%나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의 간단한 수선은 평소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5.3%나 되었고 실제로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이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획을 세워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적응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와 적응의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자녀와의 시각차이 극복을 위한 자녀이해의 증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시각의 불일치는 세대차나 서로 살아가는 과정과 상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할수록 쌍방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입장과 관점을 무시한 채 권위만을 주장할 경우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서 소개된 조사결과들이 시사해 주듯이, 청소년은 부모와는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

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은연중에 자녀를 어른의 축소물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자녀들도 권리를 추구하고 독자적 삶의 한계를 형성해가는 개별적 인격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자신의 잣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자신의 틀에 맞추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자녀 지도 능력의 함양

청소년들이 지도 받기를 원하는 성교육이나 진로지도가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교육내용과 발달과업 등에 관한 부모의 관심과 이해의 부족, 필요한 부분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모의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부모의 능력과 자질의 부족에서 그 주요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교육담당자인 부모들의 역할이 전문적 교육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가정도 무의도적인 비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못지 않게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수록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교육의 일차적 담당자인 부모의 교육적 능력과 자질도 자녀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장 단계별, 시기별로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알고 이해하는 일, 또 관련 지식과 지도기법을 습득하는 일 등이 부모들에게 요청되는 능력과 자질의 중요 요소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부모의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단계별 지도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자녀지도 만큼은 그 어떤 전문가 못지않게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부모상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성장을 같이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자녀교육관의 확립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정교육을 통해 갖추고 배워야 할 자세와 일들의 많은 부분이 면제되고 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직면해 있는 입시부담과 공부압력 등의 오늘날의 교육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현실을 수용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수행할 역할과 책임을 유예시키고 눈감아 주는 부모들의 태도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부모들의 교육관과 자녀상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 졸업 후에는 출세한 성공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추구하는 자녀상이며 교육의 목표로 자리잡아 왔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창시절을 거처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쏟지 못해 왔었다.

출세지향적 교육관은 경쟁심리와 이기심을 부추기고 삶에 필요한 협동심과 책임의식을 기르는데 소홀히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지적 수월성만이 교육적 가치로 학교와 가정에서 강조됨으로써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질이 계발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리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팽배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제대로 키우질 못해 왔다. 이제 부모들의 자녀상과 교육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획일적 교육관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개성과 자질을 찾아 스스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며,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의식, 협동심의 함양과 함께 현재의 출세지향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녀상과 이에 걸맞는 교육관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공부 때문에 면제되어왔던 자녀의 역할과 책임도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환,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고영분, “고등학교 학생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1.
- 권기숙,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권연희, “아버지의 역할과 그에 대한 자녀들의 기대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경란,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관식, “부모·자녀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남선,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사계절, 1992.
- 김노영,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농주, 「자녀의 진로교육」, 도서출판 책, 1992.
- 김봉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9.
- 김영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현황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영순, “중등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바라는 역할기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옥렬,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외숙, “가족 레크레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77.
- 김인자,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재인 외, 「고등학교 여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2.
- 김재홍, “아동·교사·학부모의 성의식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정택, “중학생 학부모의 자녀 고교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1987.
- 김중희, “주거환경과 아동의 교우관계”,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진석,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와 관련요인”,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김진웅, “국민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인식 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관동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춘원, “아동과 학부모의 진로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1988.
- 김홍균,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환부, “부모의 직업유형이 청소년 윤리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김희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부모 및 동료집단의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7.
- 김희정, “직업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희주, “서울 시내 초중학생의 생활규칙의 수행상태와 생활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4.
- 대한가족계획협회, 「상담내용 분석 및 사례연구」, 1990.
-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성문제 예방 심포지엄」, 1990.
- 듀이, J.,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2.
- 문병찬, “고등학생들의 경제적 태도형성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문채룡, “초·중학생들의 직업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문현선, “청소년 소비자의 TV광고 판별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박경렬,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도덕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박길현, “아버지 역할에 대한 남자고등학생의 의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4.
- 박남규,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교사, 부모의 의견차이에 관한 연구”, 1991.
- 박미자, “부모의 태도와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7.
- 박성수,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박승호,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외 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박용권,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학생, 학부모, 교사의 지각차”,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박은실, “출생순위에 따른 인성특성에 대한 연구”,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989.
- 박준희 외 3인, 「성교육」, 교육출판사, 1989.
- 박향숙, “아동의 여가활동과 어머니의 여가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서경숙, “부모의 훈육방식 및 가정 결속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1985.
- 서석근,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 여학생생활교육원, 「성교육 사례집」, 1986.
- 서울 YMCA,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1990.
-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성교육 교사 강습회 자료집」, 1993.
- 송숙자, “도덕적 판단능력과 도덕적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스포크, B., 박순광 역, 「청소년교육」, 정음문화사, 1989.
- 심상문, “중학생의 학급내 교우실태와 교우관계 형성요인 연구”, 한국교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안은자, “여학생을 통해 본 취업모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양정국,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과 불량집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양재호, “도시 및 농촌 학부모들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엄경란, “중학생과 그들 부모의 가치관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오두경, “고등학교 남학생 비행집단과 정상집단 간의 교우관계 비교”,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왕은숙, “고등학교 학생의 도덕성 판단과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유병규, “청소년의 소비에 관련된 태도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5.
- 윤삼열, “일(직업)에 대한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 논문, 1988.
- 이경숙, “대중매체가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이계숙, “아동 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계화, “중·고등학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이영덕 외, 「중·고등학생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종단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연구소, 1991.
- 이영주, “중학생의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85.
- 이옥철, “서울 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학부모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이은정,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이재구,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재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이태호, “청소년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현우, “부모, 교사, 전문가가 보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차이”,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이화연,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돌베개, 1991.
- 이희원, “음악감상 교육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여성국 편저, 「성교육 교과서」, 동지 1990.
- 전병재,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전풍자,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실태 조사”, 대한 YMCA연합회, 1987.
- 정재걸,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Ⅲ)－학생들의 삶과 문화편」, 한국교육개발원, 1992.
- 정정숙, “중고등학생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정진화, “청소년 소비자 지식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1985.
- 정한선, “중학생의 가사노동 참여도에 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우석, 1987.
- 조성호,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5.
- 조재명, “여자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 탐색”,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1981.
- 조재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지글러, G. 이한주 역, 「자녀교육 기초부터 완성까지」, 전영사, 1988.
- 차경수, “청소년 교육환경의 실태와 개선안”, 현대사회연구소, 「청소년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983.
- 채정애, “청소년의 용돈관리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와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청소년문제연구소, 자녀와 자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1989.
- 최순희,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최영애, “도시주부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의사결정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최영애,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따른 정상-비행청소년의 가치관 비교조사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4.
- 콜버그, 김봉수·김민남 역, 「도덕 발달의 철학」, 교육과학사, 1985.
- 하임 기너트, 부모와 십대의 사이, 증로서적, 1987.
- 한경희, “중등학생의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서」, 1985.
- 한국교육개발원, 「자녀의 길 부모의 지혜」, 1986.
-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7.
-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Ⅰ)(Ⅱ)」, 1990.

한국청소년연구원 편저, 「지금 태의 아이는」, 한샘, 1991.

한명희,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에 관한 고찰”,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0.

한미현, “형제자매 구조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행동에 따른 형제자매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한소연, “일반계 남녀 고등학생의 직업의식에 대한 비교 조사연구”, 1989.

한종국, “부모의 훈육, 자녀의 성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홍기형, “자녀의 진로지도”,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자녀의 진로지도」, 1992.

홍세정, “청소년의 여가생활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홍영희, 「새부모교육」, 학문사, 1992.

Felson, R.B & Russo, N., Parental Punishment and Sibling Aggress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pp. 11-18, 1988.

청소년용

청소년가정지도에 관한 실태 및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의 가정지도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지도에 있어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각 문항을 끝까지 잘 읽으시고 문항마다 제시된 응답요령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본 자료는 연구 이외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137-130)

TEL. 578-7924/7925

*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은 아래의 일들을 누가 주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모두	기 타
(1)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2) 필요한 물품을 사 주신다.				
(3)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다.				
(4) 학습을 지도한다.				
(5) 생활습관을 지도한다.				
(6) 뉴스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7) 좋은책, 영화, 공연물 등을 추천해 주신다.				
(8) 장래의 직업, 희망학과 등에 관해 조언해 주신다.				
(9) 친구문제,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10) 가정내 질서를 유지한다.				

2. 가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할 때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중요하게 반영한다	다소 반영한다	별로 반영 하지 않는다	전혀 반영 하지 않는다
(1) T.V 채널 선택				
(2) 식단(반찬과 식사)				
(3) 당신의 종교생활				
(4) 집의 이사				
(5) 여름휴가계획				
(6) 집안의 가구배치				

3. 당신은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다음 중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 ___ ① 동생이 양보해야 한다. ___ ② 형이나 누나가 양보해야 한다.
___ ③ 잘못된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

4. 친구가 당신의 생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않 은편이다	전혀그렇 지않다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2)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된다					
(3) 자기 생각보다는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 하게 된다					
(4)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준다					
(5)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을 길러준다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5.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 ___ ①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계속 만난다.
___ ② 부모님 몰래 계속 만난다.
___ ③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해를 구한다.
___ ④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다.

6.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___ ① 자주 있다.
___ ② 가끔 있다.
___ ③ 전혀 없다.

7. 다음의 성교육 항목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주	가끔	없다		자주	가끔	없다
1) 생식기구조				10) 결혼			
2) 신체변화(2차성징)				11) 성행위			
3) 사춘기 정서변화				12) 임신과 출산			
4) 월경				13) 가족계획			
5) 사정				14) 인공임신중절			
6) 성충동				15) 남녀의 역할			
7) 자위행위				16) 성도덕			
8) 성위생				17) 성병			
9) 이성교제				18) 성피해방지(성폭행)			

8. 위의 7번의 18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의 항목을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__, __, __)

9. 다음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에게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어렵다.				
(2) 월경이나 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				
(3) 사춘기때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자위행위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0. 당신은 성에 관한 지식을 누구로부터(혹은 어디에서) 얻기 원하십니까?

- ___ ①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___ ② 학교에서
 ___ ③ 친구들로부터
 ___ ④ 책을 통해서

___ ⑤ 대중매체(TV나 라디오 등)를 통해서

___ ⑥ 기타()

11.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___ ① 한 달 혹은 한 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다.

___ ② 한 달 혹은 한 주에 한번씩 필요한 만큼을 받는다.

___ ③ 필요할 때 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다.

___ ④ 기타()

12.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

___ ②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

___ ③ 필요할 때 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

___ ④ 기타()

12-1. 당신이 위의 용돈지급방식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써 주십시오.

13. 당신은 아래와 같은 물건(상품)을 살 경우 그것을 사야겠다고 미리부터 계획하고 사는 편입니까? 혹은 물건을 보고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는 편입니까?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	물건을 보고 갑자기 사기로 결정한다
(1) 학용품		
(2) 소설책이나 잡지		
(3) 의류 및 신발		
(4) 참고서		
(5) 음식(과자)		

14.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정에서의 여가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어떤 일을 하든지(공부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 ___ ② 학교, 학원 혹은 집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외의 자유로운 시간
- ___ ③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나 가사 일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시간
- ___ ④ 휴식시간

15. 여가시간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일 _____

16. 당신은 다음의 일을 평소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다음의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하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실제로 실행하는 정도		
	예	아니오	항상한다	가끔한다	거의안한다
(1) 나의 방 청소 및 정리					
(2) 쓰레기 버리기					
(3) 식사전 상차리기					
(4)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					
(5) 이불개기(침대정리)					
(6) 마른 빨래개기					
(7)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					

17. 당신은 시간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___ 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계획에 맞추어 보낸다.
- ___ ② 계획을 세우기는 하나 잘 지키지 못하는 편이다.
- ___ ③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
- ___ ④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 ___ ⑤ 기타()

* (18-19) 다음의 문제를 읽고 아래의 응답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8. 당신은 다음 표의 보기와 같은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 보았다면 얼마나 자주 해 보았습니까? 다음의 보기 오른쪽에 표시된 〈경험〉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19. 당신은 다음 보기의 각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심각성의 정도를 보기 오른쪽에 제시된 〈심각성의 정도〉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보 기	18－경험					19－심각성의 정도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전혀 심각 ×	별로 심각 ×	보통	심각	매우 심각
(1) 흡 연										
(2) 무단외박										
(3) 디스코장 출입										
(4) 하급생 구타										
(5) 집단싸움										
(6) 본드흡입										
(7) 음란물 보기										
(8) 이성교제										
(9) 과대치장										
(10) 음 주										
(11) 전자오락실 출입										
(1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13) 당구장 출입										
(14) 돈내기 도박										
(15) 성인영화관람										
(16) 시험 중 부정행위										

_____ ① 없다 _____ ② 있다

1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21.000 22.000 23.000 24.000 25.000 26.000 27.000 28.000 29.000 30.000 31.000 32.000 33.000 34.000 35.000 36.000 37.000 38.000 39.000 40.000 41.000 42.000 43.000 44.000 45.000 46.000 47.000 48.000 49.000 50.000 51.000 52.000 53.000 54.000 55.000 56.000 57.000 58.000 59.000 60.000 61.000 62.000 63.000 64.000 65.000 66.000 67.000 68.000 69.000 70.000 71.000 72.000 73.000 74.000 75.000 76.000 77.000 78.000 79.000 80.000 81.000 82.000 83.000 84.000 85.000 86.000 87.000 88.000 89.000 90.000 91.000 92.000 93.000 94.000 95.000 96.000 97.000 98.000 99.000 100.000

① 무조건 혼을 내며 야단치신다.

②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준다.

③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하신다.

④ 그냥 모른척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

⑤ 위의 행동을 한 적 없다.

⑥ $7|E|$ ()

① 대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② 운이 나빠서 야단맞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③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야단맞게 되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④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다.

⑤ 기타()

①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간에 체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가할 수 있다.

____ ③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체벌은 가장 효과적인 훈육책이 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___ ⑤ 기타()

24. 다음의 어떠한 가정적 상황이 가장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보십니까?

- ___ ①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을 때
 ___ ②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할 때
 ___ ③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___ ④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할 때
 ___ ⑤ 기타()

25. 다음 중 평소에 부모님께서 주로 해 주시는 충고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또 충고해 주시길 바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표 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주로하는 충고내용	충고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
(1) 인생의 목적, 가치관		
(2) 생활습관		
(3) 친구 및 대인관계		
(4)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5) 예의범절		
(6) 학업 및 성적		
(7) 건강관리 및 위생		

26. 당신은 다음 상황에 처할 때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낍니까? 당신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많이느낌	약간느낌	별느낌없음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넜다.			
(2)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3) 친구와의 약속시간보다 30분정도 늦게 나갔다.			
(4) 시험을 볼 때 옆자리 학생의 답안을 슬쩍 훑쳐 보았다.			
(5)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슬쩍 집어 왔다.			
(6) 친구 혹은 하급생을 때렸다.			

27.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당신(자녀)과 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때 결국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사자(자녀)의 입장	부모의 입장
(1)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2)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3)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4)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5) 교과외 클럽/씨클활동을 하는 일		
(6)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일		

28. 가정에서 장래직업에 관한 진로지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학교 전부터
② 국민학교 때부터
③ 중학교 때부터
④ 고등학교 때부터
⑤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⑥ 기타()

29.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장래의 직업을 권유할 때 여러분의 적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보십니까?

- ___ ① 나의 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권유하신다.
- ___ ② 나의 적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여 권유하신다.
- ___ ③ 적성과는 상관없이 권유하신다.
- ___ ④ 특정 직업을 권유한 적이 없다.

30. 우리나라에는 일만 여종이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충분히 알고 있다.
- ___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___ ③ 거의 모르고 있다.
- ___ ④ 전혀 모르고 있다.

31.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얻는다.
- ___ ②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얻는다.
- ___ ③ 친구, 선배들로부터 얻는다.
- ___ ④ 직업에 대한 서적을 통해서 얻는다.
- ___ ⑤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
- 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32. 만약 당신이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대학은 꼭 가야 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가려고 할 것이다.
- ___ ②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취업,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를 선택할 것이다.
- ___ ③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대학진학을 모색해 볼 것이다.
- ___ ④ 기타(_____)

33.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 실력부족 등)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제한요인을 극복하겠다.
- ___ ②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하겠다.
- ___ ③ 기타()

34.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1)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진학시켜야 한다.					
(2)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자보다는 여 자에게 어울린다.					
(3)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평생동 안 사회생활을 하기 원하신다.					

* 다음은 응답자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해당하는 란에 ○표하거나 간단히 기
입해 주십시오.

35. 응답자의 거주지역

_____시

36. 응답자의 성별 ___ ① 남 ___ ② 여

37. 응답자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중 1 ___ ② 중 2 ___ ③ 중 3
___ ④ 고 1 ___ ⑤ 고 2 ___ ⑥ 고 3

38. 응답자의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남 _____여 중 _____째

39. 부모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1) 아버지	①	②	③
2) 어머니	①	②	③

40. 부모의 직업유무

	있다.	없다.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41. 당신은 당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상 ____ ② 중 ____ ③ 하

- 감사합니다 -

학부모용

청소년가정지도에 관한 실태 및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의 가정지도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가정생활 지도에 있어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각 문항을 끝까지 잘 읽으시고 문항마다 제시된 응답요령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본 자료는 연구 이외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137-130)

TEL. 578-7924/7925

*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 자녀가 여러명 있으신 경우는 반드시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를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누가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까?

	아 버 지	어 머 니	부모모두	기 타
(1)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2) 필요한 물품을 사 주신다.				
(3)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다.				
(4) 학습을 지도한다.				
(5) 생활습관을 지도한다.				
(6) 뉴스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7) 좋은책, 영화, 공연물 등을 추천해 준다.				
(8) 장래의 직업, 희망학과 등에 관해 조언한다.				
(9) 친구문제,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10) 가정내 질서를 유지한다.				

2. 당신은 가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될 때 자녀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 하십니까?

	중요하게 반영한다	다소 반영한다	별로 반영 하지 않는다	전혀 반영 하지 않는다
(1) T.V 채널 선택				
(2) 식단(반찬과 식사)				
(3) 자녀의 종교생활				
(4) 집의 이사				
(5) 여름휴가계획				
(6) 집안의 가구배치				

3. 당신은 자녀들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대체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십니까?

- ___ ① 대체로 손위 형제를 꾸짖는다.
___ ② 대체로 손아래 형제를 꾸짖는다.
___ ③ 똑같이 꾸짖는다.
___ ④ 싸워도 간섭하지 않는다.
___ ⑤ 잘못된 사람을 꾸짖는다.
___ ⑥ 기타()

4. 자녀의 친구들이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않 은편이다	전혀그렇 지않다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2)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된다.					
(3) 자기 생각보다는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4)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준다.					
(5)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을 길러준다.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5. 당신의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②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면 이성친구와의 교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③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④ 판단이 서지 않는다.

6. 청소년기 자녀들의 성교육은 주로 누가(혹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부모 ☐ ② 학교(교사) ☐ ③ 책이나 잡지
☐ ④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 ☐ ⑤ 친구
☐ ⑥ 기타(누구:)

7. 당신은 현재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성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별로 아는 바가 없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8. 다음에 관하여 부모님들께서 평소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초경이후 4개월간 월경이 없어도 정상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초경 연령은 12~13세이다.			
(3) 성충동을 느끼는 정도는 남녀가 비슷하다.			
(4) 사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 자위행위는 신체에 해롭다.			
(6) 유방의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정상이다.			
(7) 성기의 크기는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십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10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와 비교할 때 기형아들이 훨씬 많다.			

9.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1)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한다.					
(2) 월경 및 몽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					
(3) 사춘기의 자녀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자위행위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0. 다음의 사항들을 어느 시기에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까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표하여 주십시오.

	국민학교 이 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 후	가르칠 필요없음
(1) 생식기 구조						
(2) 신체변화(2차성징)						
(3) 사춘기 정서변화						
(4) 월경						
(5) 사정						
(6) 성충동						
(7) 자위행위						
(8) 성위생						
(9) 이성교제						
(10) 결혼						
(11) 성행위						
(12) 임신과 출산						
(13) 가족계획						
(14) 인공임신중절						
(15) 남녀역할						
(16) 성도덕						
(17) 성병						
(18) 성피해방지(성폭행,강간)						

	예	아니오
(1) 자녀의 방청소 및 정리		
(2) 쓰레기 버리기		
(3) 식사시간 전 상차리기		
(4)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		
(5) 이불개기(침대정리)		
(6) 마른 빨래개기		
(7)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갈기 등)		

16. 당신은 자녀가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1) 자녀가 정기적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2) 자녀가 세운 시간계획이 적절한 지에 관해 충고해 준다.		
(3) 시간계획을 지키는 지 확인해 본다.		
(4) 자녀가 시간을 계획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결에서 도와준다.		

* (17-18)다음의 문제를 읽고 아래의 응답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7. 당신의 자녀는 다음 표의 보기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보기 오른쪽에 제시된 <경험>란에 ○표 해주십시오.

18. 당신은 다음 보기의 각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심각성의 정도를 다음의 보기 오른쪽에 제시된 <심각성의 정도>란에 ○표 해 주십시오.

	〈보 기〉					〈17-경험〉					〈18-심각성의 정도〉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전혀 심각 지×	별로 심각 지×	보통	심각	매우 심각					
(1) 흡 연															
(2) 무단외박															
(3) 디스코장 출입															
(4) 하급생 구타															
(5) 집단싸움															
(6) 본드흡입															
(7) 음란물 보기															
(8) 이성교제															
(9) 과대치장															
(10) 음주															
(11) 전자오락실 출입															
(1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13) 당구장 출입															
(14) 돈내기 도박															
(15) 성인영화관람															
(16) 시험 중 부정행위															

19. (자녀가 위의 보기에 열거된 행동을 한 가지라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위의 보기에 열거된 행동을 하는 경우,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든지 혹은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 _____

20. 다음 중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쉬운 가정적 상황은 어떠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___ ②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
 ___ ③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
 ___ ④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우
 ___ ⑤ 기타()

21. 당신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별이나 매 등의 체벌을 통해 가르친다.
 ___ ② 매번 잘못의 이유를 설명,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지도한다.
 ___ ③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지켜본다
 ___ ④ 청소년기에는 가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준다
 ___ ⑤ 기타

22. 당신은 자녀의 바른행동 형성을 위해 평소에 자녀에게 아래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충고해 주십니까?

	전혀 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인생의 목적, 가치관					
(2) 생활습관					
(3) 친구 및 대인관계					
(4)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5) 예의범절					
(6) 학업 및 성적					
(7) 건강관리 및 위생					

23. 다음과 같은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자녀와 당신(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의 입장	부모의 입장
(1)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2)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3)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4)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5) 교과외 클럽/써클활동을 하는 일		
(6)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일		

24.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한 진로지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민학교 전부터
☐ ② 국민학교 때부터
☐ ③ 중학교 때부터
☐ ④ 고등학교 때부터
☐ ⑤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 ⑥ 기타()

25. 진로지도를 위해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음 중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 ☐ ①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를 통해서 파악한다
☐ ②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한다
☐ ③ IQ검사나 적성검사 등 검사결과를 통해서 파악한다
☐ ④ 기타()

26. 우리나라에는 일만 여종이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___ ③ 거의 모르고 있다.

___ ④ 전혀 모르고 있다.

27.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대체로 어떠한 방법으로 얻고 계십니까?

___ ① 책을 통해서 얻는다.

___ ②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다.

___ ③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

___ ④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강좌 등을 통해서 얻는다.

___ ⑤ 기타()

28. 만약 자녀가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___ ① 대학은 꼭 가야 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라고 하겠다.

___ ②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취업,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를 권하겠다.

___ ③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진학을 모색해 보라고 하겠다.

___ ④ 기타()

29.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으로 인하여 자녀가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예를들면 경제적 어려움, 실력부족 등)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___ ①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라고 하겠다.

___ ② 현실에 맞게 진로를 수정하라고 하겠다.

___ ③ 기타()

30.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진 학시켜야 한다.					
(2)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자보다는 여 자에게 어울린다.					
(3) 딸도 아들처럼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 을 가져야 한다.					

* 다음은 응답자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해당하는 란에 ○표하거나 간단히 기입해 주십시오.

31. 응답자의 거주지역

_____시

32. 응답자의 성별

_____① 남 _____② 여

33. 응답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34.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① 중졸이하 _____② 고졸 _____③ 대졸이상

35.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떠십니까?

_____① 상 _____② 중 _____③ 하

36.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남 _____녀

37.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_____① 중 1 _____② 중 2 _____③ 중 3

_____④ 고 1 _____⑤ 고 2 _____⑥ 고 3

— 감사합니다. —

부록 3

설문조사 주요결과표〈청소년용〉

1. 당신은 아래의 일들을 누가 주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값: * p(0.05, ** p(0.01, *** p(0.001))

(1)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구 분	아 버 지	어 머 니	부모모두	기 타	통 계 치
성 별 남	62.0	5.7	31.6	0.7	$\chi^2 = 11.2^*$ DF = 3
여	59.7	3.7	36.6	0.0	
교 급 중	56.8	5.3	37.8	0.1	$\chi^2 = 13.1^{**}$ DF = 3
고	65.0	4.0	30.4	0.6	
전 체	60.9	4.7	34.1	0.3	

(2) 필요한 물품을 사주신다.

성 별 남	6.4	50.1	39.4	4.2	$\chi^2 = 8.0^*$ DF = 3
여	4.4	52.3	41.1	2.2	
교 급 중	6.9	52.2	38.0	2.9	$\chi^2 = 9.47^*$ DF = 3
고	3.7	50.2	42.6	3.5	
전 체	5.4	51.2	40.3	3.2	

(3)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다.

성 별 남	26.1	22.5	47.3	4.2	$\chi^2 = 3.0$ DF = 3
여	24.0	25.4	47.4	3.1	
교 급 중	23.6	25.6	48.6	2.2	$\chi^2 = 12.5^{**}$ DF = 3
고	26.7	22.1	46.1	5.1	
전 체	25.1	23.9	47.4	3.6	

(4) 학습을 지도한다.

성 별 남	16.2	26.7	33.6	23.6	$\chi^2 = 12.3^{***}$ DF = 3
여	10.7	27.9	39.5	21.9	
교 급 중	15.1	30.5	30.8	23.6	$\chi^2 = 22.5^{***}$ DF = 3
고	11.8	23.9	42.5	21.7	
전 체	13.5	27.3	36.6	22.7	

(5) 생활습관을 지도한다.

성 별 남	17.1	31.4	46.6	4.9	$\chi^2 = 44.4^{***}$ DF = 3
여	7.2	38.8	51.8	2.2	
교 급 중	14.3	37.4	45.7	2.6	$\chi^2 = 15.4^{**}$ DF = 3
고	9.9	32.8	52.9	4.5	
전 체	12.1	35.1	49.2	3.5	

(6) 뉴스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성 별 남	42.3	9.3	32.6	15.9	$\chi^2 = 23.3^{***}$ DF = 3
여	32.8	11.6	43.0	12.6	
교 급 중	40.5	10.5	35.2	13.7	$\chi^2 = 6.1$ DF = 3
고	34.6	10.3	40.5	14.5	
전 체	37.6	10.4	37.9	14.1	

(7) 좋은 책, 영화, 공연물 등을 추천해 주신다.

성 별	남	14.9	20.8	30.6	33.7	$\chi^2 = 18.2^{***}$
	여	10.6	23.7	38.6	27.0	DF = 3
교 급	중	13.9	26.5	29.7	29.9	$\chi^2 = 24.0^{***}$
	고	11.5	17.9	39.8	30.8	DF = 3
전 체		12.7	22.3	34.7	30.3	

(8) 장래의 직업, 희망학과 등에 관해 조언해 주신다.

성 별	남	27.7	12.9	48.3	11.1	$\chi^2 = 46.2^{***}$
	여	13.8	14.5	61.7	10.0	DF = 3
교 급	중	18.8	16.9	55.4	8.8	$\chi^2 = 17.5^{***}$
	고	22.5	10.4	54.9	12.2	DF = 3
전 체		20.6	13.7	55.2	10.5	

(9) 친구문제,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성 별	남	8.4	40.4	33.8	17.4	$\chi^2 = 53.1^{***}$
	여	1.6	54.8	29.4	14.1	DF = 3
교 급	중	5.4	49.7	29.1	15.7	$\chi^2 = 4.1$
	고	4.7	45.7	33.9	15.8	DF = 3
전 체		5.0	47.7	31.5	15.8	

(10) 가정내 질서를 유지한다.

성 별	남	36.3	11.6	49.0	3.1	$\chi^2 = 42.6^{***}$
	여	21.2	13.3	63.1	2.5	DF = 3
교 급	중	26.1	14.8	56.0	3.1	$\chi^2 = 11.0^*$
	고	31.5	10.0	56.1	2.4	DF = 3
전 체		28.8	12.4	56.0	2.8	

2. 가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할 때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1) T.V 채널 선택

구	분	중요하게 반영한다	다소 반영한다	별로반영 하지않는다	전혀반영 하지않는다	통 계 치
교 급	남	23.8	54.1	18.2	3.9	$\chi^2 = 5.0$
	여	25.7	56.5	15.1	2.6	DF = 3
교 급	중	20.4	56.7	19.3	3.7	$\chi^2 = 19.0^{***}$
	고	29.1	54.2	13.9	2.8	DF = 3
전 체		24.7	55.5	16.6	3.2	

(2) 식단(반찬과 식사)

성 별	남	26.5	46.4	21.5	5.6	$\chi^2 = 24.0^{***}$
	여	28.0	54.6	15.2	2.2	DF = 3
교 급	중	25.6	49.0	21.4	4.1	$\chi^2 = 10.1^*$
	고	29.0	52.1	15.1	3.7	DF = 3
전 체		27.3	50.5	18.3	3.9	

(3) 당신의 종교생활

성 별	남	28.4	18.7	26.0	27.0	$\chi^2 = 12.0^{**}$ DF = 3
	여	34.3	21.4	23.6	20.7	
교 급	중	31.4	18.5	24.6	25.4	$\chi^2 = 3.5$ DF = 3
	고	31.3	21.8	24.8	22.2	
전 체		31.3	20.1	24.7	23.8	

(4) 집의 이사

성 별	남	11.0	25.8	32.3	31.0	$\chi^2 = 34.2^{***}$ DF = 3
	여	15.6	28.8	37.5	18.1	
교 급	중	16.0	24.0	34.1	25.9	$\chi^2 = 16.2^{**}$ DF = 3
	고	10.4	30.9	35.7	23.0	
전 체		13.3	27.4	34.9	24.5	

(5) 여름휴가계획

성 별	남	19.5	35.6	28.4	16.5	$\chi^2 = 29.2^{***}$ DF = 3
	여	26.3	41.3	23.3	9.2	
교 급	중	25.0	36.4	24.6	14.0	$\chi^2 = 7.0$ DF = 3
	고	20.8	40.7	27.0	11.5	
전 체		22.9	38.5	25.8	12.8	

(6) 집안의 가구배치

성 별	남	13.5	43.9	25.1	17.5	$\chi^2 = 54.0^{***}$ DF = 3
	여	22.1	47.5	23.9	6.4	
교 급	중	19.5	40.3	25.0	15.2	$\chi^2 = 24.9^{***}$ DF = 3
	고	16.4	51.2	23.8	8.6	
전 체		18.0	45.7	24.4	12.0	

3. 당신은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다음 중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구 분		동생이 양보 해야 한다	형이나 누나가 양보해야한다	잘못한사람이 양보해야 한다	통 계 치
성 별	남	8.7	14.2	77.1	$\chi^2 = 26.9^{***}$ DF = 2
	여	4.2	8.2	87.5	
교 급	중	6.0	12.6	81.4	$\chi^2 = 3.8$ DF = 2
	고	7.0	9.5	83.5	
전 체		6.5	11.1	82.5	

4. 친구가 당신의 생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통 계 치
성 별	남	4.5	14.3	34.5	29.8	17.0	$\chi^2 = 7.1$ DF = 4
	여	3.1	13.2	30.3	34.1	19.2	
교 급	중	4.1	13.0	30.3	30.9	21.7	$\chi^2 = 14.9^{**}$ DF = 4
	고	3.5	14.4	35.0	32.9	14.3	
전 체		3.8	13.7	32.6	31.9	18.0	

(2)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된다.

성 별	남	3.9	14.5	24.9	31.2	25.5	$\chi^2 = 16.3^{**}$ DF = 4
	여	2.2	10.8	20.6	37.3	29.2	
교 급	중	3.5	14.0	20.0	31.1	31.4	$\chi^2 = 22.2^{***}$ DF = 4
	고	2.5	11.3	25.6	37.6	23.1	
전 체		3.0	12.6	22.7	34.3	27.3	

(3) 자기 생각보다는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성 별	남	3.1	19.1	33.4	30.4	14.0	$\chi^2 = 6.2$ DF = 4
	여	3.7	21.2	27.5	32.9	14.7	
교 급	중	3.4	18.9	28.3	31.3	18.0	$\chi^2 = 16.4^{**}$ DF = 4
	고	3.3	21.3	32.5	32.2	10.7	
전 체		3.4	20.1	30.4	31.7	14.4	

(4)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준다.

성 별	남	32.5	52.8	11.2	2.2	1.3	$\chi^2 = 2.9$ DF = 4
	여	31.0	51.6	12.8	3.4	1.2	
교 급	중	32.7	50.5	12.2	3.1	1.5	$\chi^2 = 2.7$ DF = 4
	고	30.7	54.0	11.8	2.5	1.0	
전 체		31.7	52.2	12.0	2.8	1.2	

(5)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을 길러준다.

성 별	남	6.6	24.2	36.3	18.4	14.5	$\chi^2 = 7.6$ DF = 4
	여	7.4	27.0	32.2	21.7	11.6	
교 급	중	7.9	20.5	31.6	22.5	17.5	$\chi^2 = 46.7^{***}$ DF = 4
	고	6.1	30.7	37.1	17.6	8.5	
전 체		7.0	25.6	34.3	20.1	13.0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성 별	남	23.5	47.0	18.2	7.6	3.8	$\chi^2 = 25.2^{***}$ DF = 4
	여	32.2	46.5	15.5	4.1	1.6	
교 급	중	26.2	42.8	18.7	7.9	4.5	$\chi^2 = 39.4^{***}$ DF = 4
	고	29.7	50.8	15.0	3.6	0.8	
전 체		27.9	46.8	16.9	5.8	2.7	

5.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구 분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계속 만난다	부모님몰래 계속 만난다	부모님을 설득, 양해를 구한다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다	통 계 치
성 별	남	12.3	15.8	51.3	20.5	$\chi^2 = 35.7^{***}$ DF = 3
	여	6.2	10.7	53.0	30.1	
교 급	중	6.7	7.0	57.8	28.5	$\chi^2 = 68.8^{***}$ DF = 3
	고	12.0	19.5	46.4	22.0	
전 체		9.3	13.2	52.2	25.3	

6.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있다	가끔있다	전혀없다	통 계 치
성 별 남	1.7	27.9	70.4	$\chi^2 = 258.4^{***}$ DF = 2
여	6.0	65.7	28.3	
교 급 중	4.5	49.3	46.2	$\chi^2 = 5.9$ DF = 2
고	3.2	44.7	52.1	
전 체	3.8	47.0	49.1	

7. 다음의 성교육 항목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생식기구조

구 분	자주있다	가끔있다	전혀없다	통 계 치
성 별 남	1.0	14.9	84.2	$\chi^2 = 59.2^{***}$ DF = 2
여	2.5	30.9	66.7	
교 급 중	2.1	26.3	71.6	$\chi^2 = 10.3^{***}$ DF = 2
고	1.4	19.7	78.9	
전 체	1.7	23.0	75.2	

(2) 신체변화(2차성징)

성 별 남	3.7	35.0	61.3	$\chi^2 = 182.5^{***}$ DF = 2
여	7.4	66.7	26.0	
교 급 중	6.1	52.4	41.5	$\chi^2 = 2.2$ DF = 2
고	5.0	49.9	45.0	
전 체	5.6	51.2	43.3	

(3) 사춘기 정서변화

성 별 남	7.8	44.1	48.2	$\chi^2 = 14.4^{***}$ DF = 2
여	12.3	47.9	39.7	
교 급 중	10.5	46.3	43.2	$\chi^2 = 0.42$ DF = 2
고	9.8	45.5	44.7	
전 체	10.1	45.9	43.9	

(4) 월경

성 별 남	1.7	5.7	92.6	$\chi^2 = 868.9^{***}$ DF = 2
여	22.2	64.1	13.7	
교 급 중	13.8	37.9	48.3	$\chi^2 = 5.8$ DF = 2
고	11.0	34.5	54.4	
전 체	12.4	36.2	51.3	

(5) 사정

성 별 남	0.6	8.3	91.1	$\chi^2 = 0.40$ DF = 2
여	0.9	8.1	91.0	
교 급 중	0.8	8.9	90.3	$\chi^2 = 1.0$ DF = 2
고	0.7	7.5	91.8	
전 체	0.8	8.2	91.0	

(6) 성충동

성 별	남	1.0	10.2	88.8	$\chi^2 = 12.8^{**}$
	여	3.3	13.3	83.4	DF = 2
교 급	중	2.9	11.9	85.2	$\chi^2 = 3.2$
	고	1.5	11.6	86.8	DF = 2
전 체		2.2	11.8	86.0	

(7) 자위행위

성 별	남	1.3	8.5	90.2	$\chi^2 = 0.13$
	여	1.4	9.0	89.6	DF = 2
교 급	중	2.0	10.6	87.4	$\chi^2 = 9.8^{**}$
	고	0.8	6.9	92.3	DF = 2
전 체		1.4	8.7	89.9	

(8) 성위생

성 별	남	2.6	15.4	82.1	$\chi^2 = 344.7^{***}$
	여	23.8	41.6	34.6	DF = 2
교 급	중	13.3	26.9	59.8	$\chi^2 = 2.5$
	고	13.5	30.5	56.0	DF = 2
전 체		13.4	28.7	57.9	

(9) 이성교제

성 별	남	54.5	42.9	42.5	$\chi^2 = 36.8^{***}$
	여	18.4	54.3	27.3	DF = 2
교 급	중	14.2	41.7	44.1	$\chi^2 = 56.7^{***}$
	고	18.9	55.8	25.2	DF = 2
전 체		16.6	48.8	34.7	

(10) 결혼

성 별	남	12.3	49.9	37.9	$\chi^2 = 3.5$
	여	15.4	49.8	34.8	DF = 2
교 급	중	10.3	45.3	44.4	$\chi^2 = 46.5^{***}$
	고	17.6	54.4	28.0	DF = 2
전 체		13.9	49.8	36.3	

(11) 성행위

성 별	남	1.0	4.8	94.2	$\chi^2 = 25.3^{***}$
	여	1.5	12.1	86.4	DF = 2
교 급	중	1.1	10.7	88.2	$\chi^2 = 8.5^{*}$
	고	1.4	6.4	92.2	DF = 2
전 체		1.3	8.6	90.2	

(12) 임신과 출산

성 별	남	1.4	14.9	83.7	$\chi^2 = 73.6^{***}$
	여	4.5	31.7	63.7	DF = 2
교 급	중	2.6	24.4	72.9	$\chi^2 = 1.2$
	고	3.4	22.6	74.0	DF = 2
전 체		3.0	23.5	73.5	

(13) 가족계획

성 별	남	5.3	29.2	65.5	$\chi^2 = 0.18$ DF = 2
	여	4.9	28.6	66.5	
교 급	중	6.7	29.5	63.8	$\chi^2 = 8.3^*$ DF = 2
	고	3.5	28.3	68.3	
전 체		5.1	28.9	66.0	

(14) 인공임신중절

성 별	남	1.3	3.6	95.1	$\chi^2 = 15.5^{***}$ DF = 2
	여	0.7	8.4	91.0	
교 급	중	0.6	6.0	93.5	$\chi^2 = 2.7$ DF = 2
	고	1.4	6.1	92.5	
전 체		1.0	6.0	93.0	

(15) 남녀의 역할

성 별	남	10.1	33.2	56.7	$\chi^2 = 29.0^{***}$ DF = 2
	여	15.6	41.6	42.8	
교 급	중	13.0	36.0	51.0	$\chi^2 = 1.4$ DF = 2
	고	12.9	38.9	48.3	
전 체		12.9	37.4	49.7	

(16) 성도덕

성 별	남	5.2	18.9	75.9	$\chi^2 = 78.3^{***}$ DF = 2
	여	10.9	35.6	53.5	
교 급	중	8.2	29.7	62.1	$\chi^2 = 4.3$ DF = 2
	고	8.0	25.0	67.0	
전 체		8.1	27.4	64.5	

(17) 성병

성 별	남	1.1	7.3	91.6	$\chi^2 = 19.5^{***}$ DF = 2
	여	2.1	14.0	84.0	
교 급	중	1.8	13.7	84.5	$\chi^2 = 14.2^{***}$ DF = 2
	고	1.4	7.7	90.9	
전 체		1.6	10.7	87.7	

(18) 성피해방지(성폭행)

성 별	남	1.7	10.7	87.6	$\chi^2 = 377.3^{***}$ DF = 2
	여	23.0	38.3	38.7	
교 급	중	14.7	26.4	58.9	$\chi^2 = 10.1^{**}$ DF = 2
	고	10.3	23.2	66.4	
전 체		12.5	24.8	62.7	

8. 다음의 보기 중에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의 항목을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구 분	생식기구조	신체변화 (2차성징)	사춘기 정서변화	월경	사정	성응동	자위행위	성위생	이성교제
성 별	남	2.3	2.1	6.6	2.4	2.4	5.7	4.9	5.6
	여	0.8	0.6	6.4	0.7	2.6	4.0	7.0	4.9
교 급	중	1.9	2.3	8.8	2.2	3.3	5.1	5.3	3.4
	고	1.1	0.4	4.1	0.9	2.3	4.5	6.7	7.1
전 체		1.5	1.4	6.5	1.6	2.8	4.8	6.0	5.2

구 분	결혼	성행위	임신과 출산	가족계획	인공 임신중절	남녀의 역할	성도덕	성병	성괴해방지 (성폭행)	통 계 치
성 별 남	10.8	12.3	2.6	3.8	3.1	5.8	5.2	6.5	4.8	$\chi^2 = 425.4^{***}$ DF = 17
여	10.1	6.5	5.1	0.0	6.6	5.1	4.9	7.2	10.2	
교 급 중	9.4	6.4	3.4	3.6	5.2	5.6	4.9	5.7	10.2	$\chi^2 = 179.8^{***}$ DF = 17
고	11.6	12.3	4.3	2.3	4.5	5.2	5.1	8.0	7.3	
전 체	10.5	9.3	3.8	3.0	4.9	5.4	5.0	6.9	7.6	

(복수응답문항)

9. 다음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부모에게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어렵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거의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통 계 치
성 별 남	48.8	41.1	6.7	3.4	$\chi^2 = 118.2^{***}$ DF = 3
여	23.9	51.2	19.7	5.2	
교 급 중	32.1	44.5	17.5	5.9	$\chi^2 = 36.9^{***}$ DF = 3
고	40.4	48.1	8.9	2.6	
전 체	36.2	46.2	13.3	4.3	

(2) 월경이나 동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

성 별 남	44.4	40.4	9.0	6.2	$\chi^2 = 253.8^{***}$ DF = 3
여	13.6	36.5	35.3	14.6	
교 급 중	27.6	35.6	24.4	12.4	$\chi^2 = 11.2^*$ DF = 3
고	29.5	41.4	20.6	8.5	
전 체	28.6	38.5	22.5	10.5	

(3) 사춘기때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 별 남	5.6	13.7	29.4	51.3	$\chi^2 = 13.5^{**}$ DF = 3
여	3.3	9.1	30.8	56.8	
교 급 중	5.3	16.7	32.2	45.8	$\chi^2 = 60.2^{***}$ DF = 3
고	3.6	5.9	28.1	62.4	
전 체	4.4	11.3	30.2	54.1	

(4) 자위행위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성 별 남	16.1	34.9	30.9	18.1	$\chi^2 = 58.4^{***}$ DF = 3
여	28.9	40.1	21.0	10.0	
교 급 중	30.8	43.0	17.0	9.2	$\chi^2 = 119.4^{***}$ DF = 3
고	14.4	32.2	34.6	18.8	
전 체	22.6	37.6	25.8	14.0	

10. 당신은 성에 관한 지식을 누구로부터(혹은 어디에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 분	가정에서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책으로부터	대중매체를 통해서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13.6	34.4	12.0	17.5	18.5	4.0	$\chi^2 = 73.2^{***}$ DF = 5
여	26.5	35.7	13.0	15.8	7.4	1.5	
교 급 중	26.3	30.7	13.3	16.3	12.1	1.4	$\chi^2 = 48.1^{***}$ DF = 5
고	13.7	39.6	11.8	16.9	13.8	4.1	
전 체	20.1	35.1	12.6	16.6	12.9	2.7	

11.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구 분		한달/한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다	한달/한주에 한번씩 필요한 만큼을 받는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36.3	8.1	49.2	6.4	$\chi^2 = 5.1$ DF = 3
	여	41.2	7.9	46.3	4.6	
교 급	중	39.0	8.0	46.1	6.9	$\chi^2 = 6.6$ DF = 3
	고	38.5	7.9	49.6	4.0	
전 체		38.7	8.0	47.8	5.5	

12.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좋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받는 것이 좋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29.1	33.9	33.9	3.1	$\chi^2 = 23.7^{***}$ DF = 3
	여	25.4	46.2	26.4	2.0	
교 급	중	27.8	37.7	32.3	2.2	$\chi^2 = 5.1$ DF = 3
	고	26.5	42.4	28.2	2.9	
전 체		27.1	40.1	30.2	2.5	

12-1. 당신이 위의 용돈지급방식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저축 가능	절약 정신	관리가 어렵다	부모에게 죄송	부족하기 쉽다	일주일씩 적당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30.5	12.7	3.3	8.7	9.6	1.1	8.1	8.7	17.4	$\chi^2 = 29.7^{***}$ DF = 8
	여	38.1	8.5	3.6	10.5	11.2	2.0	4.6	9.9	11.6	
교 급	중	22.7	13.5	3.8	13.0	13.5	1.8	6.0	9.4	16.2	$\chi^2 = 99.5^{***}$ DF = 8
	고	46.5	7.4	3.0	6.2	7.5	1.4	6.5	9.2	12.5	
전 체		34.4	10.5	3.4	9.6	10.6	1.6	6.3	9.3	14.4	

13. 당신은 아래와 같은 물건(상품)을 살 경우 그것을 사야겠다고 미리부터 계획하고 사는 편입니까? 혹은 물건을 보고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는 편입니까?

(1) 학용품

구 분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	물건을 보고 갑자기 사기로 결정한다	통 계 치
성 별	남	77.3	22.7	$\chi^2 = 17.5^{***}$ DF = 1
	여	85.8	14.2	
교 급	중	83.4	16.6	$\chi^2 = 3.0$ DF = 1
	고	79.8	20.2	
전 체		81.6	18.4	

(2) 소셜책이나 잡지

성 별	남	65.0	35.0	$\chi^2 = 20.2^{***}$ DF = 1
	여	75.8	24.2	
교 급	중	67.2	32.8	$\chi^2 = 7.9^{**}$ DF = 1
	고	73.9	26.1	
전 체		70.5	29.5	

(3) 의류 및 신발

성 별	남	69.0	31.0	$\chi^2 = 16.4^{***}$ DF = 1
	여	78.4	21.6	
교 급	중	65.8	34.2	$\chi^2 = 49.5^{***}$ DF = 1
	고	82.0	18.0	
전 체		73.8	26.2	

(4) 참고서

성 별	남	88.6	11.4	$\chi^2 = 14.4^{***}$ DF = 1
	여	94.2	5.8	
교 급	중	88.9	11.1	$\chi^2 = 12.4^{***}$ DF = 1
	고	94.0	6.0	
전 체		91.4	8.6	

(5) 음식(과자)

성 별	남	22.3	77.7	$\chi^2 = 36$ DF = 1
	여	21.0	79.0	
교 급	중	23.8	76.2	$\chi^2 = 4.1^*$ DF = 1
	고	19.4	80.6	
전 체		21.6	78.4	

14.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정에서의 여가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구 분		어떤일을하든지 나의마음대로 쓸수있는시간	학교/학원혹은집에서 공부하는데필요한 시간외의 자유로운시간	공부에필요한시간/부모님이 시키는일/가사등에소요 되는모든시간을제외한시간	휴식시간	통 계 치
성 별	남	46.5	25.5	17.0	11.0	$\chi^2 = 6.76$ DF = 3
	여	46.0	26.3	20.2	7.5	
교 급	중	47.1	23.4	19.3	10.2	$\chi^2 = 5.9$ DF = 3
	고	45.2	28.5	18.1	8.2	
전 체		46.2	25.9	18.7	9.2	

15. 여가시간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구 분	독서	수면	TV시청	운동하기	여행	컴퓨터	음악감상	영화관람	친구만나기	
성 별	남	16.5	7.9	4.7	17.4	5.0	3.6	5.9	6.2	8.2
	여	25.5	7.9	5.0	5.4	4.6	0.6	17.4	7.0	5.1
교 급	중	23.8	7.1	6.7	8.5	3.3	2.1	10.7	3.3	7.9
	고	18.1	8.7	3.0	14.2	6.4	2.0	12.8	9.8	5.4
전 체		21.0	7.9	4.9	11.3	4.9	2.0	11.8	6.5	6.7

구 분	휴식	만화책 보기	오락	편지쓰기	운동경 기관람	음악활동	만들기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2.3	2.0	4.4	0.1	0.0	3.3	1.9	10.6
	여	2.6	1.7	0.8	1.7	0.1	3.8	0.4	10.4
교 급	중	2.2	3.1	4.2	1.0	0.0	2.0	1.8	12.1
	고	2.7	0.6	1.0	0.9	0.1	5.1	0.4	8.8
전 체		2.5	1.8	2.6	0.9	0.1	3.5	1.1	10.5

16. 당신은 다음의 일을 평소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나의 방 청소 및 정리

구분	예	아니오	통계치
성별 남	96.8	3.2	$\chi^2 = 5.75^*$ DF = 1
여	98.7	1.3	
교급 중	97.4	2.6	$\chi^2 = 0.95$ DF = 1
고	98.2	1.8	
전체	97.8	2.2	

(2) 쓰레기 버리기

성별 남	86.6	13.4	$\chi^2 = 3.12$ DF = 1
여	83.3	16.7	
교급 중	83.5	16.5	$\chi^2 = 2.0$ DF = 1
고	86.3	13.7	
전체	84.9	15.1	

(3) 식사전 상차리기

성별 남	42.0	58.0	$\chi^2 = 131.7^{***}$ DF = 1
여	72.3	27.7	
교급 중	59.4	40.6	$\chi^2 = 2.4$ DF = 1
고	55.3	44.7	
전체	57.3	42.7	

(4)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

성별 남	95.5	4.5	$\chi^2 = 2.16$ DF = 1
여	97.0	3.0	
교급 중	95.8	4.2	$\chi^2 = 0.9$ DF = 1
고	96.8	3.2	
전체	96.3	3.7	

(5) 이불개기(침대정리)

성별 남	90.4	9.6	$\chi^2 = 12.77^{***}$ DF = 1
여	95.3	4.7	
교급 중	91.0	9.0	$\chi^2 = 7.7^{**}$ DF = 1
고	94.8	5.2	
전체	92.9	7.1	

(6) 마른 빨래개기

성별 남	39.5	60.5	$\chi^2 = 189.6^{***}$ DF = 1
여	75.9	24.1	
교급 중	60.5	39.5	$\chi^2 = 3.7$ DF = 1
고	55.4	44.6	
전체	57.9	42.1	

(7)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

성별 남	53.4	46.6	$\chi^2 = 77.2^{***}$ DF = 1
여	75.9	24.1	
교급 중	59.3	40.7	$\chi^2 = 17.8^{***}$ DF = 1
고	70.0	30.0	
전체	64.7	35.3	

16-1. 또 다음의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1) 나의 방 청소 및 정리

구 분	항상한다	가끔한다	거의안한다	통 계 치
성 별 남	16.4	68.4	15.2	$\chi^2 = 30.4^{***}$ DF = 2
여	28.0	61.5	10.4	
교 급 중	27.0	62.3	10.7	$\chi^2 = 20.7^{***}$ DF = 2
고	17.5	67.7	14.7	
전 체	22.3	65.0	12.7	

(2) 쓰레기 버리기

성 별 남	25.6	54.7	19.6	$\chi^2 = 19.0^{***}$ DF = 2
여	17.8	54.8	27.3	
교 급 중	24.6	54.1	21.2	$\chi^2 = 8.9^*$ DF = 2
고	18.9	55.1	26.0	
전 체	21.7	54.6	23.6	

(3) 식사전 상차리기

성 별 남	8.5	44.0	47.5	$\chi^2 = 98.1^{***}$ DF = 2
여	22.1	53.0	24.9	
교 급 중	18.3	48.7	33.0	$\chi^2 = 11.1^{**}$ DF = 2
고	12.6	48.4	39.0	
전 체	15.4	48.6	36.0	

(4)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

성 별 남	59.1	33.6	7.3	$\chi^2 = 0.578$ DF = 2
여	60.1	33.6	6.3	
교 급 중	57.8	35.3	6.9	$\chi^2 = 1.8$ DF = 2
고	61.2	32.0	6.8	
전 체	59.5	33.6	6.9	

(5) 이불개기(침대정리)

성 별 남	32.1	40.5	27.4	$\chi^2 = 16.4^{***}$ DF = 2
여	41.4	38.2	20.4	
교 급 중	39.3	40.0	20.8	$\chi^2 = 8.0^*$ DF = 2
고	34.4	38.8	26.8	
전 체	36.8	39.4	23.8	

(6) 마른 빨래개기

성 별 남	4.6	35.4	60.0	$\chi^2 = 228.5^{***}$ DF = 2
여	13.3	65.8	20.9	
교 급 중	10.3	55.2	34.5	$\chi^2 = 17.7^{***}$ DF = 2
고	7.8	47.0	45.3	
전 체	9.0	51.1	39.9	

(7)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

성 별 남	11.6	37.1	51.4	$\chi^2 = 19.9^{***}$ DF = 2
여	17.0	42.8	40.2	
교 급 중	12.1	38.3	49.6	$\chi^2 = 10.8^{***}$ DF = 2
고	16.5	41.8	41.8	
전 체	14.3	40.0	45.7	

17. 당신은 시간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구 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계획에 맞추어 보낸다.	계획을 세우기는 하나 잘 지키지 못하는 편이다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2.9	43.4	50.8	1.8	1.1	$\chi^2 = 22.4^{***}$ DF = 4
	여	4.2	54.2	39.8	1.0	0.8	
교 급	중	3.7	38.1	55.1	2.4	0.7	$\chi^2 = 81.1^{***}$ DF = 4
	고	3.5	59.9	35.1	0.3	1.3	
전 체		3.6	48.9	45.2	1.4	1.0	

18.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 보았다면 얼마나 자주 해 보았습니까?

(1) 흡연

구 분		전혀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자주	통 계 치
성 별	남	78.9	11.5	2.7	3.2	3.8	$\chi^2 = 122.8^{***}$ DF = 4
	여	97.3	2.6	0.1	0.0	0.0	
교 급	중	95.9	3.7	0.1	0.1	0.1	$\chi^2 = 93.9^{***}$ DF = 4
	고	80.3	10.4	2.6	3.1	3.6	
전 체		88.2	7.0	1.4	1.6	1.9	

(2) 무단외박

성 별	남	89.2	8.7	1.4	0.4	0.3	$\chi^2 = 37.9^{***}$ DF = 4
	여	97.0	3.0	0.0	0.0	0.0	
교 급	중	96.6	3.0	0.0	0.4	0.0	$\chi^2 = 35.1^{***}$ DF = 4
	고	89.6	8.6	1.4	0.1	0.3	
전 체		93.1	5.8	0.7	0.3	0.1	

(3) 디스코장 출입

성 별	남	92.5	4.7	1.7	0.8	0.3	$\chi^2 = 31.6$ DF = 4
	여	98.4	1.5	0.0	0.1	0.0	
교 급	중	99.2	0.8	0.0	0.0	0.0	$\chi^2 = 48.7^{***}$ DF = 4
	고	91.7	5.4	1.7	1.0	0.3	
전 체		95.5	3.1	0.8	0.5	0.1	

(4) 하급생 구타

성 별	남	88.8	9.9	0.8	0.3	0.1	$\chi^2 = 51.5^{***}$ DF = 4
	여	98.1	1.8	0.1	0.0	0.0	
교 급	중	93.6	6.0	0.1	0.1	0.1	$\chi^2 = 3.8$ DF = 4
	고	93.3	5.6	0.8	0.1	0.1	
전 체		93.5	5.8	0.5	0.1	0.1	

(5) 집단싸움

성 별	남	94.7	4.6	0.4	0.0	0.3	$\chi^2 = 12.9^*$ DF = 4
	여	97.8	1.9	0.0	0.1	0.1	
교 급	중	97.2	2.8	0.0	0.0	0.0	$\chi^2 = 8.0$ DF = 4
	고	95.4	3.6	0.4	0.1	0.4	
전 체		96.3	3.2	0.2	0.1	0.2	

(6) 본드흡입

성 별	남	98.7	0.8	0.1	0.1	0.1	$\chi^2 = 4.2$ DF = 4
	여	99.6	0.4	0.0	0.0	0.0	
교 급	중	99.5	0.5	0.0	0.0	0.0	$\chi^2 = 3.2$ DF = 4
	고	98.9	0.7	0.1	0.1	0.1	
전 체		99.2	0.6	0.1	0.1	0.1	

(7) 음란물 보기

성 별	남	39.5	46.5	9.4	2.7	2.0	$\chi^2 = 307.8^{***}$ DF = 4
	여	83.5	15.3	0.8	0.4	0.0	
교 급	중	76.9	20.6	1.9	0.4	0.1	$\chi^2 = 156.6^{***}$ DF = 4
	고	46.2	41.2	8.2	2.6	1.8	
전 체		61.7	30.8	5.0	1.5	1.0	

(8) 이성교제

성 별	남	53.8	23.1	13.2	6.0	3.9	$\chi^2 = 43.4^{***}$ DF = 4
	여	65.6	22.6	9.0	2.0	0.8	
교 급	중	72.8	17.5	6.9	1.6	1.1	$\chi^2 = 114.6^{***}$ DF = 4
	고	46.5	28.2	15.3	6.4	3.7	
전 체		59.8	22.8	11.1	4.0	2.4	

(9) 과대치장

성 별	남	70.4	19.1	7.8	1.4	1.3	$\chi^2 = 24.3^{***}$ DF = 4
	여	80.8	12.9	4.6	1.4	0.3	
교 급	중	81.4	12.9	4.2	1.2	0.3	$\chi^2 = 29.9^{***}$ DF = 4
	고	69.9	19.0	8.2	1.5	1.4	
전 체		75.7	15.9	6.2	1.4	0.8	

(10) 음주

성 별	남	60.8	27.7	7.1	2.8	1.7	$\chi^2 = 92.0^{***}$ DF = 4
	여	82.2	15.2	1.8	0.3	0.5	
교 급	중	88.5	10.1	1.1	0.0	0.3	$\chi^2 = 218.1^{***}$ DF = 4
	고	54.1	32.9	7.9	3.1	2.0	
전 체		71.5	21.4	4.5	1.5	1.1	

(11) 전자오락실 출입

성 별	남	11.0	35.9	23.2	19.3	10.6	$\chi^2 = 460.2^{***}$ DF = 4
	여	55.1	37.0	5.2	1.9	0.8	
교 급	중	39.6	34.9	12.8	8.2	4.5	$\chi^2 = 31.5^{***}$ DF = 4
	고	26.8	38.2	15.3	12.9	6.8	
전 체		33.2	36.5	14.0	10.5	5.6	

(1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성 별	남	15.9	63.3	14.8	4.2	1.8	$\chi^2 = 24.3^{***}$ DF = 4
	여	22.8	64.5	9.7	2.3	0.7	
교 급	중	22.5	63.1	11.0	2.9	0.5	$\chi^2 = 15.5^{**}$ DF = 4
	고	16.3	64.7	13.5	3.6	1.9	
전 체		19.4	63.9	12.3	3.2	1.2	

(13) 당구장 출입

성 별	남	74.0	15.0	4.3	3.9	2.8	$\chi^2 = 169.8^{***}$ DF = 4
	여	97.7	1.5	0.4	0.1	0.3	
교 급	중	96.7	2.3	0.3	0.1	0.5	$\chi^2 = 146.1^{***}$ DF = 4
	고	74.9	14.2	4.4	3.9	2.6	
전 체		85.9	8.2	2.3	2.0	1.6	

(14) 돈내기 도박

성 별	남	57.8	33.8	6.0	1.3	1.1	$\chi^2 = 320.9^{***}$ DF = 4
	여	97.0	2.5	0.4	0.1	0.0	
교 급	중	85.6	12.7	1.2	0.4	0.1	$\chi^2 = 59.6^{***}$ DF = 4
	고	69.5	23.2	5.3	1.0	1.0	
전 체		77.6	17.9	3.2	0.7	0.6	

(15) 성인영화관람

성 별	남	60.2	29.5	6.0	2.4	2.0	$\chi^2 = 116.1^{***}$ DF = 4
	여	84.9	12.7	1.9	0.4	0.1	
교 급	중	83.4	13.5	2.0	0.7	0.4	$\chi^2 = 87.3$ DF = 4
	고	61.8	28.7	5.8	2.1	1.7	
전 체		72.7	21.0	3.9	1.4	1.0	

(16) 시험 중 부정행위

성 별	남	63.9	29.8	3.8	1.8	0.7	$\chi^2 = 114.0^{***}$ DF = 4
	여	87.2	12.0	0.3	0.1	0.4	
교 급	중	81.1	17.6	0.7	0.3	0.4	$\chi^2 = 35.2$ DF = 4
	고	69.8	24.5	3.3	1.7	0.7	
전 체		75.5	21.0	2.0	1.0	0.6	

19. 당신은 다음의 각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1) 흡연

구 분	전혀 심각 치 않다	별로 심각 치 않다	보통	심각	매우심각	통 계 치
성 별 남	78.9	11.5	2.7	3.2	3.8	$\chi^2 = 31.0^{***}$ DF = 4
여	97.3	2.6	0.1	0.0	0.0	
교 급 중	95.9	3.7	0.1	0.1	0.1	$\chi^2 = 80.2^{***}$ DF = 4
고	80.3	10.4	2.6	3.1	3.6	
전 체	88.2	7.0	1.4	1.6	1.9	

(2) 무단외박

성 별	남	89.2	8.7	1.4	0.4	0.3	$\chi^2 = 52.0^{***}$ DF = 4
	여	97.0	3.0	0.0	0.0	0.0	
교 급	중	96.6	3.0	0.0	0.4	0.0	$\chi^2 = 91.0^{***}$ DF = 4
	고	89.6	8.6	1.4	0.1	0.3	
전 체		93.1	5.8	0.7	0.3	0.1	

(3) 디스코장 출입

성 별	남	92.5	4.7	1.7	0.8	0.3	$\chi^2 = 34.9^{***}$
	여	98.4	1.5	0.0	0.1	0.0	DF = 4
교 급	중	99.2	0.8	0.0	0.0	0.0	$\chi^2 = 167.0^{***}$
	고	91.7	5.4	1.7	1.0	0.3	DF = 4
전 체		95.5	3.1	0.8	0.5	1.1	

(4) 하급생구타

성 별	남	88.8	9.9	0.8	0.3	0.1	$\chi^2 = 56.7^{***}$
	여	98.1	1.8	0.1	0.0	0.0	DF = 4
교 급	중	93.6	6.0	0.1	0.1	0.1	$\chi^2 = 73.0^{***}$
	고	93.3	5.6	0.8	0.1	0.1	DF = 4
전 체		93.5	5.8	0.5	0.1	0.1	

(5) 집단싸움

성 별	남	94.7	4.6	0.4	0.0	0.3	$\chi^2 = 29.6^{***}$
	여	97.8	1.9	0.0	0.1	0.1	DF = 4
교 급	중	99.2	2.8	0.0	0.0	0.0	$\chi^2 = 49.8^{***}$
	고	95.4	3.6	0.4	0.1	0.4	DF = 4
전 체		96.3	3.2	0.2	0.1	0.2	

(6) 본드흡입

성 별	남	98.7	0.8	0.1	0.1	0.1	$\chi^2 = 28.5^{***}$
	여	99.6	0.4	0.0	0.0	0.0	DF = 4
교 급	중	99.5	0.5	0.0	0.0	0.0	$\chi^2 = 21.0^{***}$
	고	98.9	0.7	0.1	0.1	0.1	DF = 4
전 체		99.2	0.6	0.1	0.1	0.1	

(7) 음란물 보기

성 별	남	39.5	46.5	9.4	2.7	2.0	$\chi^2 = 82.7^{***}$
	여	83.5	15.3	0.8	0.4	0.0	DF = 4
교 급	중	76.9	20.6	1.9	0.4	0.1	$\chi^2 = 133.3^{***}$
	고	46.2	41.2	8.2	2.6	1.8	DF = 4
전 체		61.7	30.8	5.0	1.5	1.0	

(8) 이성교제

성 별	남	53.8	23.1	13.2	6.0	3.9	$\chi^2 = 26.6^{***}$
	여	65.6	22.6	9.0	2.0	0.8	DF = 4
교 급	중	72.8	17.5	6.9	1.6	1.1	$\chi^2 = 96.8^{***}$
	고	46.5	28.2	15.3	6.4	3.7	DF = 4
전 체		59.8	22.8	11.1	4.0	2.4	

(9) 과대치장

성 별	남	70.4	19.1	7.8	1.4	1.3	$\chi^2 = 35.4^{***}$
	여	80.8	12.9	4.6	1.4	0.3	DF = 4
교 급	중	81.4	12.9	4.2	1.2	0.3	$\chi^2 = 59.9^{***}$
	고	69.9	19.0	8.2	1.5	1.4	DF = 4
전 체		75.7	15.9	6.2	1.4	0.8	

(10) 음주

성 별	남	60.8	27.7	7.1	2.8	1.7	$\chi^2 = 43.4^{***}$ DF = 4
	여	82.2	15.2	1.8	0.3	0.5	
교 급	중	88.5	10.1	1.1	0.0	0.3	$\chi^2 = 214.1^{***}$ DF = 4
	고	54.1	32.9	7.9	3.1	2.0	
전 체		71.5	21.4	4.5	1.5	1.1	

(11) 전자오락실 출입

성 별	남	11.0	35.9	23.2	19.3	10.6	$\chi^2 = 30.6^{***}$ DF = 4
	여	55.1	37.0	5.2	1.9	0.8	
교 급	중	39.6	34.9	12.8	8.2	4.5	$\chi^2 = 82.3^{***}$ DF = 4
	고	26.8	38.2	15.3	12.9	6.8	
전 체		33.2	36.5	14.0	10.5	5.6	

(1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성 별	남	15.9	63.3	14.8	4.2	1.8	$\chi^2 = 6.9$ DF = 4
	여	22.8	64.5	9.7	2.3	0.7	
교 급	중	22.5	63.1	11.0	2.9	0.5	$\chi^2 = 33.0^{***}$ DF = 4
	고	16.3	64.7	13.5	3.6	1.9	
전 체		19.4	63.9	12.3	3.2	1.2	

(13) 당구장 출입

성 별	남	74.0	15.0	4.3	3.9	2.8	$\chi^2 = 52.3^{***}$ DF = 4
	여	97.7	1.5	0.4	0.1	0.3	
교 급	중	96.7	2.3	0.3	0.1	0.5	$\chi^2 = 214.3^{***}$ DF = 4
	고	74.9	14.2	4.4	3.9	2.6	
전 체		85.9	8.2	2.3	2.0	1.6	

(14) 돈내기 도박

성 별	남	57.8	33.8	6.0	1.3	1.1	$\chi^2 = 116.2^{***}$ DF = 4
	여	97.0	2.5	0.4	0.1	0.0	
교 급	중	85.6	12.7	1.2	0.4	0.1	$\chi^2 = 79.1^{***}$ DF = 4
	고	69.5	23.2	5.3	1.0	1.0	
전 체		77.6	17.9	3.2	0.7	0.6	

(15) 성인영화관람

성 별	남	60.2	29.5	6.0	2.4	2.0	$\chi^2 = 40.6^{***}$ DF = 4
	여	84.9	12.7	1.9	0.4	0.1	
교 급	중	83.4	13.5	2.0	0.7	0.4	$\chi^2 = 211.9^{***}$ DF = 4
	고	61.8	28.7	5.8	2.1	1.7	
전 체		72.7	21.0	3.9	1.4	1.0	

(16) 시험 중 부정행위

성 별	남	63.9	29.8	3.8	1.8	0.7	$\chi^2 = 23.3^{***}$ DF = 4
	여	87.2	12.0	0.3	0.1	0.4	
교 급	중	81.1	17.6	0.7	0.3	0.4	$\chi^2 = 38.2^{***}$ DF = 4
	고	69.8	24.5	3.3	1.7	0.7	
전 체		75.5	21.0	2.0	1.0	0.0	

20. 앞의 보기에 제시된 16가지의 행동을 부모님 몰래 행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없다	있다	통 계 치
성 별 남	19.5	80.5	$\chi^2 = 104.6^{***}$ DF = 1
여	44.8	55.2	
교 급 중	41.6	58.4	$\chi^2 = 57.7^{***}$ DF = 1
고	22.9	77.1	
전 체	32.3	67.7	

20-1.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었습니까?

구 분	흡연	무단외박	디스코장 출입	하급생 구타	집단싸움	본드흡입	음란물 보기	이성교제
성 별 남	9.2	1.1	2.0	1.3	0.5	0.1	21.8	6.9
여	2.8	0.8	0.7	0.7	0.3	0.2	7.7	15.8
교 급 중	3.4	1.5	0.3	1.5	0.3	0.1	11.4	9.1
고	9.3	1.2	2.4	0.7	0.6	0.1	20.0	11.5
전 체	5.6	0.9	1.3	0.8	0.4	0.2	14.1	9.2

구 분	과대차장 음 주	전자오락실 출입	부모님께 거짓말	당구장 출입	돈내기 도박	성인영화 관람	시험중 부정행위	통 계 치
성 별 남	0.7	6.7	22.6	12.3	4.8	4.1	4.5	$\chi^2 = 264.8^{***}$ DF = 15
여	2.9	6.9	18.3	35.4	0.2	0.2	4.1	
교 급 중	2.5	2.9	29.0	28.0	0.6	3.4	3.8	$\chi^2 = 180.5^{***}$ DF = 15
고	0.8	9.8	14.4	16.4	4.8	1.9	4.7	
전 체	1.5	7.0	18.9	22.0	4.0	3.4	7.3	

(복수응답문항)

21. 당신이 위의 보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하였습니까?

구 분	무조건 혼내며 야단치신다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신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하신다	그냥모른척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	위의 행동을 한 적 없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21.7	38.4	22.8	4.3	6.7	6.1	$\chi^2 = 83.8^{***}$ F = 4
여	15.5	31.8	18.1	3.8	23.7	7.1	
교 급 중	16.4	36.7	20.1	1.5	20.7	4.6	$\chi^2 = 65.3^{***}$ DF = 5
고	20.8	33.6	20.9	6.5	9.5	8.7	
전 체	18.6	35.1	20.5	4.0	15.2	6.6	

22. 보기에 제시된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21번의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이셨을 때 당신은 대체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 분	대부분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운이 나빠서 야단맞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단맞게 되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해주시지 않는것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61.6	6.9	3.3	20.7	7.5	$\chi^2 = 44.5^{***}$ DF = 4
여	50.8	3.1	1.8	33.2	11.0	
교 급 중	59.8	3.6	2.9	25.1	8.6	$\chi^2 = 11.8^*$ DF = 4
고	52.7	6.5	2.2	28.8	9.8	
전 체	56.3	5.0	2.6	26.9	9.2	

23. 당신은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체벌을 가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간에 체벌을 가하는것은 옳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가할수 있다.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체벌은 효과적인 훈육책이 될수있다.	잘모르겠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9.6	68.8	12.2	7.4	2.1	$\chi^2 = 5.0$ DF = 4
여	10.6	72.3	9.4	6.0	1.8	
교 급 중	7.8	70.1	12.2	8.3	1.6	$\chi^2 = 16.7^{**}$ DF = 4
고	12.3	71.2	9.3	5.0	2.2	
전 체	10.1	70.6	10.7	6.6	1.9	

24. 다음 중 어떠한 가정적 상황이 가장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보십니까?

구 분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을때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 하지 못할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때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할때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18.4	41.9	28.1	9.5	2.1	$\chi^2 = 44.5^{***}$ DF = 4
여	11.4	51.8	31.8	3.1	1.9	
교 급 중	17.2	46.5	29.1	5.0	2.2	$\chi^2 = 9.3$ DF = 4
고	12.6	47.4	30.7	7.5	1.8	
전 체	15.0	46.9	29.9	6.2	2.0	

25. 다음은 부모님께서 평소에 주로 충고해 주시는 내용입니까?

(1) 인생의 목적, 가치관

구 분	아니오	예	통 계 치
성 별 남	46.5	53.5	$\chi^2 = 13.8^{***}$ DF = 1
여	56.3	43.8	
교 급 중	49.8	50.2	$\chi^2 = 1.6$ DF = 1
고	53.1	46.9	
전 체	51.4	48.6	

(2) 생활습관

성 별 남	20.3	79.7	$\chi^2 = 3.3$ DF = 1
여	16.6	83.4	
교 급 중	17.6	82.4	$\chi^2 = 0.58$ DF = 1
고	19.1	80.9	
전 체	18.4	81.6	

(3) 친구 및 대인관계

성 별 남	26.7	73.3	$\chi^2 = 3.2$ DF = 1
여	30.9	69.1	
교 급 중	27.7	72.3	$\chi^2 = 1.1$ DF = 1
고	30.2	69.8	
전 체	29.0	71.0	

(4)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성 별 남	54.4	45.6	$\chi^2 = 2.8$ DF = 1
여	58.8	41.2	
교 급 중	55.1	44.9	$\chi^2 = 1.6$ DF = 1
고	58.3	41.7	
전 체	56.7	43.3	

(5) 예의범절

성 별	남	22.2	77.8	$\chi^2 = 0.24$
	여	21.2	78.8	DF = 1
교 급	중	20.4	79.6	$\chi^2 = 1.3$
	고	22.9	77.1	DF = 1
전 체		21.6	78.4	

(6) 학업 및 성적

성 별	남	13.5	86.5	$\chi^2 = 5.5^*$
	여	17.9	82.1	DF = 1
교 급	중	13.7	86.3	$\chi^2 = 4.5^*$
	고	17.7	82.3	DF = 1
전 체		15.7	84.3	

(7) 건강관리 및 위생

성 별	남	30.8	69.2	$\chi^2 = 2.1$
	여	27.4	72.6	DF = 1
교 급	중	25.4	74.6	$\chi^2 = 9.6^{**}$
	고	32.8	67.2	DF = 1
전 체		29.1	70.9	

25-1.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의 목적, 가치관

구 분	아니오	예	통 계 치
성 별 남	46.5	53.5	$\chi^2 = 23.4^{***}$
여	56.3	43.8	DF = 1
교 급 중	49.8	50.2	$\chi^2 = 2.5$
고	53.1	46.9	DF = 1
전 체	51.4	48.6	

(2) 생활습관

성 별	남	20.3	79.7	$\chi^2 = 4.7^*$
	여	16.6	83.4	DF = 1
교 급	중	17.6	82.4	$\chi^2 = 1.4$
	고	19.1	80.9	DF = 1
전 체		18.4	81.6	

(3) 친구 및 대인관계

성 별	남	26.7	73.3	$\chi^2 = 0.03$
	여	30.9	69.1	DF = 1
교 급	중	27.7	72.3	$\chi^2 = 0.97$
	고	30.2	69.8	DF = 1
전 체		29.0	71.0	

(4)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성 별	남	54.4	45.6	$\chi^2 = 4.8^*$
	여	58.8	41.2	DF = 1
교 급	중	55.1	44.9	$\chi^2 = 0.35$
	고	58.3	41.7	DF = 1
전 체		56.7	43.3	

(5) 예의범절

성 별	남	22.2	77.8	$\chi^2 = 0.03$ DF = 1
	여	21.2	78.8	
교 급	중	20.4	79.6	$\chi^2 = 1.1$ DF = 1
	고	22.9	77.1	
전 체		21.6	78.4	

(6) 학업 및 성적

성 별	남	13.5	86.5	$\chi^2 = 1.6$ DF = 1
	여	17.9	82.1	
교 급	중	13.7	86.3	$\chi^2 = 0.24$ DF = 1
	고	17.7	82.3	
전 체		15.7	84.3	

(7) 건강관리 및 위생

성 별	남	30.8	69.2	$\chi^2 = 10.4^{**}$ DF = 1
	여	27.4	72.6	
교 급	중	25.4	74.6	$\chi^2 = 0.12$ DF = 1
	고	32.8	67.2	
전 체		28.9	71.1	

26. 당신은 다음 상황에 처할 때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낍니까?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넜다.

구 분	많이느낌	약간느낌	별느낌없음	통 계 치	
성 별	남	13.8	51.9	34.3	$\chi^2 = 52.5^{***}$ DF = 2
	여	19.1	63.2	17.7	
	교 급	중	18.3	60.5	21.2
고		14.4	54.9	30.7	
전 체		16.4	57.7	25.9	

(2)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성 별	남	55.3	38.7	6.0	$\chi^2 = 17.1^{***}$ DF = 2
	여	63.5	34.1	2.5	
교 급	중	62.4	33.4	4.2	$\chi^2 = 5.5$ DF = 2
	고	56.6	39.2	4.2	
전 체		59.5	36.3	4.2	

(3) 친구와의 약속시간보다 30분정도 늦게 나갔다.

성 별	남	53.8	38.8	7.4	$\chi^2 = 20.3^{***}$ DF = 2
	여	62.7	34.3	3.0	
교 급	중	58.1	36.8	5.2	$\chi^2 = 0.03$ DF = 2
	고	58.5	36.4	5.2	
전 체		58.3	36.6	5.2	

(4) 시험을 볼 때 옆자리 학생의 답안을 슬쩍 훑쳐 보았다.

성 별	남	45.4	38.9	15.7	$\chi^2 = 159.5^{***}$ DF = 2
	여	77.5	18.7	3.7	
교 급	중	66.7	25.4	7.9	$\chi^2 = 17.2^{***}$ DF = 2
	고	56.1	32.3	11.6	
전 체		61.4	28.8	9.8	

(5)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슬쩍 집어 왔다.

성 별	남	75.1	17.3	7.6	$\chi^2 = 91.9^{***}$ DF = 2
	여	93.7	4.9	1.4	
교 급	중	87.5	7.8	4.7	$\chi^2 = 15.8^{***}$ DF = 2
	고	81.2	14.5	4.3	
전 체		84.3	11.2	4.5	

(6) 친구 혹은 하급생을 때렸다.

성 별	남	49.7	39.8	10.5	$\chi^2 = 67.2^{***}$ DF = 2
	여	70.6	25.2	4.2	
교 급	중	61.5	31.5	7.1	$\chi^2 = 1.4$ DF = 2
	고	58.4	34.0	7.6	
전 체		60.0	32.7	7.3	

27.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당신(자녀)과 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때 결국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구 분	당사자의 입장(자녀)	부모의 입장	통 계 치
성 별	남	90.1	9.9
	여	95.6	4.4
교 급	중	88.8	11.2
	고	97.1	2.9
전 체		92.9	7.1

(2)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성 별	남	84.7	15.3	$\chi^2 = 19.9^{***}$ DF = 1
	여	75.3	24.7	
교 급	중	76.4	23.6	$\chi^2 = 12.1^{***}$ DF = 1
	고	83.7	16.3	
전 체		80.0	20.0	

(3)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성 별	남	34.5	65.5	$\chi^2 = 16.6^{***}$ DF = 1
	여	24.8	75.2	
교 급	중	22.2	77.8	$\chi^2 = 37.9^{***}$ DF = 1
	고	36.9	63.1	
전 체		29.5	70.5	

(4)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성 별	남	41.5	58.5	$\chi^2 = 3.1$ DF = 1
	여	46.1	53.9	
교 급	중	38.8	61.2	$\chi^2 = 15.2^{***}$ DF = 1
	고	49.0	51.0	
전 체		43.8	56.2	

(5) 교과외 클럽/씨클활동을 하는 일

성 별	남	85.0	15.0	$\chi^2 = 0.35$ DF = 1
	여	86.1	13.9	
교 급	중	81.1	18.9	$\chi^2 = 24.0^{***}$ DF = 1
	고	90.1	9.9	
전 체		85.6	14.4	

(6)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일

성 별	남	93.8	6.2	$\chi^2 = 5.2^*$ DF = 1
	여	96.4	3.6	
교 급	중	93.4	6.6	$\chi^2 = 9.7^{**}$ DF = 1
	고	96.9	3.1	
전 체		95.2	4.8	

28 가정에서 장래직업에 관한 진로지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국민학교 전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6.9	14.6	51.9	21.4	3.1	2.1	$\chi^2 = 30.6^{***}$ DF = 5
여	9.0	17.6	58.4	12.4	1.2	1.5	
교 급 중	6.8	14.4	61.1	13.2	3.3	1.4	$\chi^2 = 36.2^{***}$ DF = 5
고	9.1	17.7	49.4	20.5	1.0	2.2	
전 체	8.0	16.0	55.3	16.8	2.1	1.8	

29.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장래의 직업을 권유할 때 여러분의 적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보십니까?

구 분		나외적성을 가장중요하게 생각 하여 권유하신다	나외적성을 어느정도 생각하여 권유하신다	적성과는 상관없이 권유하신다	특정직업을 권유하신적이 없다	통 계 치
성 별	남	31.4	48.0	13.5	7.1	$\chi^2 = 3.9$ DF = 3
	여	36.2	44.5	13.2	6.1	
교 급	중	36.5	46.2	11.7	5.6	$\chi^2 = 9.0^*$ DF = 3
	고	31.0	46.1	15.2	7.6	
전 체		33.8	46.2	13.4	6.6	

30. 우리나라에는 일반 여종이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충분히 알고있다	어느정도 알고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통 계 치
성 별 남	4.3	57.9	36.4	1.4	$\chi^2 = 8.8^*$ DF = 3
여	3.8	52.7	43.0	0.5	
교 급 중	5.4	62.1	31.5	1.0	$\chi^2 = 45.8^{***}$ DF = 3
고	2.6	48.1	48.3	1.0	
전 체	4.1	55.2	39.8	1.0	

31.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얻는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얻는다		친구, 선배들로부터 얻는다		직업에 대한 서적을 통해 얻는다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다		기타	통 계 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 별	남	17.5	14.8	17.9	16.9	30.6	2.2	$\chi^2 = 11.8^*$ DF = 5				
	여	13.4	20.1	15.7	18.6	29.4	2.7					
교 급	중	22.1	15.3	15.2	13.0	32.5	1.9	$\chi^2 = 71.8^{***}$ DF = 5				
	고	8.8	19.6	18.5	22.6	27.4	3.1					
전 체		15.5	17.4	16.8	17.7	30.0	2.5					

32. 만약 당신의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 분		대학은 꼭 가야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가려고 할 것이다		대학진학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대학진학을 모색해 볼 것이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31.2	45.2	18.7	4.9			$\chi^2 = 7.0$ DF = 3	
	여	34.2	45.1	18.2	2.4				
교 급	중	29.7	45.2	21.8	3.4			$\chi^2 = 13.5^{**}$ DF = 3	
	고	35.8	45.3	15.0	3.9				
전 체		32.7	45.2	18.4	3.6				

33.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예를들면 경제적어려움, 실력부족 등)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 분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제한요인을 극복하겠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하겠다	기타	통 계 치
성 별	남	52.1	46.7	1.3	$\chi^2 = .17$
	여	52.9	46.0	1.1	DF = 2
교 급	중	49.3	49.5	1.2	$\chi^2 = 5.9$
	고	55.7	43.2	1.1	DF = 2
전 체		52.5	46.4	1.2	

34.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진학시켜야 한다.

구 분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통 계 치	
성 별	남	10.1	19.4	18.4	25.2	26.9	$\chi^2 = 227.7^{***}$ DF = 4
	여	1.2	7.5	6.5	23.3	61.4	
교 급	중	4.9	9.3	11.5	23.2	51.1	$\chi^2 = 36.8^{***}$ DF = 4
	고	6.3	17.6	13.4	25.3	37.4	
전 체		5.6	13.4	12.4	24.2	44.3	

(2)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어울린다.

성 별	남	35.9	35.7	10.1	10.9	7.4	$\chi^2 = 135.3^{***}$ DF = 4
	여	13.1	33.4	17.7	18.7	17.2	
교 급	중	28.2	33.5	13.8	11.2	13.4	$\chi^2 = 24.3^{***}$ DF = 4
	고	20.5	35.5	14.1	18.7	11.3	
전 체		24.4	34.5	13.9	14.9	12.3	

(3) 부모님께서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 별	남	39.3	37.7	14.4	6.5	2.1	$\chi^2 = 33.0^{***}$ DF = 4
	여	30.0	33.6	23.9	10.0	2.5	
교 급	중	30.0	33.2	24.2	9.8	2.7	$\chi^2 = 37.6^{***}$ DF = 4
	고	39.4	38.2	14.0	6.6	1.8	
전 체		34.6	35.7	19.2	8.2	2.3	

부록 4

설문조사 주요결과표〈학부모용〉

1. 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누가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까?

(통계값 : * $p<0.05$, ** $p<0.01$, *** $p<0.001$)

(1)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69.1	2.1	28.5	0.2	$\chi^2=23.0^{***}$ DF=3
모	67.2	8.6	23.8	0.3	
전 체	67.9	6.4	25.4	0.3	

(2)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10.9	61.6	26.4	1.1	$\chi^2=35.9^{***}$ DF=3
모	3.3	71.3	23.8	1.5	
전 체	5.9	68.0	24.7	1.4	

(3)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44.0	16.4	37.9	1.7	$\chi^2=56.9^{***}$ DF=3
모	24.8	27.5	45.2	2.6	
전 체	31.3	23.7	42.7	2.3	

(4) 학습을 지도한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27.7	19.5	31.1	21.6	$\chi^2=77.0^{***}$ DF=3
모	11.4	37.0	26.9	24.6	
전 체	17.0	31.1	28.3	23.6	

(5) 생활습관을 지도한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22.5	31.7	42.8	3.1	$\chi^2=58.6^{***}$ DF=3
모	8.6	45.5	42.9	3.0	
전 체	13.3	40.9	42.8	3.0	

(6) 뉴스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46.2	6.7	36.2	10.9	$\chi^2=91.5^{***}$ DF=3
모	22.5	18.9	44.9	13.7	
전 체	30.6	14.7	42.0	12.7	

(7) 좋은 책, 영화, 공연물 등을 추천해 준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24.2	21.2	28.2	26.3	$\chi^2=51.5^{***}$ DF=3
모	10.0	31.8	30.6	27.7	
전 체	14.8	28.2	29.8	27.3	

(8) 장래의 직업, 희망학과 등에 관해 조언한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기타	통계치
부	32.3	11.4	49.9	6.4	$\chi^2=70.3^{***}$ DF=3
모	14.2	22.3	56.8	6.7	
전 체	20.3	18.6	54.5	6.6	

(9) 친구문제,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부	12.6	33.9	43.7	9.8	$\chi^2=74.1^{***}$ DF=3
모	3.8	54.9	31.4	9.8	
전 체	6.8	47.8	35.6	9.8	

(10) 가정내 질서를 유지한다.

부	40.6	11.5	46.4	1.5	$\chi^2=77.2^{***}$ DF=3
모	19.5	22.4	55.1	3.0	
전 체	26.6	18.7	52.2	2.5	

2. 당신은 가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될 때 자녀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십니까?

(1) T.V 채널 선택

구 분	중요하게 반영한다	다 소 반영한다	별로 반영 하지 않는다	전혀 반영 하지 않는다	통계치
부	20.5	59.7	15.9	3.9	$\chi^2=12.0^{**}$ DF=3
모	23.0	64.1	10.8	2.1	
전 체	22.2	62.6	12.5	2.7	

(2) 식단(반찬과 식사)

부	27.9	57.3	13.5	1.3	$\chi^2=8.8^*$ DF=3
모	35.5	51.2	11.7	1.7	
전 체	32.9	53.2	12.3	1.5	

(3) 자녀의 종교생활

부	30.0	24.5	28.0	17.5	$\chi^2=13.1^{**}$ DF=3
모	35.9	25.6	27.6	10.9	
전 체	33.9	25.2	27.7	13.2	

(4) 집의 이사

부	17.1	33.8	31.2	17.8	$\chi^2=5.0$ DF=3
모	21.5	33.3	30.8	14.5	
전 체	20.0	33.5	30.9	15.6	

(5) 여름휴가계획

부	19.2	52.7	20.0	8.1	$\chi^2=9.6^*$ DF=3
모	25.8	45.5	19.4	9.4	
전 체	23.5	47.9	19.6	8.9	

(6) 집안의 가구배치

부	13.2	49.2	28.1	9.5	$\chi^2=7.9^*$ DF=3
모	16.5	53.1	22.8	7.6	
전 체	15.4	51.8	24.6	8.3	

3. 당신은 자녀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 대체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십니까?

구 분		대체로 손위 형제를 꾸짖는다	대체로 손아래 형제를 꾸짖는다	똑같이 꾸짖는다	싸워도 간섭 하지 않는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다	기 타 통계치
부	11.1	5.7	52.4	1.7	26.1	3.0	$\chi^2=3.2$ DF=5
모	10.0	7.6	50.9	1.1	27.4	3.0	
전 체	10.4	6.9	51.4	1.3	27.0	3.0	

4. 자녀의 친구들이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치
부	6.9	23.4	21.2	36.5	12.0	$\chi^2=7.3$ DF=4
모	4.5	23.9	26.3	34.2	11.1	
전 체	5.3	23.8	24.6	35.0	11.4	

(2)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된다.

부	5.8	20.8	17.2	39.5	16.7	$\chi^2=2.4$ DF=4
모	4.2	19.5	17.2	40.9	18.1	
전 체	4.8	19.9	17.2	40.4	17.7	

(3) 자기 생각보다는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부	4.1	25.1	22.1	34.3	14.4	$\chi^2=1.3$ DF=4
모	3.7	22.6	23.3	35.6	14.9	
전 체	3.8	23.5	22.9	35.1	14.7	

(4) 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준다.

부	14.0	59.4	20.0	4.5	2.2	$\chi^2=1.3$ DF=4
모	14.0	60.0	18.2	5.7	2.1	
전 체	14.0	59.8	18.8	5.3	2.1	

(5)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을 길러준다.

부	9.2	42.6	28.1	14.3	5.8	$\chi^2=7.6$ DF=4
모	7.0	37.5	32.1	17.6	5.8	
전 체	7.8	39.2	30.7	16.5	5.8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부	14.8	46.2	28.4	7.7	2.8	$\chi^2=9.5$ DF=4
모	14.2	54.4	22.8	6.7	1.9	
전 체	14.4	51.6	24.7	7.1	2.2	

5. 당신의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면 이성친 구와의 교제도 괜찮다 고 생각한다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 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	통계치
부	9.0	55.0	33.0	3.0	$\chi^2=4.4$ DF=3
모	9.9	49.3	36.8	4.0	
전 체	9.6	51.2	35.5	4.6	

6. 청소년기 자녀들의 성교육은 주로 누가(혹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부모	학교(교사)	책이나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친구	기타	통계치
부	24.0	63.4	3.3	5.0	1.7	2.6	$\chi^2=5.3$ DF=5
모	28.4	60.4	3.6	4.8	1.3	1.5	
전 체	26.9	61.4	3.5	4.9	1.5	1.8	

7. 당신은 현재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성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충분히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전혀 모르고 있다	통계치
부	8.4	69.8	19.5	2.4	$\chi^2=2.0$ DF=3
모	8.5	68.2	21.8	1.5	
전 체	8.5	68.7	21.0	1.8	

8. 다음에 관하여 부모님들께서 평소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경이후 4개월간 월경이 없어도 정상이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27.1	42.0	30.9	$\chi^2=43.7^{***}$ DF=2
모	45.0	35.9	19.1	
전 체	39.1	37.9	23.0	

(2)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초경 연령은 12~13세이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72.4	10.4	17.2	$\chi^2=21.5^{***}$ DF=2
모	83.2	6.9	9.9	
전 체	79.6	8.1	12.3	

(3) 성충동을 느끼는 정도는 남녀가 비슷하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36.2	44.6	19.2	$\chi^2=3.9$ DF=2
모	30.8	47.9	21.3	
전 체	32.6	46.8	20.6	

(4) 사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55.2	23.8	20.9	$\chi^2=13.6^{**}$ DF=2
모	57.2	16.1	26.7	
전 체	56.5	18.7	24.8	

(5) 자위행위는 신체에 해롭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34.5	40.9	24.6	$\chi^2=13.3^{**}$ DF=2
모	38.7	31.0	30.2	
전 체	37.3	34.4	28.4	

(6) 유방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커도 정상이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41.6	31.1	27.4	$\chi^2=6.0^*$ DF=2
모	47.1	31.2	21.7	
전 체	45.3	31.1	23.6	

(7) 성기의 크기는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54.6	19.7	25.7	$\chi^2=7.1^*$ DF=2
모	47.6	20.4	32.0	
전 체	50.0	20.1	29.9	

(8) 십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10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와 비교할 때 기형아들이 훨씬 많다.

구 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통계치
부	45.0	21.2	33.9	$\chi^2=3.9$ DF=2
모	47.5	16.7	35.8	
전 체	46.6	18.2	35.1	

9.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한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치
부	6.4	25.9	36.7	24.2	6.8	$\chi^2=10.4^*$ DF=4
모	4.1	26.7	31.8	31.1	6.2	
전 체	4.9	26.4	33.5	28.8	6.4	

(2) 월경 및 동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

부	7.7	33.3	27.3	24.9	6.8	$\chi^2=20.6^{***}$ DF=4
모	4.3	28.8	23.6	34.9	8.4	
전 체	5.4	30.3	24.9	31.5	7.9	

(3) 사춘기의 자녀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	5.2	16.8	20.7	46.5	10.7	$\chi^2=10.5^*$ DF=4
모	4.7	13.1	16.1	53.1	12.9	
전 체	4.9	14.4	17.7	50.9	12.2	

(4) 자위행위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부	17.1	23.1	24.6	28.6	6.6	$\chi^2=3.5$ DF=4
모	16.0	27.1	23.6	28.2	5.1	
전 체	16.4	25.8	24.0	28.3	5.6	

10. 다음의 사항들을 어느 시기에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까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생식기구조

구 분	국민학교 이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후	가르칠 필요없음	통계치
부	7.5	34.1	43.1	8.4	2.9	4.2	$\chi^2=20.5^{***}$ DF=5
모	10.7	41.1	39.4	4.4	1.5	3.0	
전 체	9.6	38.7	40.6	5.7	1.9	3.4	

(2) 신체변화(2차성징)

부	0.9	30.1	56.1	8.9	1.9	2.2	$\chi^2=26.9^{***}$ DF=5
모	1.0	41.6	50.4	4.4	0.8	1.8	
전 체	1.0	37.7	52.4	5.9	1.2	1.9	

(3) 사춘기 정서변화

부	0.6	12.3	69.4	13.1	2.4	2.2	$\chi^2=32.5^{***}$ DF=5
모	0.7	21.6	68.1	7.6	0.7	1.4	
전 체	0.7	18.4	68.5	9.5	1.2	1.7	

(4) 월경

부	1.3	41.5	47.8	4.9	1.1	3.4	$\chi^2=54.1^{***}$ DF=5
모	1.2	62.1	32.1	2.1	0.4	2.0	
전 체	1.3	55.2	37.3	3.1	0.7	2.5	

(5) 사정

부	1.3	8.4	50.6	20.0	10.0	9.8	$\chi^2=4.8$ DF=5
모	1.0	11.9	47.6	19.8	8.9	10.8	
전 체	1.1	10.7	48.6	19.9	9.2	10.5	

(6) 성충동

부	0.4	7.7	52.8	23.4	7.7	7.9	$\chi^2=4.4$ DF=5
모	1.2	9.4	48.7	23.4	8.9	8.3	
전 체	1.0	8.8	50.1	23.4	8.5	8.2	

(7) 자위행위

부	0.4	4.0	44.0	26.0	7.8	17.8	$\chi^2=9.8$ DF=5
모	1.4	6.5	40.6	22.3	9.1	20.1	
전 체	1.1	5.7	41.7	23.5	8.7	19.3	

(8) 성위생

부	2.2	12.5	45.7	19.4	12.2	8.0	$\chi^2=12.6^*$ DF=5
모	3.9	17.9	44.1	15.0	12.4	6.7	
전 체	3.4	16.1	44.6	16.5	12.4	7.1	

(9) 이성교제

부	0.4	9.5	39.2	22.8	25.2	2.9	$\chi^2=4.8$ DF=5
모	0.9	12.3	38.6	19.8	24.7	3.7	
전 체	0.7	11.4	38.8	20.8	24.9	3.4	

(10) 결혼

부	0.7	2.0	11.0	25.2	53.2	7.9	$\chi^2=7.5$ DF=5
모	1.1	3.5	14.5	23.2	48.9	8.7	
전 체	1.0	3.0	13.3	23.9	50.4	8.5	

(11) 성행위

부	0.2	0.9	16.5	23.9	40.6	17.9	$\chi^2=9.2$ DF=5
모	0.7	2.4	20.9	22.0	37.1	16.9	
전 체	0.5	1.9	19.4	22.7	38.3	17.2	

(12) 임신과 출산

부	0.4	2.0	20.7	27.6	39.8	9.6	$\chi^2=18.2^{**}$ DF=5
모	0.8	5.0	27.7	22.8	35.8	7.9	
전 체	0.7	4.0	25.3	24.4	37.2	8.4	

(13) 가족계획

부	0.7	2.0	11.2	24.8	50.0	11.4	$\chi^2=11.4^*$ DF=5
모	1.0	2.0	12.5	18.8	49.0	16.6	
전 체	0.9	2.0	12.1	20.8	49.4	14.8	

(14) 인공임신중절

부	0.5	0.5	11.5	23.3	41.1	23.3	$\chi^2=8.7$ DF=5
모	0.6	1.5	16.2	22.4	38.4	21.0	
전 체	0.5	1.1	14.6	22.7	39.3	21.7	

(15) 남녀역할

부	0.2	10.0	29.2	27.6	25.6	7.3	$\chi^2=12.4^*$ DF=5
모	1.9	13.3	29.0	22.5	25.9	7.4	
전 체	1.4	12.2	29.0	24.2	25.8	7.4	

(16) 성도덕

부	0.7	10.4	35.6	33.3	14.9	5.1	$\chi^2=33.9^{***}$ DF=5
모	1.4	13.1	43.6	19.4	18.2	4.4	
전 체	1.1	12.2	40.9	24.1	17.1	4.6	

(17) 성병

부	0.4	2.7	30.7	36.5	20.9	8.7	$\chi^2=16.8^{**}$ DF=5
모	1.3	4.1	33.5	26.5	25.4	9.2	
전 체	1.0	3.6	32.6	29.6	23.9	9.1	

(18) 성피해방지(성폭행, 강간)

부	2.5	12.6	42.6	25.3	11.0	6.1	$\chi^2=25.2^{***}$ DF=5
모	3.8	20.3	42.5	16.3	12.0	5.1	
전 체	3.4	17.7	42.5	19.3	11.6	5.4	

11. 위의 성교육 내용 중 자녀에게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항목의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구 분	생식기 구조	신체변화	사춘기 정서변화	월경	사정	성충동	자위행위	성위생	이성교제
부	4.1	9.0	8.0	10.5	1.7	1.5	2.9	2.7	19.0
모	5.2	9.4	6.6	15.4	1.4	1.1	1.4	2.9	18.9
전 체	4.8	9.2	7.0	13.9	1.5	1.2	1.9	2.9	18.9

구 분	결혼	성행위	임신과 출산	가족 계획	인공임신 중절	남녀 역할	성도덕	성병	성피해 방지	통계치
부	12.7	1.5	8.5	3.7	1.9	4.6	2.4	2.0	3.6	$\chi^2=81.6^{***}$ DF=17
모	13.7	1.0	9.4	2.2	1.4	3.5	1.0	1.6	3.9	
전 체	13.4	1.2	9.1	2.7	1.5	3.8	1.4	1.8	3.8	

(복수응답문항)

12. 당신은 자녀에게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십니까?

구 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통계치
부	47.3	52.7	$\chi^2=0.73$ DF=1
모	49.7	50.3	
전 체	48.9	51.1	

13. 당신의 자녀가 다음의 상품을 구입할 때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지도하십니까?

(1) 학용품

구 분	사다준다	함께 가서 산다	알아서 사도록 한다	통계치
부	6.2	8.8	84.9	$\chi^2=1.7$ DF=2
모	4.6	8.5	86.9	
전 체	5.2	8.6	86.2	

(2) 소셜·잡지

부	11.1	18.8	70.1	$\chi^2=2.1$ DF=2
모	9.4	21.6	69.0	
전 체	10.0	20.6	69.4	

(3) 의류

부	24.8	57.5	17.7	$\chi^2=0.30$ DF=2
모	25.9	57.4	16.7	
전 체	25.5	57.4	17.1	

(4) 참고서

부	7.8	12.1	80.2	$\chi^2=1.1$ DF=2
모	7.4	14.1	78.5	
전 체	7.5	13.4	79.1	

(5) 음식(과자)

부	28.9	14.3	56.8	$\chi^2=15.7^{***}$ DF=2
모	38.7	15.2	46.0	
전 체	35.4	14.9	49.7	

14. 당신은 가정에서의 자녀의 여가시간을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 분	어떤 일을 하든 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학교 혹은 학원에 가는 등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외의 자유로운 시간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방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는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휴식시간	통계치
부	37.2	27.8	24.8	10.2	$\chi^2=2.8$ DF=3
모	40.2	28.5	20.9	10.5	
전 체	39.1	28.3	22.2	10.4	

15. 당신은 자녀에게 다음의 일을 하도록 시킵니까?

(1) 자녀의 방청소 및 정리

구 분	예	아니오	통계치
부	89.0	11.0	$\chi^2=1.2$ DF=1
모	90.8	9.2	
전 체	90.2	9.8	

(2) 쓰레기 버리기

부	74.9	25.1	$\chi^2=0.02$ DF=1
모	75.3	24.7	
전 체	75.2	24.8	

(3) 식사시간 전 상차리기

부	47.1	52.9	$\chi^2=0.10$ DF=1
모	46.2	53.8	
전 체	46.5	53.5	

(4) 어머니 안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

부	93.8	6.2	$\chi^2=2.4$ DF=1
모	95.7	4.3	
전 체	95.1	4.9	

(5) 이불개기(침대정리)

부	87.2	12.8	$\chi^2=0.13$ DF=1
모	86.5	13.5	
전 체	86.7	13.3	

(6) 마른 빨래개기

부	51.6	48.4	$\chi^2=1.2$ DF=1
모	54.7	45.3	
전 체	53.7	46.3	

(7)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갈기 등)

부	44.0	56.0	$\chi^2=0.00$ DF=1
모	44.0	56.0	
전 체	44.0	56.0	

16. 당신은 자녀가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1) 자녀가 정기적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구 분	예	아니오	통계치
부	68.1	31.9	$\chi^2=2.80$ DF=1
모	63.5	36.5	
전 체	65.1	34.9	

(2) 자녀가 세운 시간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충고해 준다.

부	63.9	36.1	$\chi^2=0.01$ DF=1
모	64.2	35.8	
전 체	64.1	35.9	

(3) 시간계획을 지키는지 확인해 본다.

부	52.3	47.7	$\chi^2=0.08$ DF=1
모	53.1	46.9	
전 체	52.8	47.2	

(4) 자녀가 시간을 계획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다.

부	60.9	39.1	$\chi^2=1.64$ DF=1
모	64.4	35.6	
전 체	63.2	36.8	

17. 당신의 자녀는 다음 표의 보기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하고 있습니까?

(1) 흡연

구 분	전혀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자주	통계치
부	95.2	2.2	0.9	0.9	0.9	$\chi^2=4.9$ DF=4
모	95.9	2.9	0.6	0.2	0.4	
전 체	95.6	2.7	0.7	0.4	0.6	

(2) 무단외박

부	93.4	4.8	0.0	1.3	0.4	$\chi^2=15.7^{**}$ DF=4
모	95.2	3.2	1.1	0.1	0.3	
전 체	94.6	3.8	0.7	0.5	0.4	

(3) 디스코장 출입

부	96.9	1.5	0.9	0.4	0.2	$\chi^2=2.2$ DF=4
모	97.9	1.2	0.3	0.4	0.1	
전 체	97.6	1.3	0.5	0.4	0.1	

(4) 하급생 구타

부	96.1	2.6	0.4	0.4	0.4	$\chi^2=0.80$ DF=4
모	95.9	3.0	0.6	0.3	0.2	
전 체	95.9	2.9	0.5	0.4	0.3	

(5) 집단싸움

부	97.2	1.5	1.1	0.0	0.2	$\chi^2=5.3$ DF=4
모	98.1	0.9	0.3	0.1	0.6	
전 체	97.8	1.1	0.6	0.1	0.4	

(6) 본드흡입

부	99.3	0.2	0.2	0.2	0.0	$\chi^2=2.6$ DF=4
모	98.8	0.6	0.1	0.2	0.3	
전 체	99.0	0.4	0.1	0.2	0.2	

(7) 음란물 보기

부	84.5	12.9	1.5	0.4	0.7	$\chi^2=9.1$ DF=4
모	89.0	9.6	0.7	0.6	0.1	
전 체	87.5	10.7	1.0	0.5	0.3	

(8) 이성교제

부	68.8	19.8	7.6	2.0	1.7	$\chi^2=12.5^*$ DF=4
모	73.4	19.2	5.6	1.6	0.2	
전 체	71.8	19.4	6.3	1.7	0.7	

(9) 과대치장

부	74.4	16.0	5.7	3.1	0.9	$\chi^2=3.0$ DF=4
모	75.5	16.9	5.3	1.8	0.6	
전 체	75.1	16.6	5.4	2.2	0.7	

(10) 음주

부	88.4	8.1	2.6	0.4	0.4	$\chi^2=1.5$ DF=4
모	88.1	9.3	2.0	0.2	0.3	
전 체	88.2	8.9	2.2	0.3	0.4	

(11) 전자오락실 출입

부	46.9	35.1	10.7	5.7	1.5	$\chi^2=6.9$ DF=4
모	51.8	34.6	6.9	5.3	1.5	
전 체	50.1	34.7	8.2	5.4	1.5	

(1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부	50.8	40.1	6.4	2.2	0.4	$\chi^2=6.1$ DF=4
모	46.0	46.7	4.7	2.1	0.4	
전 체	47.6	44.5	5.3	2.2	0.4	

(13) 당구장 출입

부	93.6	4.2	0.9	0.9	0.4	$\chi^2=4.9$ DF=4
모	94.6	3.8	1.0	0.1	0.4	
전 체	94.3	3.9	1.0	0.4	0.4	

(14) 돈내기 도박

부	90.6	7.2	1.1	0.4	0.7	$\chi^2=5.1$ DF=4
모	92.4	6.4	0.7	0.0	0.6	
전 체	91.8	6.7	0.8	0.1	0.6	

(15) 성인영화관람

부	85.3	11.4	1.5	0.2	1.5	$\chi^2=6.5$ DF=4
모	88.9	9.4	1.0	0.2	0.4	
전 체	87.7	10.0	1.2	0.2	0.8	

(16) 시험 중 부정행위

부	93.4	5.3	0.9	0.0	0.4	$\chi^2=2.1$ DF=4
모	92.6	6.2	0.5	0.1	0.7	
전 체	92.8	5.9	0.6	0.1	0.6	

18. 당신은 다음 보기의 각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1) 흡연

구 분	전혀 심각지않음	별로 심각지않음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통계치
부	33.3	3.2	4.6	20.3	38.6	$\chi^2=4.1$ DF=4
모	30.6	2.7	3.0	19.7	44.0	
전 체	31.6	2.9	3.6	19.9	42.1	

(2) 무단외박

부	32.8	4.1	9.3	20.9	32.8	$\chi^2=10.8^*$ DF=4
모	30.0	4.4	5.7	17.9	42.1	
전 체	30.9	4.3	7.0	18.9	38.9	

(3) 디스코장 출입

부	35.0	4.1	8.2	21.6	31.2	$\chi^2=4.8$ DF=4
모	30.0	5.2	6.4	22.6	35.8	
전 체	31.7	4.8	7.0	22.3	34.2	

(4) 하급생 구타

부	35.2	4.1	10.5	23.0	27.3	$\chi^2=7.1$ DF=4
모	29.3	4.2	8.2	24.3	34.0	
전 체	31.3	4.2	9.0	23.8	31.7	

(5) 집단싸움

부	34.1	2.0	7.3	22.2	34.4	$\chi^2=7.5$ DF=4
모	29.8	3.2	5.6	19.5	41.9	
전 체	31.3	2.8	6.2	20.4	39.4	

(6) 본드흡입

부	34.0	2.0	2.6	14.5	46.8	$\chi^2=12.7^*$ DF=4
모	30.7	2.1	1.7	8.8	56.6	
전 체	31.9	2.1	2.0	10.8	53.2	

(7) 음란물 보기

부	29.8	7.9	8.5	23.1	30.7	$\chi^2=8.8$ DF=4
모	26.4	6.2	9.0	18.9	39.5	
전 체	27.6	6.8	8.9	20.3	36.5	

(8) 이성교제

부	27.6	15.5	30.5	12.9	13.5	$\chi^2=1.7$ DF=4
모	26.2	18.6	29.3	12.2	13.7	
전 체	26.7	17.6	29.7	12.4	13.6	

(9) 과대치장

부	27.7	12.4	25.1	19.0	15.9	$\chi^2=3.2$ DF=4
모	23.5	13.0	24.3	22.8	16.4	
전 체	25.0	12.8	24.6	21.5	16.2	

(10) 음주

부	31.7	5.9	16.4	17.9	28.2	$\chi^2=12.2$ DF=4
모	28.4	6.1	10.0	21.2	34.3	
전 체	29.5	6.0	12.2	20.1	32.2	

(11) 전자오락실 출입

부	26.0	17.7	22.3	20.0	14.0	$\chi^2=3.3$ DF=4
모	21.4	17.6	24.7	20.3	16.0	
전 체	23.0	17.7	23.9	20.2	15.3	

(12)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부	22.5	12.0	17.9	25.9	21.7	$\chi^2=3.5$ DF=4
모	17.7	13.0	19.6	27.0	22.6	
전 체	19.4	12.7	19.1	26.6	22.3	

(13) 당구장 출입

부	33.6	5.6	10.5	23.1	27.2	$\chi^2=3.8$ DF=4
모	30.2	5.0	10.6	21.2	33.0	
전 체	31.3	5.2	10.6	21.9	31.0	

(14) 돈내기 도박

부	33.2	5.5	6.1	16.5	38.7	$\chi^2=3.4$ DF=4
모	28.6	4.7	5.7	17.3	43.7	
전 체	30.2	5.0	17.0	17.0	42.0	

(15) 성인영화관람

부	31.5	6.9	10.7	23.4	27.5	$\chi^2=6.1$ DF=4
모	27.2	6.4	10.4	21.0	34.9	
전 체	28.7	6.6	10.5	21.8	32.4	

(16) 시험 중 부정행위

부	34.1	4.4	9.9	21.3	30.3	$\chi^2=3.4$ DF=4
모	28.7	5.2	10.0	22.3	33.7	
전 체	30.6	4.9	10.0	22.0	32.6	

19. 자녀가 보기에 열거된 행동을 하는 경우,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은 어떠한 것입니까?

구 분	흡연	무단외박	디스코장 출입	하급생 구타	집단싸움	본드흡입	음란물 보기	이성교제
부	12.6	7.1	2.4	1.2	4.7	9.1	3.5	9.4
모	13.5	6.9	0.9	0.2	1.9	7.7	4.9	10.3
전 체	13.2	6.9	1.4	0.7	2.9	8.2	4.4	10.0

구 분	과대치장	음주	전자오락실 출입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당구장 출입	돈내기 도박	성인영화 관람	시험중 부정행위	통계치
부	4.3	1.2	18.5	21.3	0.0	1.6	2.0	1.2	$\chi^2=18.8$ DF=15
모	4.7	1.9	13.9	27.6	1.9	1.9	1.7	1.9	
전 체	4.6	1.7	15.5	25.4	0.6	1.1	1.8	1.7	

20. 다음 중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쉬운 가정적 상황은 어떠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 분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타	통계치
부	18.1	50.3	21.4	8.7	1.5	$\chi^2=6.1$ DF=4
모	16.1	52.1	24.0	5.8	2.0	
전 체	16.8	51.5	23.1	6.8	1.8	

21. 당신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벌이나 매 등의 체벌을 통해 가르친다	매번 잘못의 이유를 설명, 지적하여 대화로 통해 지도한다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지켜본다	청소년기에는 가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준다	기타	통계치
부	11.2	75.4	11.0	1.1	1.3	$\chi^2=7.0$ DF=4
모	10.2	71.7	14.0	2.8	1.4	
전 체	10.5	72.9	13.0	2.2	1.4	

22. 당신은 자녀의 바른 행동형성을 위해 평소에 자녀에게 아래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충고해 주십니까?

(1) 인생의 목적, 가치관

구 분	전혀없다	가끔	보통	자주	매우자주	통계치
부	7.3	50.5	19.4	20.2	2.6	$\chi^2=4.4$ DF=4
모	6.0	51.0	18.4	19.9	4.7	
전 체	6.4	50.8	18.8	20.0	4.0	

(2) 생활습관

부	2.1	28.3	24.5	38.4	6.7	$\chi^2=11.7^*$ DF=4
모	1.8	23.0	20.9	44.7	9.7	
전 체	1.9	24.8	22.1	42.6	8.6	

(3) 친구 및 대인관계

부	4.3	30.8	33.0	27.4	4.5	$\chi^2=18.9^{***}$ DF=4
모	1.9	28.0	27.8	36.2	6.1	
전 체	2.7	29.0	29.5	33.2	5.6	

(4)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부	7.1	38.4	29.7	22.2	2.6	$\chi^2=3.0$ DF=4
모	7.0	38.8	26.5	23.7	3.9	
전 체	7.1	38.6	27.6	23.2	3.5	

(5) 예의범절

부	1.9	21.9	22.5	39.3	14.4	$\chi^2=3.7$ DF=4
모	1.0	20.2	21.4	43.0	14.4	
전 체	1.3	20.8	21.8	41.7	14.4	

(6) 학업 및 성적

부	1.7	23.6	21.7	38.0	15.0	$\chi^2=12.1^*$ DF=3
모	1.1	16.3	24.1	41.7	16.7	
전 체	1.3	18.8	23.3	40.5	16.1	

(7) 건강관리 및 위생

부	3.4	17.2	27.0	37.6	14.8	$\chi^2=13.9^{**}$ DF=4
모	2.0	15.1	20.7	45.1	17.2	
전 체	2.5	15.8	22.9	42.5	16.4	

23. 다음과 같은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자녀와 당신(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구 분	자녀의 입장	부모의 입장	통계치
부	85.6	14.4	$\chi^2=14.1^{***}$ DF=1
모	92.0	8.0	
전 체	89.8	10.2	

(2)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부	62.9	37.1	$\chi^2=0.32$ DF=1
모	61.3	38.7	
전 체	61.9	38.1	

(3)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부	16.3	83.7	$\chi^2=0.38$ DF=1
모	15.0	85.0	
전 체	15.5	84.5	

(4)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부	28.7	71.3	$\chi^2=0.21$ DF=1
모	29.9	70.1	
전 체	29.5	70.5	

(5) 교과외 클럽/써클활동을 하는 일

부	77.8	22.2	$\chi^2=0.98$ DF=1
모	75.4	24.6	
전 체	76.2	23.8	

(6)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일

부	87.6	12.4	$\chi^2=1.67$ DF=1
모	89.9	10.1	
전 체	89.2	10.8	

24.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한 진로지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국민학교 전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기타	통계치
부	3.8	8.8	43.4	37.0	6.0	1.1	$\chi^2=9.0$ DF=5
모	3.5	12.7	46.4	31.6	5.3	0.6	
전 체	3.6	11.4	45.3	33.4	5.5	0.7	

25. 진로지도를 위해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음 중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구 분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를 통해서 파악	자녀와의 대화 를 통해서 파악	IQ검사나 적성검사 등 검사결과를 통해서 파악	기타	통계치
부 모	32.1	58.0	8.4	1.5	$\chi^2=3.2$ DF=3
전 체	35.3	57.2	6.7	0.9	
	34.2	57.5	7.2	1.1	

26. 우리나라에는 일반 여종이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충분히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통계치
부 모	7.7	81.9	9.9	0.4	$\chi^2=24.2^{***}$ DF=3
전 체	4.3	76.3	19.1	0.3	
	5.5	78.2	16.0	0.4	

27. 당신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대체로 어떠한 방법으로 얻고 계십니까?

구 분	책을 통해서	비슷한 또래의 자녀 를 가진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 체를 통해서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 육강좌를 통해서	기타	통계치
부 모	13.6	14.7	61.9	3.7	6.3	$\chi^2=35.4^{***}$ DF=4
전 체	9.9	20.2	62.1	6.3	1.5	
	11.2	18.3	62.0	5.4	3.1	

28. 만약 자녀가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구 분	대학은 꼭 가야하므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 을 가라고 하겠다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 (취업,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를 권하겠다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뒤 진학을 모색 해 보라고 하겠다	기타	통계치
부 모	15.2	70.9	12.6	1.3	$\chi^2=12.3^{**}$ DF=3
전 체	23.0	64.4	11.0	1.7	
	20.3	66.6	11.5	1.5	

29.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으로 인하여 자녀가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 실력부족 등)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구 분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하겠다	현실의 어려움에 맞게 진로를 수정하라고 하겠다	기타	통계치
부 모	42.3	56.2	1.5	$\chi^2=1.1$ DF=2
전 체	42.7	56.4	0.9	
	42.6	56.4	1.1	

30.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진학시켜야 한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치
부 모	8.4	28.8	10.2	32.7	19.9	$\chi^2=2.3$ DF=4
전 체	7.0	27.1	9.6	33.9	22.4	
	7.5	27.7	9.8	33.5	21.6	

(2) 미용사, 간호사 등의 직업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어울린다.

부	23.8	53.8	11.0	8.2	3.2	$\chi^2=2.3$ DF=4
모	20.8	54.5	11.5	9.9	3.3	
전 체	21.8	54.2	11.3	9.3	3.3	

(3) 딸도 아들처럼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부	24.2	39.6	21.9	12.8	1.5	$\chi^2=19.9^{***}$ DF=4
모	33.6	39.8	15.8	8.8	1.9	
전 체	30.4	39.8	17.9	10.2	1.8	

전문가 의견조사서

〈인간관계지도〉

1. 다음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에 관해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엄부자모(嚴父慈母)’는 이상적인 부모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틀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아버지는 자녀양육을 위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훌륭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기 쉽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직장생활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담당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청소년 자녀의 가족의사결정 참여문제에 관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여러가지 결정은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며, 가족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정의 위기) 그것을 자녀와 상의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자녀에게 감추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크고 작은 결정들(자녀의 의복구입, 여름휴가계획, 집의 이사계획, 자녀의 용돈결정 등)에 있어서도 자녀들과의 상의없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가족문제의 이해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3. 다음에서는 형제들간의 다툼에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다투게 됩니다. 형제들간의 다툼은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하지만 혹자는 어려서 싸움을 많이 한 형제일수록 성인이 된 후에 보다 깊은 우애를 가지게 된다고도 합니다.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인 듯 합니다. 그러나 당장 부모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형제간의 싸움에 대하여 부모는 무관심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싸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때 부모의 중재는 자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즉 부모의 중재가 형제간의 갈등을 보다 악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형제간의 다툼에 있어서 부모의 중재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다툼 때 부모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들끼리 해결하도록 부모는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중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제간의 위계를 중시해야 할까요? 행동의 잘잘못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까요? 구체적 지도방법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4. 다음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친구관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관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친구들로부터 유익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들의 친구관계에 간섭하고 제한하며,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있어 친구는 놀이의 중심무대가 되며,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확인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특

수한 보호를 받아오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맺어 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친구관계형성을 위하여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와 지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5. 다음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이성관계지도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국민학교시기부터 미팅이 유행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 중 많은 수가 이성친구를 사귀기를 원하거나 혹은 이미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이성친구와 사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들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활습관지도〉

1. 다음은 청소년기 자녀의 용돈지도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용돈지출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생활의 질서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돈을 어떻게 지급하며, 자녀들이 그 용돈을 지출하는 것에 얼마나 혹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금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습관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에게 용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60%였으며, 일단 지급한 용돈에 관한 한 자녀가 책임지고 쓰게 한다는 부모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을 적절한 액수의 범위와 지급방식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또한 용돈지급 후 부모들은 자녀들의 용돈지출에 관여하는게 좋을까요? 관여하는게 좋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다음에서는 청소년들의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소년들은 의류나 도서, 혹은 가방 등 값나가는 물건을 구매할 때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하기 보다는 부모들이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러한 물품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용돈의 범위안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용돈과는 별도로 부모가 위의 물품들을 자주 구입해 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소비습관을 형성시키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 또한 청소년들의 소비습관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충동구매입니다. 즉 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대한 흥미, 호기심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충동구매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계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다음은 청소년기 자녀의 여가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있어 여가시간이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학교나 학원 등 공부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여가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온전한 휴식시간만을 여가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여가시간에 대한 4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여가시간〉

- | |
|---|
| <p>() 1. 어떤 일을 하든지(공부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p> <p>() 2. 학교 혹은 학원에 가는 등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외의 자유로운 시간</p> <p>() 3.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방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는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p> <p>() 4. 기타 _____</p> |
|---|

(2)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청소년의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또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용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습관지도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즘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과보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자녀의 수가 적어지게 되면서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집중되게 되었고 자녀들은 더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의는 자녀들의 학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되는 여타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경우(특히 입시를 앞둔 경우)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마저 면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이는 청소년들의 자율성 및 책임감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있어 학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자기방정리, 가사참여, 동생돌보기 등)을 지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학업이외의 여러가지 역할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선생님의 견해를 다음에 적어 주십시오.

(2) 또한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어질러 놓기만 하는 자녀에게 정리정돈습관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지도하여야 하겠습니까?

5. 다음은 청소년들의 시간관리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은 아직 여러가지 면에서 무질서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상태에 질서를 잡아가는 시기라 할 수 있겠지요. 무질서한 생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녀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밤낮을 바꾸어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기 자녀들의 시간사용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견해를 다음에 적어주십시오.

〈성교육〉

1. 성교육이란 성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태도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올바른 성적 정체감을 길러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성태도나 성역할에 관련된 내용은 특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역할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모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점에서 부모들이 지향해야 할 성역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2. 혹자는 현대를 가리켜 ‘성 개방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월경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성행위를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국민학생을 위한 성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국민학생들은 성에 관한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국민학생 자녀가 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한 예로 국민학생 자녀로부터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히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2)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이 빨라져 국민학생때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생기는 국민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는 자신의 성장속도나 변화된 모습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고민을 덜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중학생 시기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시기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방에서

포르노 잡지나 음란 비디오를 발견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사춘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쯤 되면 사춘기 초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하여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성역할이나 성태도도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필요가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성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하고, 성행위 후 성병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임신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성충동 해결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 여학생들의 성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6.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 자신은 자녀의 성교육에 필요한 성지식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성지식 정도는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자녀의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은 어디서 얻는 것이 좋을까요? 책이름이나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자녀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는 내용 중 부모들이 잘못알기 쉬운 성지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문제행동지도〉

1. 요즘 청소년들은 흡연이나 음주행위, 이성교제, 음란서적 보기 등에 대해 부모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것들을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조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I’, 1990). 자녀의 이러한 행동들을 지나치게 문제시하거나 무조건 못하게 할 때 자녀의 반발을 사거나 도리어 자녀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탈선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그대로 놔두면 자녀들이 그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더 나아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부모는 행동의 잘잘못이나,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자녀와의 견해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또 실제 자녀가 술, 담배를 시작했다거나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다닐 때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할까요?

2. 자녀가 비행을 하여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서에 처음으로 불려가게 된 부모들 중에는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으로 쉽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상황이 빈번해지게 되면 자녀를 바로잡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예방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 자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가 평소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또 비행의 조짐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자녀의 문제행동이 심각해져서 범죄적 양상을 보일 때 부모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청소년의 비행은 혼자 저지르는 경우보다 친구들과 집단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도 또래집단이나 친구의 유혹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친구가 자녀에게 좋지못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자녀가 다음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켜서 고심하는 부모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민학생 자녀가 부모의 지갑을 뒤킨거나 학급 물건을 자주 훔치는 등 도둑이 심한 경우

(2) 국민학생 자녀가 전자오락에 몰두해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동네 전자오락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경우

(3) 국민학생인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카드놀이, 찰찌이 등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놀이에만 몰두하는 경우

(4) 중학생인 자녀가 부모 몰래 음란비디오나 음란서적을 탐닉하는 경우

(5) 중학생인 자녀가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경우

(6) 고등학생인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자주 오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의 출입이 빈번해지고 부모가 야단치면 가출까지도 하는 경우

(7) 고등학생인 아들이 록하면 친구나 후배 등을 때려서 다치게 하고 집단으로 패싸움까지 자주 하는 경우

5. ‘문제자녀의 뒤에는 문제가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정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곤 합니다. 특히 요즘은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의 가정의 구조적 요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과잉보호나 무관심, 자녀의 소외감 등의 가정 분위기와 부모의 교육방식이 청소년행동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고 탈선을 막기위해 평소에 가정에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지도〉

1. 진로란 한 인간의 사회적 진출문제로서 장차의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깨우쳐 가야하는 인간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므로 진로지도 또한 어느 특정한 시기나 단계에 이르러 진학이나 취직을 결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간의 성장발달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자기 의사결정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로지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진학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 문제를 흔히 일류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좋은 취직자리를 구하는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로지도의 시기와 단계별로 필요한 진로지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래 직업 전망 시기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학생 자녀와 부모간에 나타났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6%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학부모의 경우는 전체의 28%나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로지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 각 단계별 진로지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써 주십시오.

국민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2. 진로지도에 있어서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자녀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종이 자기 자녀에게도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기대는 자녀의 직업기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종보다는 자기 자녀에게 유망한 직종을 자녀와 함께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자녀의 흥미, 적성은 어떻게 발견하고 길러 줄 수 있을까요?

(2) 중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부모는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운동을 잘 해서 체대진학을 원할 지라도 운동은 취미로 하기를 바라고 의대, 상대, 공대와 같이 취직하기 좋은 곳으로 진학 할 것을 권유하는 부모가 많은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또는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부모에게는 불안정하게 느껴질 경우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요?

3. 현대사회의 직업은 날로 세분화, 전문화, 복잡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의 종류가 약 1만 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3만에서 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업세계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지 않고 내린 진로 결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업세계 탐색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단순히 직업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자녀에게 필요한 직업정보를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직업세계를 탐색할 때 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보아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 자녀에게 필요한 직업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진학과 취업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연하게 진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을 조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졸이상을 원하는 학부모가 항상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기대는 학벌사회라는 현실과 맞물려 학생들의 진로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1)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꼭 거쳐야 할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일까요?

(2)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에게 자극제로서 약이 되기도 하고 압박감을 주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압박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의 기대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5.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었던 1,099명의 고등학생 중 52.1%의 학생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직업과 실제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 직업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부족, 부모의 기대, 가정의 경제적 환경 등의 현실상황이 자녀의 진로선택을 제한할 때 그 제한요인 자체를 극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제한요인으로 인정하고 진로를 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가정의 경제적 환경때문에 진로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2) 자녀가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6. 자녀가 딸인 경우는 시집 잘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도록 만드는 부모가 많습니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장래에 대한 희망에 있어서 학업·진학에 관한 것(35.5%), 직장에 관한 것(33.5%), 가정에 관한 것(14.3%)의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취업에 대한 여학생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은 아직도 딸의 취업을 결혼을 차선택이나 결혼하기 전까지 경험삼아 해 볼만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딸의 취업에 대해 부모가 지녀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2) 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이상적 직업선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현실적 직업선택 때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현실적 직업선택 때와 달리 남성지배적 직업을 선택한 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기사와 같이 남성지배적 직업을 원하는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은 어떤 것일까요?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

1. 가정의 물리적 조건, 가치지향성, 집단성격 등과 자녀의 도덕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보고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특히 신경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 도덕적 규범을 아는 것과 도덕적 규범에 따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옳고 그름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상황적 편의를 위해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요즘의 사회분위기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융통성없는 사람, 혹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 썸으로 취급하는 경향마저 있는 듯 합니다.

청소년기 자녀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현실적인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갈등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요즘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이기적인 아이돌이 많아졌다고들 합니다. 부모님들이 한 두명의 자녀에게 관심을 집중하다보니 자녀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한 부모의 태도는 결국 아이들을 타인을 고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만들기 쉽다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이제까지 가정에만 국한되던 그들의 사회성이 보다 넓게 확장되는 시기로서 이기적인 청소년은 친구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을 고려할 줄 모르고, 친구를 이해한다거나 친구와 협동할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청소년을 부모는 어떻게 지도하여야 할까요?

4. 우리 사회에는 은연 중에 용인되고 있는 많은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킨닝을 한다든지, 차가 없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든지, 약속시간에 예사로 늦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도덕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편법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부모들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하는 숙제를 할 때 사전을 찾지 않고 참고서를 베끼거나, 문제집 푸는 숙제를 해답을 보고 해 가는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럴듯하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흔히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는 세대차이가 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합니다. 조그만 생각해 봐도 부모들이 성장하던 시대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세대가 성장하던 시기는 물질적으로 빈곤하였던 반면 요즘의 청소년들은 풍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취향, 옷을 입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등도 때로는 부모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간의 차이는 비단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방식, 가치체계나 신념 등 정신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커다란 차이인 것입니다. 가정내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상이한 생각, 가치, 신념, 행동방식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일이 잦을 때 가정에서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와 지도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